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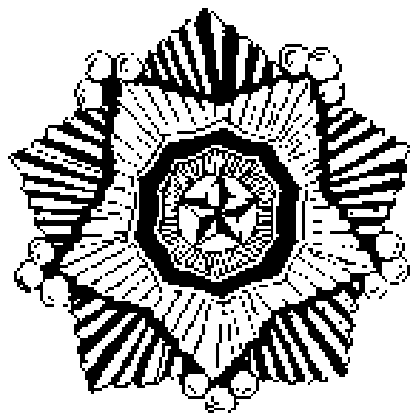
특 간 호



1

주체94(200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4(2005)년 제1호

(루계 제 687 호)

차 례

다박술추억	3
장군님은 태양	5
말하라, 선군길 이어!	6
병사들을 위한 날	13
전선으로 올라가라 나의 시여	22
선군선언	23
국 방	24
아침의 들길	24
김정일 , 그이께서 진두에 서계시기에	25
흰 눈	25
위대한 선군정치를 붓대로 억세게 받들겠다	26
명언해설	30
길가집 이야기	30
선군령도의 백승의 진리와 총서 《불멸의 향도》	37
기치!	40

백두산총대가 제일입니다.....	42
고구려의 민간교육기관 경당	45
시대의 목격자로	46
노래하노라, 오직 한마디	47
채 쓰지 못한 총탄.....	48
최고사령관동지 감사를 주시였네	54
백두산의 징벌.....	55
전사복.....	58
잡지 《조선문학》 주체 93(2004)년 《조선문학축전》상 입선작품.....	58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되는 선군문학의 본성과 특징	59
붉은 해당화 언덕.....	65
연개소문	76
우리는 그날에 불을 지폈다.....	78
명언해설	79
우리는 먼길을 가깝게 간다.....	79
천금을 주고 산 고구려의 부루.....	80

다박솔추억

홍철진

다박솔추억 10년!

쉽게 외울수 없고 선뜻 번질수 없는 력사의 이 갈피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수령님 추켜드신 혁명의 총대에 자기의 력사적 뿌리를 둔 우리의 선군혁명!

선군혁명의 성스러운 그 추억을 안고 장군님 오르셨던 다박솔초소를 우리는 잊지 못한다.

수령님을 뜻밖에 잃은 강토에 자연의 황포는 얼마나 모질었고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제재와 봉쇄는 얼마나 야만적이었던가.

그리고 명랑하고 그리고 구김살없이 행복에 겨웠던 나날들이 더없이 그리웠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존엄한 이 현실을 감수하시자니 우리 장군님 마음속에선 눈물도 보통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 솟구쳐올랐다.

그러나 인민들앞에선 눈물을 보일수도 보여서도 안되었던분이 바로 우리의 장군님이시였다.

오직 총대로 나라를 지키고 그 총대로 강성대국을 일떠세워야 했기에 사생결단의 각오를 안고 선군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이 길에서 한발자욱이라도 떨어지면 죽고마는 우리조국, 우리 인민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군정치를 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 남는 길이며 승리하는 길이다.》

수령님 령전에서 맹세를 다지고 오르신 그 선군길은 비가 와도 가셔야 했고 바람이 불어도 멈추지 말아야 했으며 눈이 내려도 뚫고 가야 했던 조선혁명의 유일한 길이었다.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혁명실록은 이렇게 펼쳐졌다.

그 성스러운 혁명실록에 장군님 헤쳐가신 굵이 굵이 희생을 각오한 길이 다 적혀있고 선군덕에 꽃피난 우리의 웃음이 다 기록되어 있건만 한가지만은... 위대한 인간이 참고 견디신 정신육체적 아픔과 고통의 한계만은 씌여지지 못했다.

오직 우리 장군님만이 알고계실뿐이다.

10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수령님을 잃고 수령님과

멀어진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진 나날이였다.

계실 때는 몰랐더니만 수령님을 잃고보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수령을 어버이로 모시고 살았는가를 사무치게 절감한 나날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10년전 설날 인민들에게 보내신 친필서한을 잊지 않고있다.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하신 장군님의 서한은 그대로 조국앞에 다진 장군님의 맹세였고 수령영생위업의 장엄한 선언이였다.

우리의 선군정치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수령영생위업으로 탄생한 우리의 선군정치였다.

우리 장군님 전선길의 험한 고지 오르실 때도 수령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고 넓어진 새땅앞에서 또 칠보산의 아름다움앞에 서계실 때도 장군님은 수령님과 먼저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이 나날처럼 우리가 수령님에 대해 그렇게 많이 추억하고 그렇듯 많은 말을 나누었으며 것처럼 산같이 그리움을 쌓아본적이 없었다.

사실 우리가 겪은 《고난의 행군》중에 진짜 《고난의 행군》은 수령님 계시지 않는 《고난의 행군》이였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 수령영생위업을 선군정치의 첫 자리에 놓으신것이 아니라.

그리움의 집,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이 꾸려졌을 때 장군님이 고마와 인민은 울었다.

영영 닫긴줄만 알았던 그리움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신 장군님이 정말 고마와 인민은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이렇게 수령님은 우리에게 오셨다.

참으로 이 나날은 환히 웃으시는 수령님의 태양의 미소가 사람들의 가슴속에 더 밝고 더 따뜻이 비쳐든 날과 달이였다.

10년.

이 언덕은 우리 장군님의 희생을 각오한 헌신으로 쌓아졌고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위대성으로 높아진 령마루이다.

어려울 때 장군을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격언에 나오는 그 어려움도 우리앞에 가로놓였던 고난과 시련, 최대의 악조건을 리해

하지 못할것이다.

상상도 못할 어려움이 막아섰던 그 시기 사전에도 올라있지 않고 세상이 아직 들어본적 없는 선군이라는 독특한 정치방식으로 혁명을 주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예지는 천년, 만년을 내다본것이었다.

총대가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선군사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고난을 박차고 일어설수 있게 한 힘이였고 사회주의붉은기였다.

위대한 정치는 위대한 결실을 낳았다.

총대가 든든하니 제국주의자들이 움쩍 못했고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이 되어 사회주의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니 가는 곳마다에서 기적이 창조되고 혁신이 일어났다.

생산원료가 있어야 돌아가는줄 알았던 숨 죽였던 공장이 혁명적군인정신을 기본 《원료》로 삼으니 다시 숨을 몰아쉬며 태동하기 시작했다.

감자농사혁명도 장군님술하에서 손탁을 버린 제대군인들이 땅을 주무르니 벌써 작황부터가 달랐다.

얼기설기 만년주름에 패여 군잠에 들었던 올망졸망한 땀기논들이 선군시대에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짹짹 주름살을 펴고 때벗이를 하였다.

선군시대에 희한한 타조목장이 생겨나고 흐뭇한 배기공장이 일떠섰으며 세월의 이끼에 묻혔던 칠보산이 명산중의 명산으로 빛을 뿌리고 구월산, 장수산이 인민의 휴양지로 선군복을 노래하며 이 땅에 태어났다.

정말이지 총대에선 안나오는게 없었다.

옛날 전설의 보물방망이라더니 쌀도 나오고 땅도 생기고 노래도 웃음도 다 쏟아져나왔다.

선군! 이 말은 곧 위대한 장군님의 권위였고 사회주의조선의 존엄이었음을 선군정치 10년나날 우리는 걸음걸음 절감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붕괴》를 시간표까지 짜놓고 요란스레 떠들 때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를 쏘올려 세계면전에서 원썬들의 면상을 보기 좋게 쳐갈겼고 미제놈들이 우리에게 선제타격이라는 총부리를 들이댈 때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이라는 대포로 당당히 대응하는 놀라운 선군위력앞에서 우리 얼마나 긍지에 북받쳤고 자부심에 넘쳤던가.

허리띠를 졸라맨 보람이 있었고 혁명할 멋이 온몸에 기운처럼 뿔었다.

그저 장군님만 계시면 더 바랄것이 없는 우리 인민이었다.

배부른것은 긍지가 아니며 옷잘입은것은 자부심이 아니다.

우리에게 장군님 모신 긍지가 있고 선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한 이 땅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아침이 밝아오리라는 확신이 이제는 매 사람들의 가슴속에 법칙으로 굳어졌고 신념으로 다져졌다.

나라의 국력이 다져지고 장군님권위로 나라의 존엄이 높아지니 찾아오는 벗들이 많아졌다.

선군이란 말이 우리의 시대어로부터 국제적인 통용어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

미제가 자기 추종세력들을 굶어모아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포위환을 좁힌다고 떠들어대지만 우리는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다져온 선군의 위력이 있다.

놈들은 우리를 포위했다고만 생각하고 제놈들이 노예의 수치를 죽음보다 더한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신념에 포로됐다고는 생각지 않는 어리석은것들이다.

선군이란 말은 다름아닌 우리의 승리라는 말이다.

우리의 선군혁명이 왜 반드시 이기는 혁명으로 되는지 원썬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10년.

이 나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과 땀해야 땀수 없는 하나라는것을 봄바람이 아니라 사나운 광풍속에서 세상에 보여준 자랑스러운 년대였다.

우리는 일심단결, 혼연일체라는 말을 즐겨 쓴다.

이 말은 우리의 체질로 되었고 우리 제도의 본성적요구로 되었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곧 수령결사옹위이다.

돌이켜보면 이 성스러운 력사는 우리의 일심단결,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가 어떤것인가를 력사앞에 증명한 나날이기도 하였다.

그처럼 간고했던 고난의 시기 공장에 찾아오신 장군님께 풀죽을 먹으면서도 쌀이 아니라 일감을 더 달라고 절절히 아뢰었던 자강도의 로동계급.

풍랑속에서 최후의 순간에도 자기 수령의 초상화를 먼저 생각하고 안전하게 보위한 서해의 불굴의 용사들.

그들은 다 보통날엔 눈에 잘 띄우지 않던 이 나라의 평범한 공민들이었다.

선군시대가 그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 영웅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이런 영웅, 이런 선군혁명투사들을 청년영웅도로의 마대전용사들속에서도 보았고 구호

나무를 지켜 목숨도 서슴없이 내달줄 안 열일곱 명의 열혈군인들속에서도 보았다.

수령결사옹위의 전형인 길영조영웅의 뒤를 이어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선군시대에 배출되었던가.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이제는 선군이란 말이 영웅이란 말로 우리에게 간직되었다.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뜻으로 굳게 결합된 이 일심단결의 위력을 제국주의자들은 제일 무서워하고있다.

우리의 이 《무기》는 그 어떤 폭력수단으로도 깨뜨릴수 없으며 세월이 갈수록 그 위력이 더 강해지는 선군《폭탄》이다.

추억의 날과 달을 돌이켜보니 총대를 기둥처럼 세우고 행복의 무지개다리를 놓으며 걸은 우리의 선군길이 얼마나 천만번 정당한 선택의 길이였는가를 다시한번 되새기게 된다.

우리는 명실공히 《화》에서 《복》으로 온 사람들이며 눈물의 바다에서 웃음의 언덕에 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울어도 크게 울어보았고 웃어도 크게 웃어본 사람들이다.

선군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뼈에 저리도록 느꼈기에 많은것이 부족되고 어려운속에서 혁명을 해도 우리는 동요하거나 비판에 빠진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며 노래와 함께 혁명을 전진시켜왔다.

선군시대는 총대시대이며 혁명적인 노래가 많이 태어난 시대라고 말할수 있다.

참으로 이 나날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진 불변의 진리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은 오직 투쟁으로써만 열어 나가야 한다는 주체사상의 정당성이었다.

저 대동강반에 창공높이 서있는 거대한 주체사상탑의 무게는 그대로 총대의 무게임을 우리는 뼈에 저리게 느끼었다.

우리는 참으로 승리와 영광의 먼길을 걸어왔다.

종소리가 울린다.

제야의 종소리가, 추억의 종소리가 새 아침을 부르며 하늘가에 울려 퍼진다.

장군님의 추억도 10년으로 깊어가고 우리의 추억도 10년으로 깊어가는 성스러운 종소리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어디서 이 종소리를 들든 딛고선 발밑은 솔푸른 다박솔언덕이다.

우리가 올라설 강성대국의 령마루도 다름아닌 다박솔언덕이다.

승리와 승리가 뜻깊게 손을 마주 잡는 오, 종소리, 종소리가 울린다.

가사

장군님은 태양

강철부

저 하늘의 태양이 누리를 비쳐주듯
새 세기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네
아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장군님은 태양
예지로 빛나는 광명의 태양

저 하늘의 태양이 못별을 빛내주듯
인민을 손잡아 승리로 이끄시네
아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장군님은 태양
백승을 펼치는 향도의 태양

베푸시는 그 은정 해빛처럼 따스해
누구나 따르며 그 품에 안기네
아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장군님은 태양
인정이 넘치는 사랑의 태양

말하라, 선군길이어!

다박술의 눈송이

박세욱

눈송이 흰눈송이
다박술 술잎에 흰눈송이
조용히 깃드는 이 마음에
가득히 고여라 뜨거움이

이제는 그때로부터 떠나멀리
세월은 흘렀어도
그 엄혹하던 력사의 그날을 못잊어
그날처럼 고요한 눈송이 흰눈송이

여기 그 어디에 서도
들려오는듯싶다
수령님의 한생어린 붉은기
장군님 마음속에 안으시고
여기에 먼저 찍으시던 그 발자욱소리가

다른 길은 우리에게 없기에
딴 목숨도 우리에게 없기에
설의 첫 인사도 병사들과 나누시며
스스럼없이 포가에 손을 얹으시고
하시던 그 말씀이

하늘가 저 멀리
그날에 말없이 바라보시던
장군님 뜨거우신 그 마음
지금도 이 가슴에 뜨거워

흰눈이 어찌 무겁다 하랴
흰눈이 어찌 뜨겁다 하랴
너는 그날에 벌써 오늘을 안았거니
너보다 뜨겁고 무거운것 있으랴

자랑스런 오늘의 선군이 시작된
못잊을 그날을 새기고 또 새기는
이 마음에 불탄다
그날의 붉은기런듯
붉은 노을이 비껴간다 하늘땅에

눈송이 붉은 눈송이
다박술 술잎에 붉은 눈송이
준엄하던 지나간 그날을 되새겨주는
붉은 눈송이 붉은 눈송이

위대한 심장의 대화

리영철

제야의 종소리 울리니
잊을수 없어라
10년전 그날 우리 장군님
태양의 집에서
아버이수령님과 나누신 심장의 대화

-수령님!
199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수령님의 뜻대로
조국은 총진군길에 올랐습니다

-장군!
날이 밝으면 다박술초소로 가겠다고 했지
장군이 백두산총대를 들면

조국도 인민도 다 지킬수 있소
장군이 택한 그 길로 어서 떠나오

-수령님
이제는 자주 뵈울것 같지 못합니다
철령을 넘고 오성산에도 오르고...
선군의 총대로 .
끝까지 붉은기를 지키렵니다

-장군이 병사들속에 있겠다니
난 여기서 예전과 같이
로동자 농민들도 만나보고
세계의 각계 인사들과도 만나
장군의 일을 힘껏 돕겠소

아, 수령님 그 축복속에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수령님 말기고 가신 조국과 인민을
 한몸에 안으신 우리 장군님
 그 숭고한 도덕의리의 정화속에
 영생하고계시는 우리 수령님
 그날처럼 오늘도 심장의 대화를 나누시리

-최고사령관이 왔구만
 기다리다 이렇게 마중을 나왔소
 선군으로 거둔 모든 승리를 축하하오
 난 장군이 세워준 이 집에서
 만나고싶은 사람들을 다 만나보니
 한평생 쌓인 피로와 시름이 다 풀렸소

푸른 바다위에 흰 날개 저으며
 스칠듯 달을듯
 유유히 초도기슭을 감도는
 갈매기 갈매기야
 너 어이 이 기슭을 떠날줄 모르느냐

어이하여 이맘때면
 아침해 떠오르는 이맘때면
 넓고넓은 아름다운 저 바다 뒤에 두고
 너와 나
 이 기슭을 못떠나는지...

그날도 이맘때였지
 하늘땅을 뒤덮은 검은 구름아래
 광란하는 바다
 길길이 솟구치는 파도
 바다의 용감한 새- 갈매기 너도
 바위섬 그 어디엔가 몸을 숨겼던
 사나운 폭풍우에 단 한분이 오르시었으니

그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그날, 너도 보았으리라
 무섭게 타래치며 날뛰는 파도를
 쾌속정을 타고 뚫고 나가시던

인민들과 함께 있게 해주어 정말 고맙소

-수령님!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한번 쳐든 백두산총대를
 손에서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 조국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십니다

정녕 오, 정녕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금수산기념궁전에서 만나실 때마다
 두분이 심장으로 나누는 대화속에
 조국의 력사가 계속되고
 위대한 선군시대가 흐른다!

초도의 갈매기

리명옥

강인담대한 우리의 장군

그이의 솜옷자락에 얼어붙었던
 그날의 차디찬 얼음쫂각들
 우리 어이 잊을수 있으랴
 그이의 젖은 신발에서 쏟아지던 얼음버캐
 너와 나의 가슴에
 세월이 간들 어이 녹을수 있으랴

아, 너 어디 말쑥 해보렴
 너는 바다의 새, 지금껏 바다에 살며
 그런 항해길 본적이 있었더냐
 우리 어버이
 그 위험천만한 항해길
 너와 나는
 어이하여 막아드리지 못했던 말이나

장군님 아니시면
 그 누가 대신할수 없는 길이어서
 우리
 피나는 심장의 모진 아픔을 느끼며
 목메여 목메여
 그이의 안녕만을 바라고 바라지 않았던가...

갈매기야 너 알아다오
 그 누구보다 네 사는 푸른 바다를 사랑하셨기에
 너의 그 평화로운 날음과
 우리의 맑은 노래를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인민은 행복의 단잠에 재우시고
 장군님은 폭풍의 밤을 깨치셨나니

아, 초도
 이 가슴에 걱정의 산악으로 솟아있는 초도
 조국이 무엇인가를 말하며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하며

이 심장 한복판에
 아아한 메부리로 높이 솟아있는 섬
 저길 보라
 이 강산에 밝아온 내 조국의 환희로운 아침-
 장군님 우리에게 안겨주신
 가없이 넓고 푸른 저 바다
 그우에 불끈 솟은 따사로운 해님!...
 아, 갈매기 갈매기야
 이 기슭을 못떠나 심장을 터치는
 너와 나는 초도의 가수!

11월의 판문점

리창식

11월
 오 잊지 못할 판문점의 11월
 엄혹한 겨울이 앞에 있었다
 우리 삶의 터전을 노린
 압살의 찬바람이
 판가리 전초선에 휘몰아칠 때
 정의의 기폭인양 야전복을 날리며
 장군은
 여기 나오셨나니
 력사의 한순간
 서슬푸른 위인의 시선에
 원쑤의 검은 총구들이 얼어붙었다

세기를 이어
 분렬의 아픔을 안은 대지가
 그이의 발밑에 몸부림치고
 준엄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는 인민의 모습이
 그이의 가슴에 서리서리 맺히고

전야에서
 일터에서
 최전방 고지에서
 사랑하는 내 나라 군민이
 원쑤와의 증오로 사무쳤던 그 낮과 밤들을
 판문점에 안고 오신

우리의 장군!
 -노예가 되겠는가
 자주적근위병이 되겠는가!
 폭탄처럼
 백두의 퇴성처럼
 가슴을 치는 령장의 선언에
 천만심장이 화답하노라
 판문점의 무심한 나무조차
 총검마냥 총검마냥 일어섰나니
 -영원히 존엄높은 승리자로 살리라!

병사들 무쇠주먹으로 심장을 두드리며 웨친
 그 대답이
 장군님의 선언에 메아리로 울렸다
 그 메아리를 안고
 선군의 폭풍이 휘몰아친
 조선의 력사가 흘렀다

11월
 오, 잊지 못할 11월
 하늘땅을 뒤흔든
 판문점의 메아리
 이 땅의 엄혹한 겨울을
 광-광 들부셨다!

철령의 봄빛

박현철

따스한 봄빛이
무르녹는 이 아침
철쭉꽃 반겨웃는 철령의 산마루
생각깊은 언덕우에 내 섰노라

솟아오른 태양은
달을듯이 가까와
해살은 온몸을 포근히 감싸안아도
내 마음엔 눈보라 그날의 눈보라

그 얼마나 모진
한겨울의 광풍이 휩쓸었던가
고립과 압살의 그 겨울은
꽃피는 봄날에도 이 땅을 흐리었고
열매익는 가을에도 이 강산을 덮었거니

물어보자, 철령아!
조국앞에 닥쳐온 그 시련을 헤치시며
그 몇번 장군님은 너를 넘으셨더냐
차창을 흐리는 그 비물을 닦으시며
지치는 야전차를 두어개로 미시며

엄혹한 그 겨울은
철령을 오르시는
그이의 야전차에 성으로 불리였다

그이의 어깨우에 흰눈되여 다 쌓였다

그래도 오르셔야만 했던
조국결사수호의 힘준한 령길이어
얼음덮인 이 땅을 야전복자락으로 감싸안으시고
적기가를 부르시며 이 길을 택하신 우리 장군님

혁명의 조향륜을 더 억세게 잡으시고
광란하는 겨울을 야전차바퀴로 짓뭇개시며
조선을 이끌고
그이 오르신
력사의 철령길 선군길이어!

오,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을 갈아번지며
락원의 봄씨앗을 뿌리신 **김정일**동지
거룩한 그 모습이
철령의 봄빛속에
이 가슴 가득히 안겨오나니

정녕,
온 누리를 밝히는 철령의 이 해살은
그이께서
심장으로 안아올려 이 강산에 뿌리신
선군해돋이 그 찬란한 빛발이여라!

지혜산의 메아리

박경심

말없는 숲
말없는 산마루
한없는 고요를 싣고 밝아오는
지혜산의 이 아침

허나 내 마음은 고요하지 않구나
최전연의 이 산정에서
잊지 못할 태양절의 그 아침
수령님 우러러 경의를 드리시던
장군님의 그 영상 금시 뵈옵는듯...

빨찌산 김대장의 그 숨결 그 자취를 안고서
반세기를 솟아온 지혜산
전승의 그 이야기 전하는 사적비앞에

점도록 서계시던 그이

시간도 그 순간만은
거슬러 거슬러 흐른듯
그이의 안광에 못견디게 어려오는 그 영상
화선천리 포화를 헤치시던
젊으신 수령님의 그 모습

아,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헤쳐가신
선군의 초행길
눈보라 사나운 그 천만리 굽이굽이에
한순간도 잊으신적 없는 수령님
태양절의 그 아침엔 더더욱 그리워
격정의 분화구를 터치시던 그이의 음성이어

-차렷!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경의를 드립시다
그날의 그이의 음성
찌렁찌렁 산발만을 흔들며 깨웠던가
추억의 심연에서 20세기가 깨어났더라
태양절의 햇빛으로 꽃피고 번영할
우리의 날과 달 천만년미래가
그 구령소리에 정령했더라

력사는 추억만이 아님을

수령님의 력사, 태양의 력사는
선군의 오늘이고 래일이며 무궁한 삶임을
인민의 천만심장에 깨우쳐주는
령장의 그 구령소리

오늘도 내 마음에 우뢰치는
뜨거운 그 부름
수령앞에
차렷만을 아는 전사의 자세를 배워주며
내 인생의 끝까지 울려갈
아, 지혜산의 메아리여!

오성산의 길

신문경

천만이 걸어가는 큰길도
시작은 한줄기 오솔길
굽이쳐 도도한 강물도
시원은 산골막 시내물

그러나 내 알수 없노라
이 나라 험한 산 험한 길중에
이토록 험한 산길 또 있을지
걸어못본 사람은 알수 없으리
걸어본 사람도 다는 모르리

걸음걸음 위험이 도사린 산악
굽이굽이 천길나락 골짜기
전방엔 적의 총구 수물처럼 무수한 여기에
그이 열어가신 오성산의 길이 있어라

이슬젖은 풀잎우에 차바퀴가 지쳐도
그이는 오르셨다 가야만 하셨기에
길이라 할수 없는 산중의 절벽가
한자욱 헛디디면 조국이 쓰러졌을
선군길은 이다지도 모진것인가
추억조차 가슴저린 결사전의 이 돌격로

그러안노라
너의 한줄흙
선군의 기발이 왜 그리도 붉었는지
피갈이 붉은 흙빛이 다 말해주는 곳

그러안고 소중히 가슴에 대이노라
밟을수 없는 흙
흔하다 무심할수 없는 이 흙이
눈부시게 펼쳐지는 큰길들이 되어
피줄처럼 이 나라에 박동쳐 흐르나니

이 땅에 백년, 천년이 흐르고
행복의 넓은 길이 하 많이 뻗어간다해도
거룩한 이 길과 이어지지 않은 길은
단 한치도 없는것이 내 사는 조국이거니

길이여 길이여
선군혁명의 성산
오성산의 피어린 길이여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 추억속에
가장 험난하고
준엄했던 길이여

들려주라 자자손손 후대들에게
들려주라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에
오성산 험한 길에 우리 장군님
총대와 나누신 수많은 마음속 이야기들을
그 길에서 단 한자욱도 헛디딜수 없는
우리 운명,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아, 대덕산아

김경기

내 한껏 머리젖히고 불러본다
대덕산아!-
그러자 내 부름에 화답하듯
백두산줄기를 타고내려온 백호가
따웅! 머리 버쩍 쳐들고
앞발을 내어뻗치고 서있는듯

휘익!-
광풍이 귀뿌리만 스쳐도
언뜻 골짜기에서 인 회오리바람이
산정에 쌓인 백설 휩쓸어가지고
와-적진으로 내닫는다
눈보라... 눈보라... 대덕산의 눈보라...

너의 눈덮인 벼랑 한치한치에서
철의 발톱을 버린 백호의 력력한 흔적을 본다
구름을 삼킬듯 휘말아올리는 눈기둥에서
장군님 야전복자락에 안고오신
백두산 눈보라를 본다

적진을 노려보는 전방감시소-
불이 흐르는 백호의 눈동자를 본다
총대열풍을 품은 백설의 숲-
일당백 맹호의 갈기를 본다
이 나라 철벽의 산악으로 우뚝솟은
또 하나의 백두산을 본다

숨결도 성미도
기상도 담력도 백두산 그대로인 대덕산
그 이름만 들어도 삼도왜적이 벌벌 떨던
김대장모습 그대로인 백두산
오늘의 빨찌산 김대장의 모습 그대로인
백두산을 본다

조국수호의 최전방을 지켜선 네 기상에 놀려
원썩들은 기가 죽고 혼이 나갔거니
내 눈엔 선히 보인다
벌벌 기는 부사산의 불여우들
덜덜 떠는 록키산의 날승냥이들이 ...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자란 호랑이들이
이 나라에 천이드뇨! 만이드뇨!
백두산호랑이들이 틀고앉아
철의 발톱을 시퍼렇게 갈며
원썩들을 노리거니

내 한껏 머리젖히고 또다시 불러본다
대덕산아!-
그러면 정일봉의 우뢰를 품은
대덕산의 호랑이들이
동쪽에서 따웅!-
서쪽에서 따웅!-
천만대적을 순간에 쓸어버릴 그날을
내 여기서 보노라

푸른 숲의 교향곡

오필천

그리워 뵈고싶던
장군님을 부대에 모신
병사들의 행복을 담아선가
앞뜰에서 뻐꾹
뒤뜰에서 뻐꾹
초소에서 울리는 뻐꾹새소리

한껏 심취되시여
웁기시던 걸음 멈추시고
정겹게 들어주시고
기쁨에 젖으시여
다시 들으시고

얼마나 좋은가고
나무를 많이 심고
숲을 무성하게 가꾸어놓으니
병영에서 뻐꾹새소리를 다 듣는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시는 장군님

아, 뻐꾹
1중대 숲속에서 뻐꾹
2중대 숲속에서 뻐꾹
뻐뻐꾹

못잇을 그날
조국의 푸른 숲을 가꾸어주시려
장군님 몸소 삽을 드시고
병사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신
사연많은 그날의 연주곡인가

내 가슴 파고드는
초소의 삐걱새소리는
아, 우리 장군님
선군혁명실록에
이채롭게 다듬으신
푸른 숲의 교향곡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왔다

김충기

선군으로 빛나는 오늘
걸어온 길 돌아다보니
리정표마냥 눈에 보여올듯싶구나
선군의 첫자욱이 새겨진
저기 백두산기슭이

그리고 어려와라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내고
다박술초소를 찾으시던 그 아침이
우리 장군님
그 얼마나 생각이 많았으랴

그 아침엔 다 만나보고싶으시였다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불사신마냥 일떠선 이 땅의 인민들을
섣땃이무대에서 수령님을 부르며
온밤 눈물속에 노래하던 아이들을

하지만 한자 또 한자
천만마디 심중의 말을 담아
끓어오르는 격정의 분출을 담아
전체 인민에게 보내는 서한을 쓰시고
병사들을 찾아가신 장군님

그 길이
어떤 운명의 선택인지
조국과 민족의 생사를 건
대용단인지
그때는 누구도 알수 없었거니

그렇게 시작하신 선군이였다
그 길이 철령넘어 최전선에 이어지고
오성산의 험한 칼벼랑

풍랑세찬 날바다
외진 섬초소에도 이어졌다

때로는 쪽잠으로 이어가시고
때로는 한모금 샘물로 이어가신 길
그 길에서 판문점의 환안개전설이며
눈물겨운 화장품이야기
수많은 일화들이 생겨나지 않았던가

그 길에서
결사옹위의 대부대가 자라나고
새로운 군인가정들이 태어나고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는 이 땅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펼쳐졌으니

우리 장군님 걸어오신
선군의 그 길따라 우리는 왔다
만일 그 길이 아니었다면
어찌됐을것인가
나의 운명 내 조국의 운명은

정녕 선군의 그 길우에
우리의 모든 생명이 놓여있었거니
총대로 주체의 붉은기를 휘날려온 그 길이
내가 오고
조국이 오고
우리 식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해온 길이였다

아, 위대한 백두령장의
불멸의 헌신으로 빛나는
이 길은 끝나지 않으리라
무궁한 세월의 한끝까지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어지리라



문상봉

토지정리현장을 떠나 머나먼 밤길을 쉬임없이 달리던 야전승용차는 전선중부의 한 산협에 들어서자 문득 발동소리를 멈추었다.

꿀짜기들이 아직 심연같은 어둠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있는 이른 새벽이었다.

《여기서 좀 머물렀다 가시오.》

길가녁에 먼저 나서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뒤따르던 차에서 내려서는 수행일군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

윤명길이 사방을 두릿거리다가 그이께로 다가서며 의아쩍은 어조로 말씀올린다.

《최고사령관동지, 이제 한고개만 넘으면 오늘 일정한 철봉산부대입니다.》

쌀쌀한 가을바람에 총참모부 작전일군인 그의 성큼한 목이 저도 모르게 움츠러졌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빙그레 웃으신다.

《허, 그러니 부대까지 내쳐 갔으면 좋겠단 말이겠소?》

휘뭉치게 들리기 시작하는 동녘하늘에 눈길을 주시였던 그이께서 두팔을 휘저으며 가벼운 몸운동을 하신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없이 부대에 들이닥치면 곤하게 잠든 병사들을 깨우고말텐데 어쩐다?... 한창때 새벽잠은 꿀보다 더 달다고들 하오. 더구나 그 부대가 오늘 <오중훈7련대> 청호관정검열을 받는다질 않습니까.》

《!...》

급기야 윤명길의 얼굴과 귀뿌리가 화끈 달아올랐다. 다박술초소로부터 그이의 선군장정길을 줄곧 수행하여온 일군이 병사들을 끔찍이 위하시는 그 다심한 심중을 아직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손전지로 안침진 곳을 찾아

보신후 몸소 삭정을 짓기 시작하신다. 그제서야 윤명길이네는 서두르며 나무밑주변을 더듬어 돌아갔다.

잠시후 모닥불이 어둠을 밀어내며 활활 타올랐다.

또아리모양으로 오붓이 둘러앉은 수행일군들을 한사람씩 정겹게 바라보시던 **김정일** 동지의 눈길이 윤명길의 편안치 않은 몸거동에 멈추어졌다. 평소의 유연하고 담차던 군사일군답지 않게 마음속의 안정을 잃은 모습이다.

《운동무는 초저녁부터 몹시 긴장해서 밤새 눈 한번 붙여보지 못한 기색인데 혹시 그 걱정때문이지 아닙니까?》

윤명길은 흠칫 고개를 들었다. 그이께서 면바로 지적하신바와 같이 어제 저녁부터 그는 적들의 돌발적인 움직임으로 하여 조성된 사태때문에 온밤 당겨놓은 활시위마냥 팽팽해진 신경을 풀지 못하고있었다.

《옛, 그렇습니다. 놈들이 노는 짓거리가 이번엔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모닥불가의 눈길들이 이 허우대가 큰 장령에게로 쏠리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자리를 고쳐앉으시며 혼연히 말을 받으신다.

《음, 그러니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속대사로구만... 어떻게? 동무들, 우리 운동무의 적정통보를 듣고 논의해보지 않겠습니까.》

격식없는 최고사령부의 야전작전회의가 시작된 것이다.

윤명길은 입에 주먹을 대고 헛기침을 한 다음 먼저 적들이 동해주변에서 벌려놓은 《97해상종합훈련》정황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며칠째 계속되는 이 전쟁연습은 구축함, 상륙지원함, 잠수함 등 각종 함선들로 무어진 《한미

련합군》주력과 함께 공군, 육군의 방대한 무력이 동원되었고 어제부터 결속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3개의 군종모두가 참가한 이 도발책동은 해상에서의 공방전과 기뢰해체, 목표해안에 대한 상륙돌격에 중심을 두고있는것으로 공화국북반부를 불의에 기습공격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세계가 다 아는바와 같이 인민군대는 지금 연거퍼 들이닥친 자연재해의 피해를 가셔내고 대규모토지정리에 진입하고있는 등 많은 부대가 사회주의건설장 곳곳으로 전개된 상태이다.

그런데 원수들은 이런 기회를 타서 북침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미쳐날뛰는것이다.

적들의 전쟁연습이 시작된 지난 23일 뉴욕에서 미일 외교 및 군사당국자들이 조선반도유사시를 비롯한 분쟁지역에서의 협조를 운운한 《미일방위협력지침》이라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한것만 보아도 그 검은 속심을 잘 알수 있다.

《...결국 놈들의 쑥덕공론과 도발책동은 우리를 겨냥한, 침략세력이 공동으로 고안해내고 실천단계에 들어선 전쟁씨나리오였습니다.》

운명길은 최근 군사분계선에서 미군의 정전협정위반현상이 더욱 우심해지고 침략무력의 전진배치가 끝난데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들면서 까밝힌 후 잠시 숨소리를 고루었다.

앞에서는 교활하게도 회담과 긴장완화를 표방하고 뒤로는 군사적대결을 추구하는 원수놈들의 행동에 일군들은 격분을 금치 못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삭정이 두세가치를 던져넣고 불이 확 당기는 모양새를 지켜보시다 이쪽으로 눈길을 드시었다.

《그러니 이제 한계를 넘어 전쟁의 불꽃이 튀어나기 시작했다는거겠소?》

그 말씀에 운명길은 자세를 바로했다.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놈들이 시대착오적인 전쟁광증에 사로잡혀 사태를 일촉즉발에로 끌어온것만큼 우리도 즉시 단호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말씀드렸다.

모닥불가에서는 열띤 토론들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사회주의건설장에 동원된 인민군부대들을 시급히 소환하여 진지를 차지하도록 하는 문제가 논의의 초점으로 되었다.

《전군에 폭풍경보라... 동무들, 지내 심각하게 생각하는것이 아닙니까?》

미친개가 덤벼든다고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몽둥이로 쳐갈기면 되니까... 그리고 군부대들의 소환문제는 서두르지 맙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일찌기 교시하신대로 우리는 만일 전쟁이 터진다고 해도 오늘날 열두시까지 건설을 멈출수 없습니다.

군대의 인원수와 무장장비에만 신경이 돌리지면 싸움을 옹계 조직진행할수 없게 됩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지휘성원모두가 병사대중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결론삼아 논의의 일단락지으시고 부관을 찾으셨다.

《밤새껏 차안에서 몸을 들추었으니 모두들 속이 출출할게요, 우리 간단히 요기들이나 합시다. 어서 췌기밥들을 가져오우.》

하늘에는 아침노을이 곱게 비껴가기 시작하였다.

어둠이 채 가셔지지 않은 골짜기로는 첫빛안개가 꿈틀거리며 밀려든다. 어느 나무아지에서 산새 한마리가 단풍든 잎새속에 몸을 가리우고 새날의 첫 노래를 지저귀고있었다.

×

칠봉산부대는 큰 경사의 날을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오중흥7련대》청호 판정을 받게 되었으니 부대 관하의 전체 구분대들에서는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운명길은 판정에서 사소한 부족점이 나타날새라 은근하게 원심을 썼다. 그렇지만 공연한 걱정이다. 모든 병사들이 사기충천하여 평소에 편마해온 일당백 전투력을 대 판정종목에서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금 한정수구분대의 훈련장에서 각이한 격술동작을 련결하며 몸을 비호처럼 날리고있는 병사들의 모습을 대견스러운 눈길로 지켜보고계시었다.

《괜찮아! 정말 멋있소.》

그이께서는 옆에서 가슴조이며 서있는 한정수에게 환히 웃어보이셨다.

젊은 구분대장은 얼굴을 어린애처럼 활짝 붉히며 행복에 겨워 어쩔줄 몰라했다.

김정일 동지의 시야에 한 병사의 훈련동작이 특별히 인상깊게 안겨들었다. 사소한 헛동작도 없다. 대단히 세련되고 안정된 타격숨씨와 방어자세였다.

몸이 솟구쳐지고 회전할 때마다 휘파람소리가 확확 울려오는듯싶었다.

《가만 운동무.》하고 장군님께서 뒤에 서있는 운명길을 찾으시었다.

《저 앞줄의 왼쪽에서 세번째 동무가 낮이 익지 않습니까?》

그이께서 눈여겨보시던 레의 그 병사였다.

《...》

운명길이 목을 길게 뽑고 눈정기를 모았으나 대답은 못드리었다.

《저 동무가 홍남철입니다. 2년전 최고사령관동

지께서 몸이 약하다구 걱정하시던…》

한정수가 그를 대신하여 말씀올렸다.

《옳아, 꿈속에서두 조개젓만 찾았던 해변가출신의 신입병사!》

김정일 동지께서는 두팔을 엇걸으시며 병사를 세삼스러운 눈길로 다시 바라보신다.

(저 동무가 홍남철이란 말인가?)

휘둥그레졌던 윤명길의 두눈이 껌벅거렸다. 그는 몸매가 다부지고 팔뚝과 어깨근육이 울퉁불퉁 뻗어져나온것이 멀리에서도 알리는 병사의 모습을 보고 또 보았다.

숨털이 보르르하고 목이 가늘어 남들보다 약해보이던 어제날의 신입병사, 하루에 백리길도 힘겨워 지휘관에게 끌려가던 그가 오늘은 펄펄나는 싸움군으로 자라났것이다.

《음- 이제는 룡이 되었구만!》

김정일 동지께서는 기쁨에 겨워 말씀하시였다.

불현듯 윤명길의 눈앞에 오성산을 시찰하시는 그이를 수행하던 두해전 이른 봄날이 떠오른다. 구질구질 비가 내리던 저물녘이였다.

…질적한 길가늑을 따라 두 군인이 걸어가고있었다.

군관과 어린 병사이다. 군관은 배낭을 두개씩이나 걸머졌는데 병사는 홀몸이였다. 아마 군관이 병사가 등에 지고있던 배낭을 벗기여낸 모양이다. 그랬는데도 어린 병사는 지쳐쓰러질듯 휘청거리며 군관에게 손을 맡긴채 끌려가고있었다.

보매 군사임무수행중인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어디로 가는 길인가?

시창밖의 모습에 가슴벽이 아프게 굽히신듯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의 몇보 앞에서 야전차를 멈추시였다.

그이의 곁에 앉았던 윤명길이 얼른 뛰어내려 두 군인에게로 다가갔다.

뜻밖에 승용차행렬이 멈춰서고 허우대 큰 장령이 나타나자 그들은 일순 당황해서 몸이 굳어졌다. 인차 자신을 수습한 군관이 거수경례를 하였다.

《소좌 한정수, 전사와 함께 부대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느 부대요?》

《칠봉산부대입니다.》

이때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울렸다.

《동무들, 어서 이 차를 타시오.》

순간 두 군인은 동시에 입을 항 벌렸다가 이발을 마주쳤다. 꿈결에도 그리운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웃음을 이쪽으로 내밀고 손짓하여 부르시는것이 아닌가!

《아!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급기야 두 군인의 어깨들이 세차게 오르내리기 시작하였다.

《자. 어서 타라는데 … 칠봉산까지는 아직도 수십리길이야.》

김정일 동지께서는 점점 굵어지는 비발을 격정스럽게 바라보며 거듭 재촉하였다.

그제서야 군관이 먼저 자세를 바로잡고 차에 다가서며 인사를 드리였다.

윤명길은 그들의 배낭(조개를 가득 채운)을 짐칸에 넣고 앞좌석에 올랐다.

야전차는 다시 비발을 헤가르며 달렸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량옆에 앉힌 두사람을 번갈아보시다가 전사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셨다.

《그래 이름이 뭐지?》

로상에서 그리운 장군님을 만나뵈것이 정말 꿈속이 아닌가싶어 손등을 살그머니 꼬집던 전사는 방망이질하는 가슴을 펴고 대답올렸다.

《전사 홍남철, 작년 8월에 입대하였습니다》

귀바퀴와 입술언저리에 숨털이 보시시하고 목이 가늘어 남들보다 약해보이지만 목소리는 제법 어무졌다.

《음, 목소리가 마음에 들어, 홍남철이라… 고향은 어디요?》

《청산군 당우리입니다》

《그래? 해변가마을이구만.》

이렇게 어린 병사의 마음을 눅갸하신 후 장군님께서서는 한정수에게 눈길을 주시였다.

《보아하니 군사임무수행중이 아닌것 같은데 어디를 갔다오는 길이요?》

소좌는 잠시 쭈뼛쭈뼛하다가 나직이 말씀드렸다.

《이 동무의 고향마을에 갔었습니다.》

(?…)

윤명길은 저도 모르게 몸을 돌리며 두 군인을 번갈아보았다. 이제 군사복무의 문턱을 갓 넘어선것이나 다름없는 신입병사를 고향집에 데리고 가다니?…

《무슨 불상사가 생긴게 아닙니까?》

하고 장군님께서서는 불안해진 안색으로 물으시였다.

《아, 아닙니다. 사실은 저… 이 동무의 조개젓소증을 멈추어주려구…》

떠들거리는 한정수를 다시 돌아본 윤명길의 이마에 굵은 주름고랑이 패였다. 고기가 먹고싶어 소증이 났다는 옛이야기를 들어본적 있지만 조개젓이 너무 먹고싶어 소증을 일으켰다는 말은 처음듣는 소리다.

그건 그렇다치고 소증을 참아내도록 타일러주고 의지를 키워주어야 할 지휘관의 사고와 행동자체가 비정상이다. 쓸데없는 인정에 사로잡혀 오히려 병사들의 버릇만 굳혀놓는것이 아닌가.

《홍동문 해변가에 태를 묻고 자라서인지 어머니가 담근 조개젓외에 다른 식찬은 먹지 않았다

고 합니다. 그것도 이번 길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수는 어느새 어려움을 잊고 장군님께 사실을 숨김없이 말씀드렸다.

어느날 신병들의 생활을 료해하던 그는 한 전사가 이따금씩 잠결에 《어머니, 나 조개젓》하고 헛소리를 친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같이 입대한 동무들에게 물어보니 신병훈련때에도 조개젓이 먹고싶다고 버릇처럼 말하곤 했다는것이다.

그런데 복무하는 부대는 서해에서 멀리 떨어진 전선 중부에 있어 변질이 빠른 조개류까지 식찬감으로 날라울 생각은 누구도 못하였었다.

신병훈련때는 그래도 참아내었는데 기본부대에 배치받아서부터는 소증을 참아내기 어려워 꿈속에서나마 조개젓을 먹어본 모양이었다. 그 소증때문인지 본인은 날이 갈수록 몸이 축가고있었다.

사연을 알게 된 한정수는 정치지도원과 의논하고 길을 떠났던것이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저오기 깔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고맙소, ...지휘관동무!》

《? ...》

《나이는 몇살이요?》

《서른한살입니다.》

《아직 새파란데 속에는 어머니가 들어앉았구만!》

《?...》

《동무네 구분대의 일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 그냥 가겠는데 내 이제 품을 내어서라도 동무네 구분대를 꼭 찾겠소.

이 어려운 때 조국보위초소에 선 나의 병사들을 부탁드립니다.》

부대로 들어가는 갈림길에서 두 군인과 헤어지신 그이께서는 오래도록 뒤창문으로 어스름과 비발에 가리워진 곳을 내다보시였었다.

이름없는 한 신입병사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운명길의 가슴이 옥죄여진다.

병사들의 훈련은 강한 《우》라는 판정점수를 받았다.

《강한 <우>란 말이지? 팬잖아, 아주 멋있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벌써 두번째로 하시는 말씀였다.

《구분대장동무, 홍남철을 이리로 오라고 하시오. 한번 안아보고싶구만...》

그이의 사려깊은 말씀에 한정수는 뜨겁게 달아오른 눈굽을 뺨 문대이며 자리를 떴다.

×

부대의 《**김일성** 동지혁명사상연구실》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상의 사진앞에서 오래도록 발길을 떼지 못하신다.

전화의 나날 아버지 수령님께서 이곳 군인들과 함께 계시며 병사들의 생활을 친부모보다 더 다짐하게 보살펴주신 잊지 못할 화폭이었다.

그때 최고사령부에 계시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수령님을 따라 이곳의 갯도공사장에 몇번 다녀가시였었다. 이제는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나날에 있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계셨다.

갯막장까지 들어가시여 몸소 착암기를 잡으시였던 아버지수령님께서 한 전투원이 부주의로 인하여 손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자 몸시도 가슴 아파하셨다. 손수 병사의 손에 붕대를 감아주시고나서 그이께서는 전쟁도 사람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긴급조치들을 취해주시였던것이였다.

《우리 병사들 한사람한사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나의 살붙이란 말이요.》

갯벽을 드렁드렁 울리며 메아리치던 그날의 그 뜨거운 말씀...

이윽하여 밤을 나서신 **김정일** 동지께서 다시 한정수네 구분대를 찾으시였다.

교양실에서는 한 군관이 정치상학을 집행하고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교양실에 들어서시자 그는 들먹이는 가슴을 겨우 다잡고 군사규정대로 보고를 올리였다. 이어 우렁찬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아, 뻬소. 그만들 하시오.》

그이께서는 두팔을 가로 저으며 거듭 이르신다.

동안이 지나 환호소리가 잦아들고 병사들은 자리를 정돈했다.

《그래 무슨 내용의 학습을 합니까?》 하고 **김정일** 동지께서는 강사에게 다정히 물으신다.

《옛,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팽창야망과 그 파렴치성에 대한것입니다.》

《응, 문제성이 있는 강의요. 어디 우리도 함께 들어봅시다.》

그이께서는 수행일군들을 돌아보시며 창문쪽에 있는 앞줄결상에 허물없이 앉으시였다.

강사는 앞의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듯 눈을 껌뻑거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평범한 군사지휘관이 준비한 강의까지 들어주실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으리라.

강사의 목소리가 처음 몇대목은 떠들거리더니

인차 조리있게 이어졌다. 어조에서 박력이 느껴지고 내용전개를 통속적으로 하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강의를 주의깊게 들어주시었다. 이윽하여 문밖을 나서신 그이께서 땀을 흠치며 마당가로 따라서는 강사에게 웃으시며 말씀하신다.

《강의를 잘하는구만... 수준이 알려.》

그러시고는 누구에게라 없이 강조하시는것이였다.

《지금 일부 단위에서 정치학습을 하는것을 보면 동그라미 첫째, 풀이표, 점 하는 식으로 우에서 내려보내준 학습제강을 그대로 베껴주는데 강의를 그렇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강의는 학습제강을 자체실정과 결부하여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군인들의 수준과 준비정도에 맞게 하나하나 깨우쳐 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강의를 동무처럼 제 말로 구구하게 하여야 들을 맛도 있고 귀에도 쏙쏙 들어가게 됩니다》

질어가는 가을의 산풍경은 놀라우리만치 아름답다.

벌방에서는 아직도 수목들이 푸르싱싱한데 여기는 벌써 최폭의 살살이꽃들이 시들고 산봉우리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한창이다. 참나무와 소나무의 혼성림이 널려있는 산비탈과 운석을 다듬어세운듯 한 벼랑가에도 들국화가 한벌 깔렸다.

《저기 둔덕에 덩실하게 쌓아놓은것은 뭐요?》

김정일 동지께서 한정수에게 물으셨다.

《콩단들입니다.》

《글쎄, 날알더미 같다고 짐작했소. 그 어려운 속에서두 자체로 콩농사를 많이 했구만.》

《한 절반 벌써 털어서 부식물로 쓰고있습니다.》

《그래?!... 어떤것들을 만들어 먹나.》

한정수는 손으로 가지수를 꼽으며 말씀드렸다.

두부, 기름, 콩나물, 된장, 간장, 콩국 등등 그리고 두부와 기름을 짜고난 부산물로는 짐승들과 양어장의 먹이감을 만들어 쓰고있다는것까지 ...

《종소, 병사들의 식탁이 풍성하겠는걸. 콩은 영양가에 있어서 고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이 콩 75그램을 먹으면 고기 50그램을 먹는것과 같다고 볼수 있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비지국도 자주 해먹이는가고 물으시고는 콩을 갈아서 그대로 끓여먹는것보다 무우나 배추시래기를 섞어 끓이면 더 맛이 있고 여러가지 미량원소를 섭취하여 몸에 좋다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신다.

《가만... 된장은 어떤 방법으로 만드나?》

《속성방법으로 만듭니다.》

《속성이라?... 아니 그렇게 만들어먹으면 시큼털털하기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속성된장은 고유한 의미에서 조선장이라고 말

할수 없소. 된장이 제맛을 내게 하자면 발효기간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한정수의 손이 슬며시 뒤더수기에 올라갔다. 모든것이 부족한 이때 자체로 속성된장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면 그이께서 매우 기뻐하실줄 알았는데 오히려 책망조의 말씀을 받은것이다.

운명길을 비롯한 수행일군들의 충격은 더 컸다. 병사들이 먹는 된장에 이르기까지 깊이 관심하는 장군님의 친어버이사랑은 체험할수록 감명깊은것이어서 하많은 생각들을 불러 일으켰다.

어느덧 해는 정오를 가까이하고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매매 소리가 울리더니 염소들이 구름처럼 산등성을 넘어선다.

가없이 맑고푸른 하늘, 그 아래 펼쳐진 염소떼의 흐름... 마치 한폭의 풍경화를 방불케 했다.

《저것도 동무네가 기르는 염소들입니까?》

두팔을 엇걸으시고 취한듯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 한정수에게 묻는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몇마리요?》

《오늘 아침에 나온것까지 합치면 175마리입니다. 인차 200마리계선에 올라설수 있습니다.》

《종구만! 저것만으로도 구분대의 고기문제와 우유문제를 해결하고 남겠소.》

이때 부대정치위원이 한정수를 대신하여 말씀 올린다.

《이 동무들은 이미 여러차례 다른 구분대들에 종자염소를 보내주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무등 기쁘시여 짧은 구분대장의 잔등을 두드려주신다.

《살림살이를 잘 할뿐아니라 인심 또 후한 친구로구만, 팬찮아!

동무들. 거 노래에도 있지 않습니까. 양떼가 흘러서 흰구름 피나, 우리 마음 수놓아 꽃구름 피네, 하하...》

그이의 호방하신 웃음소리에 일군들의 가슴은 찢릿하니 젖어들었다. 고난과 시련속을 뚫고 헤쳐가는 선군길마다 병사들에 대한 생각이 오죽 많았으면 이곳 구분대가 해놓은 자그마한 일을 두고서도 그토록 기뻐하실가!

어느새 염소떼는 골짜기아래로 사라졌다. 매매 소리만 인상깊은 여운으로 울려오나.

운명길은 얼른 손목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교양실을 돌아보신 후 이곳 구분대에서 자체로 창안제작하여 실전배비한 전투기재를 보여드리리라 작정했었다.

모든 군관들과 병사대중의 고심참담한 탐구와 노력으로 완성된 그 기재는 구분대의 싸움준비를 경충 도약시킨 창조물이었다. 군사실무에 밝은 운명길이 지난 봄 이곳에 와서 그 가치를 확인하고 전 부대에 일반화시킨것이다. 그래서 장군님

게 다음 일정으로 기재를 보아주실것을 말씀드렸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의 마음을 이미 알고계신 듯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윤동무가 주관한것인데 어련하겠습니까. 부대의 전투력강화에서 큰 문제를 풀었다는 이야길 총정치국으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우선우선한 어조로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그렇지만 우리 오늘은 병사들의 생활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도와줄것이 없는가를 생각해보고 배우기도 합시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었다.

×

오늘따라 날씨는 유난히도 쾌청하였다. 해별은 자글자글 풀판을 말리우고 원근의 모든것은 가을날 이 계절이 아니면 볼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수정빛을 띠고 반짝거린다.

길랑옆에는 아카시아나무가 우거졌는데 바람이 그닥 불지 않는데도 동전잎같은 이파리가 최고사령관동지의 넓은 어깨우에 살랑살랑 떨어졌다.

《어디 동무네 세간살이를 좀 구경해 볼가?》

갱도식랭장고앞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한정수를 앞세우고 안으로 들어서신다.

서늘한 기운이 뒤따르는 윤명길이네 얼굴에 마주치었다

《이 갱도식랭장고는 우리 정치지도원동무가 발기하고 주동이 되어 건설한것입니다.》

한정수는 은근히 자기네의 정치일군자랑을 내비치었다. 지난 봄 부대의 발전소건설이 완공되자 일욕심을 부려 남먼저 전기선을 늘이고 공사전반을 주관했는데 불과 보름만에 와닥닥 해제졌다는것이다. 그때 창안된 전투기재도입차로 이곳에 와있던 윤명길은 병사들의 앞장에 서서 압박을 까고 기계부속도 자체로 해결하면서 팽이처럼 돌아치는 정치지도원의 일본새에 저도모르게 반했었다. 관하중대의 병사들도 그를 《우리 정치지도원동지》라고 부르며 무척 따른다고 한다.

장군님뒤로 두세걸음 동안을 두고 따르던 윤명길의 걸음이 무춤 멈추어졌다. 의례히 동행하여야 할 정치지도원이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가만... 정치지도원동무가 왜 여기에 없소?》하고 옆에서 걸던 한정수의 팔을 붙잡았다.

《이 사람이 제 자랑을 하는것 같아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는가?》

《저, 그렇게 아니라 식당주방간엘 좀...》

《응? 거긴 뭇하러...》

이때 극동실앞에 먼저 다달으신 장군님께서 그를 찾으시었다. 한정수는 급히 뛰어가 문을 열어

드렸다.

극동실에는 여러가지 고기류들이 눈이 부시도록 성예를 뒤집어쓰고 보관되어있었다. 돼지, 염소를 비롯한 집짐승들과 수산물, 민물고기도 여러종이나 된다.

손으로 짚어가며 고기의 선도들을 가늠하시던 장군님께서 허리를 펴며 환하게 웃으신다.

《괜찮아! 정말 멋있소.》

오늘 세번째로 하시는 꼭같은 말씀이었다.

《갱도식랭장고가 아주 합리적입니다. 갱도안에서는 열손실이 적고 여름철에 정전이 되는 경우에도 이곳은 온도치수가 낮기때문에 랭동품이 잘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이께서는 극동실을 나서며 다음 말씀을 이으신다.

《갱도식랭장고는 유사시에도 리용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갱도식을 군대뿐아니라 사회에도 널리 도입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한정수는 필적 놀라서 눈이 화등잔만 해졌다. 높아지는 숨소리가 윤명길에게도 들려온다. 자체로 살림살이를 꾸리자고 해놓은 일이 군대는 물론 온 나라에 널리 소개되리라고 그가 꿈엔들 상상이나 했을가?

다음칸들은 부식물을 품종별로 신선하게 보관해 두는 창고였다. 각종 남새류와 과일들, 바다나물과 나물들... 김치도 여러가지이다. 배추통김치, 무우깍두기, 콩나물김치...

《부엉이고간이란 말이 왜 생겨났는지 아오?》

김정일 동지께서 또 다음칸에 들어서며 한정수에게 하신 말씀이다.

《...》

《부엉이가 아주 부지런한 새인것 같소. 삼라만상이 잠든 밤에도 먹이감을 구하러 철새없이 다닌다고 하오 동지엔 먹을것이 그득한데도 말입니다. 아마 그놈의 버릇이겠지...》

그래서 옛사람들이 먹을것을 여러가지로 많이 저축해둔 창고를 두고 부엉이고간이라는 성구를 만들어냈다질 않소.》

윤명길은 가슴이 뭉클 젖어들고 코허리부위가 시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병사들의 생활개선을 위해 아글타글 애써온 구분대지휘관들의 남모르는 수고와 고충을 속속들이 헤아리고 계셨다. 부엉이고간이라는 성구풀이도 그들의 고심참담한 걸음걸음을 무엇보다 높이 사주시는 의미로 하신것이 아닌가!

덕대우에는 색갈고운 사기단지들이 여러개 놓여있다. 한바께쓰들이는 실히 될것들이다.

한정수가 그중 하나를 내리우고 뚜껑을 제끼 다음 노끈으로 동여 밀봉한 비닐포장을 벗기여냈다. 뒤이어 비릿하면서도 감미로운 냄새가 코를 찌른다.

《이게 조개젓이 아니요?》

김정일 동지께서는 허리를 굽히고 단지안을 들여다보신다. 알맞춤하니 작은 조개살들이 여러가지 조미료들에 개여발려 밝은 전등아래 먹음직스럽게 자태를 드러내었다.

《해변가출신 병사들이 무척 좋아하겠구만. ... 이젠 홍남철이가 조개젓소증을 만날 념려는 없겠소.》

흡족한 기색으로 몸을 일으킨 그이께서 젊은 구분대장에게 묻는 눈길을 보내신다.

《가공된것을 보면 젓갈품을 전문 손질하는 사람의 숨씨인데 어디서 이런 귀물들이 생겨나곤 하오?》

한정수의 몸이 가볍게 흠칠하였다. 눈가에 핑그르르 물기까지 돈다.

(?...)

무슨 영문인가싶어 운명길은 미간을 좁히었다.

《이 조개젓은 홍남철이네 고향사람들이 단지바닥이 날세라 보내주고있습니다.》

사연을 말씀드리는 한정수의 나직한 목소리가 현악기의 공명판처럼 굴간안을 크게 울린다.

이름없는 한 전사의 조개젓소증때문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몹시 가슴아파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그날 어촌마을에서는 부모들은 물론 집집마다 모두가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튿날부터는 수산협동조합이 총동원되어 조개잡이에 떨쳐나섰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때여서 하루동안에 몇마대를 채우는것도 험치 않았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배를 타고나가 물속을 자택질하면서까지 일정한 량을 확보하였다. 한편으로 알속을 발가내고 절임을 하는 등 초벌가공이 뒤따랐다.

그런데 운반문제가 걸리었다. 마을에서 부대까지는 수백리길이 넘는다. 조합의 화물자동차들은 휘발유가 없어 발목을 묶인 상태이다. 누구한테도 방조반을 형편은 못되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자식을 군대에로 보낸 부모들이 속수무책으로 우물거릴수는 없었다.

사람들은 의논끝에 등애다 조개배낭을 메고 행군을 시작했다. 길량식을 변변히 준비하지 못한 그들이 고생인들 오죽 하였으랴.

그렇게 찾아온 어촌마을사람들을 보며 군인들이 뜨겁게 젖어오른 눈을 습벅이자 나이지숙한 수산협동조합의 관리위원장이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동무들을 믿구 선군의 길을 힘겹게 헤쳐가고계시오. 군대와 인민이 힘을 합쳐서 고난을 이겨내구 누구보다 고생이 많으신 우리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모십니다.》

바로 그날은 구분대의 전체 군관, 병사들이 몇배로 힘과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로 되었다....

한정수는 울먹울먹 제대로 이야기마무리를 못

한채 손등으로 눈굽을 문디여낸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동안 그런듯이 서계시었다.

이윽하여 그이의 몹시 갈리신 음성이 수행일군들의 가슴벽을 두드린다.

《그때는 참말 힘겨웠었소. 우리 인민모두가 자주적인 삶을 빛내느냐 아니면 노예살이를 강요당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이었으니까...》

아버이수령님을 너무나도 뜻밖에 잃고 엄청난 자연재해까지 연해연방 겹치여 역경속에 처했던 우리 혁명이였다.

원썬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수만리 먼길을 빈배로 돌아와야 했던 무역선의 울분에 찬 배고동소리, 숨죽은 공장들과 재해를 입은 조국의 옥토, 달리다 밟은 전기기관차와 난알을 찾아보기 힘든 집집의 죽가마들...

때를 만난듯이 미제와 그 추종세력은 기고만장하여 《북조선 조기붕괴설》을 떠들면서 《3, 3, 3》이라는 류언비어까지 내돌리고있었다. 빠르면 3일이나 3개월, 늦어도 3년이면 우리 공화국이 붕괴될것이라는것이였다.

세계가 깊은 우려속에 동방의 사회주의나라를 지켜보았다. 조선이 과연 어떻게 역경속을 헤어나오겠는가?

운명길은 그 엄혹하고 처절했던 나날이 심경에 되마치자 저도모르게 가쁜 숨소리를 툭아올렸다.

만약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분명히 추켜드신 선군정치의 보검이 아니였더라면...

불현듯 그의 눈앞에 눈보라속의 사격장이 우렁이 떠오른다. 피눈물속에 한해를 마감짓던 설달그믐날이였다.

기관총을 억세게 틀어잡으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흥물스러운 과녁에 몰사격을 퍼붓고계셨다. 지구가 금시 박살나는듯 한 전대미문의 총성이였다. 순식간에 탄창이 또 바뀌어졌다.

총대의 무진장한 위력이 파시되고있던 그 시각 천출명장의 눈길에는 번개가 번쩍이었고 딥고서인 땅에서는 세찬 지진이 일고있었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도 말라, 나는 군인들과 함께 총대로 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할것이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다 맡아안으신 그이의 심중을 대변하는가 총구에서는 무자비한 불벼락이 쏟아져나왔다.

기관총을 더 버쩍 틀어잡으신 장군님의 모습에는 근엄하다거나 비장하다는 일반적인 말로써 다 표현할 길이 없는 신령스러운 기상이 서리서리 어리여있었다. 거대한 태양이 파도사나운 바다를 통채로 품어안았을 때나 천만산악이 층층 눈구름을 헤치고 하늘높이 솟구칠 때와 같은 그러한

감각이라 해야겠는지!...

잊지 못할 사격장에서 그 격정의 순간순간은
웅근 한생도 새겨줄수 없을 크나큰 자신심과 배
짱을 운명길의 심장에 새겨주었다.

×

《이거 큰 잔치를 차리는것 같은게 불만 하오.》
점심식사준비가 한창인 주방칸을 둘러보시던
김정일 동지께서 웃으시며 정치지도원에게 말씀을
건네이신다.

《동무가 오늘 병사들의 식사보장을 책임졌다면
서?... 수고합니다.》

그이의 사려깊은 눈길이 정치지도원의 손에 쥐
여있는 작은 수첩에 가닿았다.

《비밀이 아니라면 나도 그것을 좀 봅시다.》

장군님께서서는 흥미가 동하신듯 보풀이 인 수첩
갈피를 번지며 읽어가신다.

《...석인호, 두부를 섞어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
개를 여느 식찬보다 더 좋아한다. 원경남, 매끼
국수만 먹었으면 한다. 상은철, 이런... 회성이군.
두발가진 짐승고기를 먹으면 사타구니에 두드러
기가 돈다. 하하...》

그이의 웃음소리가 주방칸을 들었다놓는다. 수
행일군들도 따라웃었다. 천정으로 턱을 제끼고
웃는 사람, 허리를 구부리고 웃는 사람, 운명길이
처럼 점잖게 소리없이 웃는 사람... 정치지도원만
이 얼굴을 홍시처럼 붉히고 앞치마자락을 꾸겼다
폄다하며 점직해 어쩔줄을 모른다.

《언제인가 내가 이 구분대장에게도 말했었는데
어쩌면 동무네 두 지휘관이 쌍둥이처럼 속안에
어머니가 들어앉았소?!》

장군님께서 한정수와 정치지도원에게 애정을
담아 하시는 말씀이다.

《저희들이 친부모구실을 하려면 아직 멀었습니
다.》

정치지도원은 구분대장과 눈길을 맞추었다.

《음, 자만하지 않겠다는건데... 그건 좋습니다.
어디 동무의 요리솜씨 좀 보지요.》하고 그이께서
는 방금 가마에서 튀겨낸 짜배기를 하나 집어드
셨다.

《팬참아, 합격이요. 짜배기는 이렇게 노르끄름
하게 되여야 보기에다 먹음직스럽고 제맛이 납니
다.》

뜬김이 자오록하니 서린속에서 여러가지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른다. 주방간의 이런 공기가 장군님
께 좋지 않을것 같아 운명길은 은근히 속을 바재
이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자리뜰념을 안하신다.

《종구만, 모든 음식물들에 수준과 정성이 느껴
지오. 청류관의 요리사들이 왔다가 올고가겠소.》

자식의 자그마한 소행도 크게 칭찬해주고싶어

하는 어버이심정 그대로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조리대에 소담스럽게 무쳐있는 느
타리버섯을 한송이 집어들며 정치지도원에게 물
으신다.

《이것도 동무네들이 온실에서 자래왔겠소?》

《옛, 그렇습니다.》

《요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먹습니까?》

《따가운 물에 데쳐낸 다음 기름을 두고 볶아먹
거나 무침을 해서...》

《그저 맹물에 데쳐내군 하오?》

《그렇습니다.》

《저런 그렇게 하면 제맛을 못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가마안을 들여다보시고 몸소 팔
소매를 걷어올리신다.

《마침 물이 끓습니다, 소금이 어디에 있소?》

정치지도원이 재빨리 구석쪽에 있는 비닐통에
서 소금을 한식기정도 퍼내왔다.

《흠... 자연에서 얻어낸 그대로구만.》

소금식기를 받아드신 그이의 안광속에 일순 그
늘이 스쳐지나갔다.

《?...》

정치지도원은 눈이 덩굴해서 가마안의 끓는 물
과 줍안에 드신 소금을 가늠해보시는 장군님을
우려했다.

《버섯은 살살 끓는 물에 5프로정도의 소금을
넣어 데쳐내야 제맛이 납니다.》

(!...)

《국수꾸미에는 썰고기가 제격인것처럼 깨끗한
소금이면 더 맛을 돋구겠는데...》

그이께서는 손수 데쳐놓으신 버섯들에 아쉬운
눈길을 멈춰세우고 손을 터시였다.

《운동무, 우리 일군들이 병사들에게 깨끗한 소
금을 해결해줄순 없겠소?》

물음보다 호소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말씀에
운명길은 흠칫 고개를 쳐들었다. 식기안의 끓은
모래알같은 소금을 자책어린 눈길로 바라보던
그였다. 《고난의 행군》시기라고 하지만 우리 지
휘성원들이 생각을 깊이하고 관심했다라면 이미
전에 해결하고도 남았을것이 아닌가. 이것은 병
사대중에 대한 태도와 관점문제였다.

그는 마음을 다잡으며 성큼 앞으로 나섰다.

《제가 책임지고 총참모부에서 빠른 시일에 정
제소금공장을 건설하도록 작전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발길을 옮기신
다.

《역시 운동문 씨원씨원해서 좋습니다. 총참모
부에서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 정
제소금을 빨리 생산하여 전군에 공급해줍시다.》

한정수와 정치지도원은 불깃해진 눈들을 습벽
이며 그이를 경건한 걸음으로 따랐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식당안으로 들어서던 걸음을

멈추시고 벽에 걸려있는 도표판을 보고 또 보신다. 웃머리에 《병사들을 위한 날》이라고 써여있는 도표판에는 날짜에 따라 지휘부의 군관과 그 안해들의 이름이 직급순위로 올라있었다.

수행일군들도 처음 보게 되는 이 도표는 구분대지휘관들의 병사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것이였다.

《이 도표를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저으기 흥분하신 장군님께서 구분대의 두 지휘관에게 물으셨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홍남철전사를 두고 걱정하신 다음날 군관회의에서 토론하구 며칠후부터 시작하였습시다.》

한정수가 먼저 나서며 처음에는 몹시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그랬을테지...》

그이께서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신다. 한두명도 아닌 술한 병사들의 식생활개선을 위해 몇사람의 군관들로서 《병사들을 위한 날》을 운영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때여서 더욱 그랬다. 하지만 병사들에 대한 생각으로 잠 못이루시는 장군님의 기대를 되새기면 순간도 지체할수 없어 부르튼 발을 덧싸매고 밤길을 걸었고 고열속에 혈떡이면서도 공지를 뿌지였었다. 도표를 이윽도록 들여다보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심중속에 그 모든것이 감동의 파문으로 진하게 그려진듯싶었다.

《<병사들을 위한 날>이라...》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용히 뇌이시였다. 그러시고는 수행일군들을 돌아보시며 격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보시오. 동무들. 이곳 지휘관들은 이미전부터 안해와 함께 하루씩 병사들의 식생활을 말아 돌아보아주는것을 생활화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병사들은 날마다 고향집어머니의 살뜰한 정을 느끼며 식탁으로 다가왔았고 군관들을 친혈육이상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기풍은 구분대의 면모를 일신시켰을뿐만아니라 전투력을 높은 경지로 끌어올렸다.

그이께서는 두 지휘관을 량옆에 끼안으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고맙소, 군관동무들! 이 어려운 때에 병사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바치고있는 지휘관들을 보게되니 정말 기쁩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큰 힘을 얻었소. 최고사령부와 전체 인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한정수와 정치지도원은 장군님의 가슴을 파고들며 어깨를 떨었다.

윤명길은 불시에 울대빠가 아프게 오르내리고 눈곱이 축축하게 젖어드는것도 모르고 장군님의 자애론 모습을 우러렸다.

(아, 사랑의 화신!)

문득 그이께서 오늘 새벽에 하신 말씀의 뜻이 가슴벽을 쿵쿵 울리며 뇌리속에 되새겨진다.

《군대의 인원수와 무장장비에만 신경이 돌려지면 싸움을 옹계 조직진행할수 없게 됩니다.》

모든것이 명백해진다. 혁명군대의 전투력은 병사의 머리수나 무장장비의 우수성에 있는것이 결코 아니였다. 우리의 싸움준비는 사상의지와 정과 피로 얹혀진 관병일치, 상하일치에 기초하고 있기때문에 장군님께서서는 하나의 작은 도표를 통해서도 구분대의 전투력완성여부를 대뜸 가늠하신것이 아닌가!

병사들을 위한 날, 이것을 어찌 이곳의 한 구분대지휘관들이 처음 내놓은것으로 볼수 있으랴.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전선길을 이어가시는 정력적인 선군령도의 그 헤아릴수 없는 나날에 심고가꾼 숭고한 사랑의 날, 병사들을 위한 날이기에 그이를 닮은 우리 지휘관들의 하루하루도 병사들을 위한 사랑으로 꽃피어나고있는것이다.

《동무들!》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넓은 식당안을 찌렁찌렁 울린다.

《우리 이곳에서 전군의 지휘관들을 위한 방식상학을 조직합시다.》

수행일군들을 둘러보시는 그이의 눈빛에서 예지의 섬광들이 번쩍이였다.

《우리 식 전투력완성을 위한 관병철학을 이 동무들의 경험에서 배우도록 하고 전군에 일반화시키잔 말입니다.》

수행일군들은 동시에 발뒤축을 모으며 힘차게 대답울린다.

《알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위대한 구상으로 전군에 관병일치의 화원이 마련되고있었다. 이 원자탄보다 더 위력한 일심단결의 대화원에는 어떤 대적들도 감히 범접할 념을 내지 못할것이다.

드디어 점심시간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량랑하게 울렸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관정에서 높은 성적을 쟁취한 홍남철이네를 축하해주려 서둘러 밖을 나서시였다.

태양은 하늘에서 여전히 온 누리에 따사론 빛을 아낌없이 쏟아붓고있었다.

전선으로 올라가라 나의 시여

류동호

새해 설날 이 저녁
간절한 그리움속에
이 가슴 적시는 생각
우리 장군님 지금도 전선에 계시겠지...

새벽노을 벗삼아 가신 길
별들의 바래움 받으면서라도
오늘만은 평양으로 돌아오셨으면
장군님의 야전차 눈에 익은 그 불빛이
마음속에라도 보였으면
허나, 전선길을 달리는 그 불빛

이 저녁엔 그리움의 시도 눈물에 젖어
간절한 소원을 안고 불타는데
눈길들어 바라보니 더 멀어만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전선길 전선길

백두산 그 품속에 조국을 안고
최전선에 작전도를 펼치신 장군님
수령님조국을 총대로 펼치시며
선군혁명 우위치는 그 장장만리
이날부터 시작된 길 따르며 깊어지는 생각

장군님 야전차에 뻗힌 고드름
끝없는 빨찌산길에 젖은 행전...
행복의 락원을 총대로 가꾸시며
장군님 헤쳐가신 전선길 천만리

뜨거운 우리의 새해여
이 심장에 덧쌓이는 그리움이여
오늘은 우리 말해보자
백두령장의 선군행군길에
세월의 진대하나 못치워 드린
굽이굽이 아찔한 령 그 눈길우에
모래 한줌 못뿌려드린 죄스러움

눈보라 전선길에
고드름뻗힌 장군님의 야전복
잠시라도 더웁히게 모닥불이 되지 못한

나의 시여
너는 백편이 있어 무엇하랴

명절날도 발이랑우에서
인민의 행복이 커가는 이런 날이
나에겐 제일 기쁜 명절이라 하시며
장군님 군감자로 끼니를 에우실 때
그 기슭에 울리지 못한
나의 노래여
너는 천편이 있어 무엇하랴

태양의 그 품속에 온 세상을 안으시고
선군정치의 찬란한 해빛으로
핵전쟁의 불구름을 막아주신 장군님
그이의 선군총대에 탄알로 채워지지 못하고
그이의 전선길우에 군가가 되지 못한다면
나의 시와 노래여
너는 선군혁명성전에 바칠것이 무엇이나

추억은 후날에, 시와 노래는 오늘에
아, 설날의 전선길에 이 그리움 부치노니
멀고 험한 장군님의 선군길 자욱자욱에
이 노래를 싣고 가다오 나의 시여
승리의 축포성 울리어다오 나의 노래여

그러면 그리움의 그 길로
전선길의 눈비에 젖은 야전복 툭툭 터시며
우리 장군님 기다리는 평양으로 돌아오시리
이 설날의 명절만은 단 하루라도
사랑하는 인민들과 함께 맞으시리

허나, 오늘도 최전선에 계시는
우리의 **김정일**장군!
그래서 전선에서 전선으로 내려쳐 가는
천만군민의 불타는 그리움이여
뜨거운 이 설날 그 마음 담아신고
전선으로 올라가라 나의 시여
전선으로 올라가라 나의 노래여

선군선언

김형준

그렇게 다정한 부름
우리 아직 몰라라
아기가 어머니 때없이 찾듯
기빠도 찾는 선군
어려워도 찾는 선군

그렇게 숨엄한 부름
우리 아직 몰라라
하여 시대도 혁명도 조국도 사상도
선군과 나란히 부른다
그것은 떨어져 못할 행운의 운명

그 행운 그 운명 지냈기에
시련이 막아서도 두렵없다
그것만 지니면
인생은 참된 삶을 누리고
무궁한 미래와 함께 사는것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 하더라
흐르는 물은 볼수 있어도
흐르는 세월 볼수 있다더나
허나 우리는 본다 선군세월 선군시대
그것은 누리는 행복 간직한 생활

꽃나비 따르는 아기의 발자국
강반의 저녁 청춘들의 속삭임
초소로 떠나는 병사들의 노래
안해가 기다리는 행복한 집
선군동이들을 키운 사랑의 콩우유...

...동지 위해 바치는 뜨거운 피
세쌍둥이 받아안은 은장도의 빛발
100룡생일상의 감사의 눈물
천만이 하나가 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만복...

그러한것 선군은
조국해방 안아온 백두의 총성
미제를 쳐부신 전승의 광장
《일당백》 고향 대덕산초소
수령님의 유산 사회주의 우리 조국

정녕 그러한것 선군은
운명의 하늘 야전복의 옷자락
운명의 빛발 야전차의 불빛
《선군아리랑》의 흥겨운 노래소리
장군님 빛내시는 불패의 우리 당

하여 선군이 무엇인가
그 누가 묻거든
우리 더 다른 말 다른 뜻을 모른다
그것은 나와 그대 우리 운명의 모든것인
김일성동지, **김정일**장군님!

수령님과 장군님 추켜드신
선군, 선군이 없었다면
우리 운명, 우리 조국 그리고 그 모든것
피바다에 잠긴 하나의 조약돌신세
폭풍앞의 등불운명

그리고 그 무엇 다르랴
뿌리 없는 나무와... 그리고...
물을 떠난 고기와... 그리고...
빛과 물과 공기없는 세계... 그리고...
생각조차 피로운 그 모든것과!...

그렇다
-선군만이 살길이다!
이것이 우리 장군님 10년전
다박술초소의 언덕에서 또다시 내리신
조선의 영원한 생명선언이거니

그 생명 지냈기에
이 나라의 이름없는 보통선군병사도
천만대적 발끝아래 굽어보는
선군이란 그 부름은
원썩들에 대한 죽음의 선언

지니면 자주적인간이 되고
버리면 죽었어도 노예가 되는
선군은 우리의 운명
선군은 우리의 수령님과 장군님
선군에 만세를!

국 방

오정로

해풍에
이 너병사의 얼굴 트는것이
장군님의 아픔이 되실줄
몰랐습니다

해안을 잘 지킨다고
그리도 만족하시여
환히 지으시던 그 웃음에
그늘을 지을줄 몰랐습니다

길길이 뛰며 달려드는
파도를 막는 저 방파제처럼
내 나라의 해안을 지켜선 궁지로 하여
해풍에 얼굴이 트는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알았는데
장군님께 큰 걱정이 되셨습니다

포진지를 두고도 아니고

부대전투력에 대해서도 아닌
화장품 하루빨리 보내주자신 말씀
장령들도 일군들도
하루이를 늦어지는것 ऐसा롭게 알았는데
어쩌면 그럴수 있느냐고
장군님 크게 노하실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병사의 얼굴이 트는것을
내 나라 국방의 틈으로 보신것 아닙니까
화장품 하루이를 늦어지는것
국방의 빈 공간으로 보신것 아닙니까

아 오직 한분
우리의 **김정일** 장군님
병사의 얼굴까지 지켜주시는 그 사랑이
원썩들이 이 땅의 풀대하나 다치지 못하는
금성철벽 내 나라의 국방입니다

아침의 들길

한광춘

새해의 첫 해살이 내리는
이 아침의 들길은 정다워
백리벌 지평선
안아보고 바라보며 걷는
내 고향 아침의 들길

끝없이 속삭이며 걷고싶어라
전변의 우렁찬 음향
다시 태어난 이 땅의 새 모습이
걸음걸음 안겨들며 생각을 부르는
넓어진 대지의 들길이어

너는 소중히 간직되어있었지
못잊을 그날 다박술초소의 언덕을 내리시는
그이 마음속에 네가 있어
우리 장군님 걷고걸으신 초소길과
들길이어 너는 하나로 이어져있었지

그래서 산촌의 이름없던 이 들길이
비내려도 오시고
눈이 와도 오시는

우리 장군님의
사연많은 전선길이였지

고난의 찬서리 헤쳐가신 자옥자옥
새 전설의 노래를 주신 길
그리움속에
꿈결에도 이른 새벽에도 창문을 열고
걸음보다 먼저 마음이 걷는 내 고향 들길

봄이 웃고있어라 이 들길에
아버이의 야전복자락아래 새움튼 그 봄이
가을이 설레고있어라 이 들길에
행복의 천만이랑 번지며
지평선 아득히 파도쳐오는 가을이

아 해살가득 눈부신 이 들길처럼
더 아름답고 복된 길 나에게 없어
이 땅을 살찌우며 또 한해 달려갈
이 아들의 첫 자옥을 네가 받아다오
정다운 아침의 들길이어!

김정일, 그이께서 진두에 서계시기에

알렉산드르 브레주네프(로씨야)

봄우뢰와도 같이
선군사상은 퇴성친다
꽃피는 평양은 위훈으로 부른다!

세계여, 소리높이 자랑하라
위대한 원수이시며 수령이신
김정일, 그이를!

그이는 천리혜안의 예지를 지니신분
그대를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좋아한다!

수령이시여, 나의 심장은
매일 매 시각
그대와 대화를 나눈다
오늘날 나의 로씨야는

그대의 로작들을 읽는다

김정일, 그이는
세상에서 제일로 용감하신분
김정일, 그이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신분!
세계진보적인류의 손에는
그대의 위대한 로작들이 쥐어져있다

더 높이 휘날려라 조선의 기발이여
더 높이 나뭇기라 선군의 기치여
인류여, 2월 16일을 노래하라!
강철의 원수 **김정일**, 그이께서
진두에 계시기에
원췌는 멸망하고 우리는 백승떨치리!

흰 눈

한창우

술푸른
다박술언덕우에
그날을 못잊어 이 마음속에 내리는
눈송이 흰 눈송이

일만경치 펼쳐진 곳에
선군장정의 년륜을 새기며
푸르른 아지마다 흰눈꽃 내리던
눈송이 희디흰 눈송이

장군님 야전복자락 스치던
그날의 푸르른 솔가지 더듬어안으니
피눈물도 고난도 이기고 맞받아나가는
장군님의 총대의 신념으로
영원히 부강번영할 조국의 기상 새겨지고

금수산언덕에 이어진
그날의 거룩한 맹세의 자욱우에
내리고 내리던 흰눈 마음속에 안아보니
변치 않을 백두의 신념
그 순결함이 가슴에 젖어오네

오, 다박술언덕의 설경
푸르름과 흰빛이여
내 조국의 선군8경
수없이 펼쳐지고 펼쳐지는
선군만경의 모습이여

총대와 함께
내 지켜가는 초소의 전호가는
수도와 멀리 있어도
그날의 그 흰눈우에 새기신 자욱
이어지고 이어진 그 한지점
다박술초소와 잇닿아있거니

오늘도 래일도
계절이 바뀌고 나무잎은 지고퍼도
다박술언덕의 그 푸르름
그 흰빛은
선군조국의 번영과 함께 펼쳐질 일만절경우에
지지 않고 변치 않을 빛이 되어
선군의 일경으로 영원하리라

위대한 선군정치를 붓대로 의세게 만들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군정치는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무장시키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 정치이다.**》

올해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불멸의 자욱을 새겨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고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다박술초소를 찾으신 때로부터 10년 되는 뜻깊은 해이며 조선로동당창건 60돐과 조국해방 60돐을 맞는 경사스런 해이다.

새해를 맞으며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따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련전련승하여온 지난날을 높은 긍지속에 추억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더높은 창작성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편집부는 우리 작가들의 불타는 창작적열의를 반영한 지상좌담회를 진행하였다.

편집부

선군래양의 빛발을 따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힘찬 투쟁으로 들끓던 한해가 지나고 새로운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는 새해가 왔다.

해마다 맞는 새해 첫 아침이지만 이해의 첫 아침은 류다른 흥분과 환희를 불러준다.

한것은 올해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해 첫 아침 다박술초소의 군인들을 찾으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신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조선로동당창건 60돐과 조국해방 60돐을 맞는 경사로운 해이기때문이다.

뜻깊은 다박술초소의 그 아침으로부터 10년, 장구한 인류력사에서 10년세월은 순간에 지나지 않으며 한 민족사의 흐름에 비추어 보아도 순간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이 10년세월은 얼마나 많은 긍지와 자부름, 걱정과 환희를 불러주는가.

지금 나의 눈앞에는 흘러간 년대들의 긍지이고 자랑인 창조물들이 놓여있다.

백두산 3대장군들의 혁명업적을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와 총서 《불멸의 향도》편에 속하는 장편소설들과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소설로 옮긴 장편소설들,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을 원형으로 한 장편소설들...

수십여편에 달하는 이 모든 작품들은 하나같이 그 10년동안에 창작완성된 작품들이다.

수령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흠모심으로부터 창

작된 이 모든 작품들의 갈피와 글줄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 충성다하려는 작가적열정과 피타는 노력이 숨배여있으며 선군령장 **김정일** 장군님의 문필전사-작가들은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 하는 대답도 들어있다.

군 100여일동안 중태에 빠진 속에서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은 소설가, 실명선고를 받고도 기어코 작품을 완성한 작가, 젊은 작가로부터 고령의 작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선군시대의 인간들의 일본새, 조선사람의 기개를 파시했다.

실로 돌이켜보면 감회깊고 긍지도 큰 10년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앞에서 더욱 굳게 지켜지고 다듬어진 선군조선의 지성, 조선의 지조를 놓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싶다.

저 멀리 인류문학의 유년기로부터 시작된 아름답고 슬기롭고 위대한 인간형상창조의 꿈은 우리 시대, 우리 작가들에 의하여 그 완성과 개화를 보게 되었다.

지금 우리 창작단의 소설가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21세기 선군래양의 빛발치는 광휘를 따라 더높은 창작성과 비약으로 줄달음치는것이 우리 작가들의 본분이다.

앞으로 보여질 혁명소설의 풍만한 꽃밭속에는 주체의 사회주의건설리론을 정립하시고 사회주의의 운명을 지켜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장편소설, 한없는 사랑을 안으시고 지식인대군을 키워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

적을 형상한 장편소설,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정도업적을 형상한 여러편의 장편소설들이 들어있다. 또한 조국해방의 최후결전을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어 눈부신 활동을 벌리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형상한 장편소설도 들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 10년, 미제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맞아 사생결단의 의지로 승리하여온 우리 군대와 인민이 그러했듯이 우리 작가들 또한 앞으로도 필승의 신념과 열정을 안고 분발하고 또 분발할 것이다. 소나무는 눈속에서 푸르름을 자랑하고

강철은 짓눌림속에서 세기를 나타낸다고 우리가 틀어잡은 선군의 붓대는 투쟁속에서 빛을 내야 하는것이다.

더 훌륭히, 더 높이!

우리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은 시대의 요구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날로 높아가는 요구에 따라 더 많은 소설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선군조선의 작가된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것이다.

4. 15문학창작단 부단장 《김일성상》계관인 안동춘

선군의 서정으로 시대를 물들이자

나의 인생행로에서나 조국의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운명적인 10년이 소리치며 흘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 나아가자고 10년전 새해 첫아침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체 군대와 인민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은 그대로 빛이었고 열이었고 생명수였다.

이해는 류달리 추억이 깊어지는 해이다.

우리의 추억에는 진한 눈물이 있고 웃음도 있고 진통도 있으며 보통인간으로서는 상상할수조차 없는 시련과 그것을 이겨낸 승리자의 환희도 있다.

우리 장군님께서 가슴속아픔을 안으신채 그리도 조용히 그리도 무겁게 다박술초소의 눈덮인 길위에 찍으시던 그 발자국소리가 세계와 력사를

뒤흔든 장엄한 봄우뢰로 진감할줄이야 그날에 우리는 생각이나 했던가.

우리 시인들의 추억중의 가장 긍지롭고 아름다운 추억은 선군의 그 정월초하루부터 장군님의 거룩한 그 발자취를 따라 걷고 걸으며 선군혁명동지가 된 그 추억이다.

장군님께서 친히 종자를 주시고 쪽잠마저 아껴가시는 험한 전선길 야전차의 불빛아래서 손수가필도 하여주시며 선군시대의 명작으로 완성시켜주신 시가작품들은 헤아릴수 없다.

장군님께서 국가와도 같다고 높이 평가하여주신 수령영생의 가요 가사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90년대의 《적기가》라고 하신 《높이 들자 붉은기》, 선군시대의 명작이라고 하신 《우리 집은 군인가정》, 《2월은 봄입니다》

를 비롯한 수많은 가요가사들, 세계적인 걸작이라고 하신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조국이어 청년들을 자랑하라》를 비롯한 수많은 서사시, 장시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태어난것이다.

력사에 전무후무할 우리 장군님의 붓대사랑속에 선군시가문학의 첫 창조자의 긍지를 안고 그 붓대사랑의 최절정에 오른 우리 시인들에게 있어서 그 추억이 어찌 지나간 과거이랴.

그 추억은 우리 심장에 화약처럼 장약되어 쉬임없이 거세차게 타오르는 오늘의 불이며 영원한 래일의 불이다.

심장이여 불타라, 우리의 육체는 장군님의 백두산총대의 총탄이다.

뜻깊은 올해, 당창건 60돐, 조국해방 60돐을 선군혁명승리자들의 긍지로 장식할 이해.

우리 시인들은 서정이 풍만한 시가작품들을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해내야 한다.

용암처럼 뜨겁게 끓는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서정, 강성대국건설장의 화불이 될 서정,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고 날뛰는 원썩들의 가슴팍에 꽃히는 비수의 섬광으로 번뜩이는 서정 그리고 주체의 사회주의 우리 조국, 슬기롭고 존엄높은 김일성민족, 깊고 다감하고 아름다운 우리 생활에 대한 살뜰한 사랑의 서정...

서정을 떠나 시가는 존재할수 없고 서정을 떠나 시대의 기치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없다.

우리 시인들은 선군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에서 분출하는 서정으로 시대의 하늘땅을 물들이고 누리를 물들여야 한다.

새해 첫 아침, 우리 시인대오는 붓대를 총검처럼

럼 비껴들고 백두산빨찌산의 아들이신 선군혁명의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을 따라 크나큰 보폭을 내짚는다.

승리는 우리의것이다

미래도 우리의것이다

용진, 용진, 용감스럽게!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문학분과위원장
《김일성상》 계관인 백의선

총대문학의 기수로

새날의 약속, 새해의 축복을 안고 이 강산에 제야의 종소리가 울린다.

밝아오는 힘찬 앞날, 눈부시게 휘황한 미래의 세계에 첫 걸음을 내딛고보니 줄기차고 험난했던, 간고하고 아름답고 행복했던 나날들, 고난과 강행군, 강성부흥의 격동적인 나날이 가슴 짙하게 돌이켜진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따라 신심드높이 걸어온 길, 수령결사옹위의 붉은기를 들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헤쳐온 길, 그 길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당당히 승리하였고 강성대국건설에서 돌파구를 열지 않았는가.

지금 나의 눈앞에는 총대와 붓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속에 비약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선군혁명문학의 자라찬 성과들이 생생히 떠오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세심한 지도속에 총대문학의 돌파구는 시문학창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창작되고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우리는 잊지 않으리》**, **《조선의 장군》**, **《강성부흥아리랑》**, **《축복받은 나의 삶》** 등 시대를 격동시키는 혁명적가요의 열풍을 몰아왔으며 무게있는 조선인민군공훈국가합창단의 위력으로 세계를 뒤흔들어놓았다.

서사시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 **《백두의 총대 영원불멸하리》**, **《수령님은 영원히 백두산에 서계신다》** 등 20여편의 서사시들이 창작되었고 국보적인 작품들인 합창조곡들이 시대의 명작으로 완성되어 선군혁명총진군에 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을 고무하였다.

혁명소설창작에서도 우리 창작집단은 혁명적군인정신을 지닌 선군혁명위업의 기수, 돌격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였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총대》**, 장편소설 **《고요한 행성》**이 창작되었고 장편소설 **《기둥》**, 중편소설들인 **《첫 수호자들》**, **《여덟남**

매》, **《려단우회대》**, **《투구봉계선》**, **《마지막 좌지》**들이 발표되어 군인교양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수령형상단편소설집인 **《타격》**, **《더운 겨울》** 등이 창작완성되어 총대문학의 꽃밭을 풍부히 했고 단편소설집 첫번째 권이 묶어져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 작가들은 공민의 최고영예인 **《김일성상》** 계관인들로 자라났고 단편소설들인 **《타격》**, **《군관신분증》**, **《신천의 무계》**, **《이 나라 녀인들》**이 **《조선문학축전》** 상을 수여받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난해 년초 몸소 인민군대안의 소설창작정형을 료해하시고 인민군대에서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울수 있는 길영조, 김광철을 비롯한 영웅들이 많으므로 작가들이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소설을 써낼수 있다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창작한 혁명소설을 읽으시고 작품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지적해주시면서 총대문학창작의 지침으로 될 귀중한 과업들을 제시해주시었다.

올해 우리 총대작가들의 앞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종자와 주제, 소재를 찍어주신 장편소설창작의 영예로운 과업들이 제기되고있다.

우리 창작집단의 작가들은 새해의 첫 걸음을 힘있게 내디더 장편소설 **《영원한 주도기》**, **《총폭탄》**, **《대결》**을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하게 완성할것이며 장편소설 **《사랑》**, **《구월산》**, **《북두칠성》**의 초고를 끝낼것이다.

뿐만아니라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전선의 아침》**을 세상에 내놓을것이며 문학사적의의가 있는 단편소설집을 출판에 넘길것이다.

시가문학창작에서도 인민군군인들이 즐겨부를 혁명군가들과 함께 생활적인 가사, 서정시, 시조들을 편이어 내놓을것이며 장막희곡, 무대소품들과 서사시 **《백두의 녀장군》**(가제), **《야전장군의**

미소》(가제), 《환호성》(가제) 등을 창작하여 선군혁명위업수행길에 나선 병사들과 인민들을 불러일으킬것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우리 인민 군대의 사상정신적기질이며 그 핵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 우리 군대안의 작가들은 올해에도 총대문학의 기수답게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적인 소설과 시, 극작품창작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

지께 기쁨을 드릴것이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을 심장에 새기고 우리 총대작가들은 위대한 선군정치를 총대와 붓대로 역세계 받들어나갈것이다.

조선인민군문예창작사 부장 《김일성상》

계관인 박 윤

선군소설문학의 풍성한 열매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박차고 선군장정의 길을 즐기치게 걸어온 우리 작가들,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해도 변할수도 없고 그 색조가 바뀔수도 없는 선군혁명의 붉은 기치는 우리 소설문학의 진두에도 휘날려왔다.

소설가들은 신들메를 조여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국을 수호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들끓는 현실로 달려나갔으며 그 투쟁을 고무하고 선도하는 우수한 소설작품들을 수 많이 창작하였다.

장군님의 선군장정에 종군하여온 지난 년대들, 이는 우리 소설문학의 력사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빛나는 년대였다.

그 자욱을 돌이켜 더듬어보노라니 생각보다 감회가 앞서고 말보다 격정이 앞선다.

우리 소설문학운동과 작가들의 운명에서 큰 전환이 일어나고 우리 소설문학이 주체문학의 절정인 선군소설문학으로 도약한 그 년대를 어떻게 이름할수 있겠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군대와 인민모두가 대를 이어 누려가는 수령복, 장군복을 최고의 경지에서 절감한 시대이며 수령결사옹위의 신념이 소설가들의 마음속에 억센 기둥으로 솟아오른 년대였다.

그렇다. 선군문학은 곧 수령결사옹위의 문학이다.

우리는 새 세기의 첫 3년동안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을 원형으로 한 장편소설들을 창작하는 나날에 모진 역경속에서도 수령께 끝까지 충성다하려는 혁명적각오가 어떤 무한대한 힘을 낳으며 력사에 전례없는 불굴의 인간,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의 인간들을 낳는가를 알게 되었다.

자주적인간의 전형이며 시대의 영웅들인 비전향장기수들과 호홉과 맥박을 같이하며 그들과 목소리를 합쳐 신념의 노래를 불러온 지난 3년간의 창작전투는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군사에서나

건설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학창작에서도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보여주었고 우리 소설문학대오는 정신도덕적으로 더욱 고상하고 능력있는 전투부대로 자라났다.

새해 주체94년은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길에서 우리 당창건 60돛, 조국해방 60돛을 맞이하게 되는 뜻깊고도 경사스러운 해이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소설가들의 심장은 높은 결의와 창작적흥분으로 높뛰고있다.

우리는 새해에도 우리 소설문학의 불변의 표대인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더높이 들고 나아가겠다.

우리들은 인민군대창작가들의 일본새를 따라배워 창작목표를 대담하게 세우고 창작전투를 혁명적으로 벌리어 나가겠다.

우리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들을 더욱 왕성하게 창작하며 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과 영웅적위훈을 노래하는 현실주체의 소설들을 더많이 창작하겠다.

세계사회주의위업이 엄중한 도전에 부닥쳤던 지난 세기 90년대, 백두의 혁명정신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장군님의 의지를 백두산절벽에 글발로 새겨넣는 거창한 투쟁과정에 백두산을 닮은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성장하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생활을 담은 장편소설 《백두산마루》,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속에서도 혁명의 최후승리를 락관하며 대자연을 정복하고 광명성체염소를 건설하는 청년들의 투쟁을 담은 장편소설 《젊은 시절》을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으로 완성하며 그밖에 계급교양주제, 조국통일주제, 력사물소설들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하게 창작하여 내놓음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선군소설문학의 풍성한 열매로 빛내이겠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덕철

명언해설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고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이며 담당자이다》

김정일

수령은 혁명의 최고령도자이며 당은 수령의 사상과 경도를 실현하는 혁명의 참모부이며 인민대중은 혁명을 직접 맡아 수행하는 동력이라는 뜻이다. 혁명의 주체에서 수령은 인민대중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최고뇌수이고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시키고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데서 중추적기능을 수행하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력량이고 직접적담당자이다. 인민대중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당의 현명한 경도를 받을 때에만 혁명의 주인, 혁명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다.

서정서사시

길가집 이야기

박상민

1

이해의 마지막은인듯
설을 며칠 앞둔 설달 어느날 밤
평양을 떠나 먼 천리
최전연길 달리는 야전차앞에
함박눈은 내리고 내려
순결의 세계를 펼쳐라

흰눈우에 또렷이 찍히는
야전차 바퀴자욱...
한없이 소중한 조국땅우에
선군혁명실록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병사들을 찾아가시는 길
언제나 힘을 얻는 길이어서
굽이굽이 험한 전선길에서
해와 달을 맞고 보내시는 장군님

차안에서의 쪽잠도 달고
야전식사 단맛에도 습관됐다시며
사색도 집무도 담화도
야전식으로 하시는 장군님

백두산의 아들
빨찌산의 아들이시기에
빨찌산식이 천품이신가
머나먼 전선길

병사들의 훈련장을
정든 집 트랙처럼 찾으시는 장군님

《고난의 행군》강행군을
승리적으로 돌파한 군민과 함께
붉은기 높이 날리시며
선군의 활주로를 달리신다

이밤도
리충진장령과 함께
병사들이 있는 곳
눈보라치는 철령넘어
최전연초소로 가신다

-부대장동무
동무를 《훈》내웠다는
그 로인의 집이
여기쯤이 아니요?

-장군님
저기 령밑입니다

전선가까운 령밑
소박한 길가집 주인
한참땀 보기좋았을 구레나룻
세월의 눈비에 색이 바랬던가
허연 턱수염은
로인의 성격을 더 한층 돋구는듯

불이 일던 청춘의 검은 눈동자엔
지금도 마음의 푸른 창문이 활짝 열려있는듯

어느 중대 꼬마였던가
충진의 팔소매 잡아끌며
귀간지럽히던 속삭임
-철령아래 길가집 아바이
사단장동지도 《주의》하십시오
그 아바이 집앞을 지날 땐
꼭 들려야 한답니다

꼬마의 간절한 부탁이었던가
로인이 던진 《그물》이었던가
장령의 얼굴에 웃음꽃 피워주던 귀속말
있었던가, 새겼던가
...그렇지 않다간 사단이 통채로 《경》친다던 말

스스로 《병사초대소장》이라고
푸짐히 먹어야 힘난다네
노래소절을 인사말처럼 부르며
병사들을 마중하는 로인
정 뜨거운 그 마음 피할수 없어
병사들이 익살담아 안겨준 별호
로인은 크나큰 표창처럼 받았거니

《범령감》!
웃음비긴 무서움과
피할수 없는 후더운 정을 쏟으며
철령 길목을 《지킨다》는 로인
병사들에게 무조건 내려먹이는 뜨거운 마음
-내 집앞을 그냥 지나면 안되네

그런 로인이기에
장령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제 하고싶은 말 다했던가
철령의 숲을 흔드는듯 한
-내 집앞을 그냥 지나면 안된다

로인의 간절한 《으름장》이
충진의 귀전에 쟁쟁한데
그 마음 헤아려 보신듯 들려오는 장군님말씀

-충진동무
그런 《혼》이야 얼마나 좋은거요

인민의 뜨거운 정이 담긴
그런 《혼》을 귀중히 여겨야 하오

병사들의 말처럼
조선의 전선길은
군민이 함께 걷는 운명의 길!
사수에게 예비탄창이 많을수록
마음든든한것처럼
인민이 사는 집들이 이 길가에
더 바투 다가서있을수록
우리의 전선길은 굳건한것이다

아, 마디마디
진리를 새겨주시는
장군님의 말씀이여
리충진장령의 가슴을
뜨겁게 뜨겁게 달구어준다

그 말씀 새겨지는 마음속에
아득히 뻗어가는 전선길
그 길가에 바투 다가서는
길가집, 길가집!

×

마누라와 아들, 머느리
몸둘바를 몰라하며
로인과 장령을 번갈아보는
길가집 깨끗한 트랙

살뜰한 정이 샘처럼 넘치던
길가집 트랙에 서리가 내렸는가
겨울이면 령길에 내린 눈
말끔히 쓸어내던 로인의 손이
허연 불수염까지 밀어낼듯
씩-씩 비비더니
마른기침 돌는 가슴 텅텅 두드린다

-뭐?! 《검정답사건》이라구요
허참-
부대장어른도 그렇게 생각하시우?
천만에!
전쟁때두 군대에게 주는 인민의 정엔
작고 큰 정이 따로 없었수다

너나 없는 우리에게
어찌하여 사건이란 《차단봉》 내리냐고
내 마음속엔 아직도
포연스민 군복이 입혀있고
아들, 며느리, 마누라의 군복 앞섶엔
병사시절 군공메달이 빛난다고
우린 결코 사민이 아니라고
장령에게 《반공격》하는 《범령감》

추연한 목소리는
처음과 달리 프락가득
추억의 안개를 실어오는가

...
조국해방전쟁때
갓 서른 애젊은 우리 련대장
인민의 재산 손바늘 하나라도 다치면
불호령 터치던 칼날같은 사람
놈들의 로략질에
숨마당된 마을앞에서
한 할머니가 품속에서 꺼내주는
닭은 보리 한줌
련대장은 만석인듯 무겁게 받았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 한줌 할머니에게 얼마나 귀한줄
련대장이 몰랐단 말인가
그러나 그 한줌에 담긴
피눈물에 젖은 복수의 부탁
련대장은 심장으로 들었다

그날 밤
복수의 화광은 적진에서 번쩍였다
할머니가 준 그 한줌보리가
수만발의 총탄이 되고 수류탄이 되어
원췌의 가슴팍에 날아갔었다

전승의 날 그 닭은 보리 한줌
탄피속에 보물처럼 간수하던
인민의 마음 읽을줄 알던 련대장은
수령님 손길아래서 백두의 뉘 심장에 새긴
항일투사 련대장이였거니

절절한 목소리에

추억을 담은 《범령감》앞에서
뿌잇하게 흐려오는 눈길을 돌려
철령을 바라보는 리충진장령

아버지의 유물인
보리 한줌 든 탄피
뜨겁게 쥐어보는 장령
《범령감》의 마음의 자석에
통채로 끌려들었는가
《범령감》의 두손을 꼭잡고
-고맙습니다 로병동지
아버지처럼 이 한마디뿐

전화의 날 아버지가 받았던 부탁
인민의 부탁으로
리충진장령에게 이어졌는가
길가집의 뜨거운 정이 가슴가득 안겨져
장령은 마음속에 넘치는 고마움
병사의 경례로 대답하고 떠났거니

그때로부터 달포나마
훈련, 훈련의 나날이 흘렀다
오늘은 최고사령관동지 모시고
리충진장령 철령을 넘는다

눈에 묻힌 길가집
차창에 다가서는 순간
장령의 눈앞은 환히 밝아오고
심장은 쿵쿵 함마질한다
-부대장동무
우리는 군대와 인민을
하나로 보는데 습관돼야 하오

하나!
그 하나속에
얼마나 큰것이 담겨져있는가
장군님 우러러 뜨거워지는 눈 습벽이며
길가집 바라보는 장령의 가슴에

하나의 모습으로 가득 차오르는
군민의 모습이어!

아, 장군님 따라
살아도 원군길에 살고

죽어도 원군길에 목숨 놓을 인민은
흔들수 없는 원군의 뿌리
내 나라 전선길에 깊이깊이 내리고
선군의 총대숲에 원군의 푸른 잎
저리도 아름답게 펼쳐는것인가

이런 인민, 이런 군대
그 누가 감히 어쩔수 있으랴
리충진장령의 가슴속에
심장이 커지는 소리
야전차동음소리와 함께
전선길에 메아리쳐갔어라

2

멈춰서는 야전차
가벼운 반충에
리충진장령은
장군님 시선따라 차창을 내다본다

창가 바투 전등을 매단 집
환한 불빛이 눈덮인 트랙을 비쳐
깊은 이 밤도 잠들지 않은듯
주인의 살뜰한 마음을 그리고있는가

구면처럼 안겨오는
《범령감》이란 로인의 모습
장군님께선 마음속가까이 세우시는가
아직도 화선병사의 체취가
포연내와 함께 물씬 풍겨오는듯
전쟁로병의 심장의 박동을
장군님께서는 조용히 들으시여라

우리의 위대한 선군!
이 선군의 익측과 종심에
인민의 뜨거운 마음이 아득히 펼쳐져
우리 조국은 얼마나 광대한가

끝없이 펼쳐진 인민의 마음의 하늘아래서
더 바빠 전선길 달리시는
경애하는 우리의 장군님
리충진장령이 들려주던
길가집 이야기를 다시금 더듬으신다

×

지난해 늦가을
계속되던 자연의 횡포는
계절의 법칙마저 잊지르고
모진 폭우를 쏟던 어느날

방목갔던 머느리
점점 굵어지는 비발을 헤치며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에구머니, 저 물
이 일을 어찌나...

작은 내물이
급작스런 산골물에
강처럼 범람했으니
염소들을 몰고 어떻게 건너랴
안타까이 발구르는 너인

강심먹고 듄쑥 염소를 안고
여울이라 짐작되는 곳으로 들어선 너인
기승부리는 강물에 도전하며
세번째 염소안고 건너온다

너인의 체온을 다 식히려는듯
찬비는 더 세게 내리는데
비칠거리던 너인
그만 염소를 놓쳐버렸다

-어마나, 갇장아-
염소를 덮치고 와-와 소리치며
싹히연 물거품을 토하며 달아나는
심술사나운 산골물, 산골물

-아주머니, 위험합니다
너인을 물밖으로 떠밀고
염소를 쫓아가는 병사
낮익은 기통수-초급병사

떠내려가던 갇장이라도 구원하고
나머지 염소까지 다 건넌였을 때
그의 입술은 퍼렇게 얼었고
턱은 딱딱 방아질을 하였다

중대로 가는 길 바깥전만

너인을 도와 염소를 물고
《범령감》집에까지 달려온 병사
비웃에 정히 싼 기통가방 들고 떠나려는 순간
《범령감》의 호령에 발목이 묶이웠다

《무서운》 할아버지에게 끌리워
한증탕처럼 불뎀 방에 들어선 병사
뜻밖의 닭곰상앞에 마주섰다
-저 이진? ...
병사의 중얼거림에 《범령감》은
-걱정말고 어서 뜯게
십분이면 될걸...

-할아버지...
이거 가지고 가면 안되니까?...
-뭐?!...

피곳 벽시계 쳐다본 《범령감》
마누라를 불러 단지에 쫘쫘 넣게 했고
시간바쁜 초급병사 바라왔다

비발속을 뚫고
중대 향해 달려가는 병사
말없이 바라보는 《범령감》
어찌 알았으랴
신열로 앓으면서도 훈련관정준비에 바쁜
분대장 생각하는 초급병사의 마음
그 뜨거운 동지에 어찌 다 읽을수 있었으랴

×

-훌륭한 인민
미더운 병사!
장군님께선 조용히 되이시여라
못잊을 로병이 곁에 있는듯
미더운 병사가 곁에 있는듯

창가 바투 전등불 켜놓고
병사들 때없이 들리라고
더운 정 퍼들고 기다리는 길가집
흘러넘치는 원군의 정을 다시 보시며
장군님께선 뜨겁게 느끼서라

원군의 마음 촘촘히 누버진
창밀에 무뎀한 솜장갑

닭털, 오리털 두고 지은 배띠
아래목엔 아마도 따끈히 덮혀진 염소젖병들
병사들 기다려 더움을 잃지 않고있으리라

하얀벽에 주욱-걸려있는
《결사옹위》, 《총폭탄》 힘찬 구호기폭들...
부대 자동차운전칸마다에서 불타던
그 붉은 구호기폭인듯
기쁘시었다 고마우시었다
만면에 환한 미소 담으시는 장군님

전시가요 선창은
틀림없는 《범령감》!
병사들과 함께 그리움의 노래부르며
병사들의 가슴속에
억척같은 혁명선배의 신념을 심어주는 그

젊은 병사들과 함께
선군의 큰 길로 행진해가는
로병-화선병사의 모습에서
온 세상에 떨치는 선군의 위력을
장군님께서서는 다시금 느끼서라

아, 행복한 길가집이여!
행복한 로병이여!
아는가
그리도 뵈고싶던 백두의 태양이
사랑의 빛을 뿌려주고있는 이 순간을...

헤여지기 아쉬운듯
야전차 차창에 따라서는
길가집 창가의 불빛이여!
사랑의 이 밤을 간직하라
그리움 넘치는 가슴속에
선군세월의 이 전설을 새겨넣으라

이 밤
폭풍과 번개를 안은
최고사령관의 야전차에 실렸다
이 나라 어디서나 볼수 있는 소박한 길가집이
그리고 함께 떠난다
오늘도 화선병사로 사는 로병-《범령감》

《범령감》결엔 그 초급병사도 있어라

야전차 발동소리는
전선하늘가에 메아리쳐가고
밤하늘 반짝이는 별들은
야전차 불빛따라
지을수 없는 은하수를 새기고있어라

3

희뵘히 밝아오는 새벽
눈가래들고 삿잡문 열던 《범령감》
오금을 꺾으며 두손 모두어쥔다

(이게 웬 차바퀴자리냐?)
금방 떠난듯 또렷한 차바퀴자욱
넋없고 들여다보는 《범령감》

령을 넘는 차들은
겨울밤 의례히 들러
꼭꼭 더운물 넣고
언 손발 녹이고 떠나는데...

지난 밤엔 왜 그리 조용했던가
《범령감》 황홀했던
지난 밤의 꿈길을 다시 걸어본다

×

백두산천지에서
칠색령룡한 무지개
철령으로 비쳐오더니
그 무지개 타고 금빛오룡마차
철쭉꽃 붉게 핀 철령으로 달려온다

철령고개길에 접어들던
오룡마차문이 열리더니
만면에 환한 미소 지으신
빨찌산의 아들이신 장군님께서
《범령감》을 손저어 부르신다
-아, 까칠봉 로병!
어서 오르시오

장군님의 손이
《범령감》의 손을 잡으시자
꿈속에서도 꿈을 꾸듯
가슴이 환하도록 훈장이 빛나고
장군님 호위병처럼

그 초급병사와 함께 장군님을 모시는것 아닌가

향기론 봄의 훈향
차창으로 흘러들고
초급병사와 《범령감》
장군님만 우러르는데

어느새 철령을 넘고
최전연고지에 오른 오룡마차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소리에 싸여
그 빛은 억만리로 뻗어가는것이 아닌가

자기를 잊고
장군님 우러러 터치는
《범령감》의 만세소리는
왜 그리도 작게만 울리던지...

최전연 적진을 굽어보시며
원쑤의 정수리에 번개를 뿜으신 장군님
어지러운 골짜기들과 평야들을
깨끗하고 푸른 강산이 되게 하시여라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게 하시여라

×

혹시?!...
흰눈우에 또렷한 차바퀴자욱
두손에 소중히 끌어안고
동터오는 새벽빛속에 철령을 바라보며
《범령감》천천히 일어서는데

군용차의 가벼운 동음소리는
《범령감》의 생각을 멈추어세우고
-아바이... 하고 찾는
기쁨넘친 부대장의 얼굴은
《범령감》의 가슴을 쿵쿵 울리게 하여라

-아바이, 지난 밤
희한한 꿈을 꾸지 았았습니까
리충진장령 《범령감》의 두손잡고
너무도 벅찬 가슴때문에
뒤말을 잇지 못해라

-꿈이라니?!...
밝은것이 반짝이는

장령의 두눈을 바라보며
《범령감》 다급히 물어라
-어서 말해주시우, 무슨 일인지...

아, 기뻐하라 로병이여!
그대가 잠들어있는 깊은 밤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원군길에 깨끗한 마음 바쳐가는
한없이 순결한 그대의 자옥을
하나하나 헤아려보시었어라

온 가족의 뜨거운 마음
한뼘두뼘 수놓은
그 붉은 구호기폭들에 새겨진
《총폭탄》, 《결사옹위》...
그 한글자 한글자가
로병의 변함없는 낮이고 신념임을
장군님 읽고 읽으신줄
로병이여, 그대는 아시는지...

흐읍- 흐느낌이
뜨거운 눈물 《범령감》 눈가에 맺혔는가
위대한 장군님 오신줄도 모르고
그 다시 없을 순간을 놓쳤으니
일흔나이 아직도 철이 없는 자기를
가슴치며 닦하는 《범령감》

아아, 선군세월
선군길가에 사는 영광이여!
그 영광 떨치며 창을 열라
우리 장군님 가시는 전선길을 향해
해빛에 번쩍이는 창을 열라

그러면 보이리라
선군혁명실록을 새겨가시는
장군님의 선군야전차가
야전차에 실린
선군길가집들을 보게 되리라

살뜰한 병사의 고향집되어
길가집은 병사들을 마중하리니
장군님 체온으로 더 따뜻이 덥혀진
길가집아래목에서
군민은 듣게 되리라

선군시대 사랑의 새 전설을...

《범령감》 뜨거운 삼키며
부대장의 두손 덥석 잡고
-알겠수다
내 대를 이어 이 길가집 지키는
초병이 되겠수다 전화의 그날처럼

그날 저녁
길가집뜨락에선
리충진장령과 병사들이
온 가족과 함께 밤길도록
그리움의 노래 부르고 또 불렀다

길가집뜨락에서
군민의 심장이 하나로 고동치는 소리
장군님 계신곳으로
메아리쳐가는가
노래는 끝없이 울리고
동터오는 새날의 해빛을 향해
뜨겁게 단 눈길들은
구슬같은것을 가득 담고있었다

아, 격랑 이는 파도처럼
이 가슴 세차게 두드리는
길가집 이야기!
병사들의 가슴엔
멸적의 탄알을 채워주고
천만 인민의 가슴엔
선군의 가슴뜨거운 전설을 심어주는
철령아래 길가집 이야기!

병사들을 위하는 가슴들에
애국의 봄꽃을 만발하게 피워주어라
태양을 우러르는 꽃처럼
병사의 고귀한 청춘 자서전이
인생의 제일 영예롭고 보람찬 시절로
아름답게 수놓아지리라

아아, 선군시대 삶의 절정에서
청춘시절을 빛내이는 병사들을 위해
언제나 열려있는 길가집문을 향해
찬란한 해빛이 흘러들고있어라!

선군령도의 백승의 진리와 총서 《불멸의 향도》

김성우

혁명의 진리는 위인에 의하여 창조된다.
반제반미대결전, 사회주의붉은기수호전에서 우리는 《일당백》의 개념이 엄연한 력사의 진리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실증하였다.

이 위대한 진리는 불세출의 선군령장 김정일 동지에 의하여 커다란 생활력이 발휘되고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를 펼치면 혁명의 진리가 위인에 의하여 어떻게 창조되는가를 절감하게 된다. 그것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예지와 신념, 숭고한 헌신과 담력의 분출이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형상하는 작품에는 심오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선군시대에 창조된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들은 그 어떤 력사적현실, 그 어떤 생활소재를 다루든지 한결같이 우리 당의 선군사상, 특히 총대철학의 진리성과 독창성,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강조하는데로 지향되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선군의 백승의 진리가 수령론에 의하여 담보되고 선군정치에 의하여 구현된다는것을 문학형상을 통하여 힘 있게 강조하고있는데서 나타난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마련하여오신 선군혁명령도의 불멸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고수하고 오늘의 력사적현실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는 과정에 창조된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이다. 그러므로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에서는 선군에 운명을 건 오늘의 혁명투쟁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력사의 그날에로 거슬러올라가 수령론의 창시에서 그 력사적연원을 두고있는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전환》(권정웅작)을 펼치면 1960년대 중엽의 력사적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어떻게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를 총화하고 수령론을 창시하시였으며 아버지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일당백》의 구호를 빛나게 수호하시였는가를 가슴뜨겁게 체험할수 있다.

소설에는 이 시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경애하는 장군님앞에 제기되었던 복잡한 문제들이 반영되어있다. 한쪽에서는 큰 나라에서 발생한 수정주의로선과 《개인미신》론에 동조하면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에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는것을 반대하고 또 한쪽에서는 봉건시대의 실학파학자가 쓴《목민심서》를 간부들과 당원들의 필독독서로 내려먹이고 또 경제관리부문에서는 물질적자극만을 노린 《리베르만》방식과 《가화책》제도를 받아들이며 하고 또 문학예술부문에서는 당의 혁명전통과 계급로선을 외곡한 문

학예술작품이 나오고… 특히 군사부문에서는 《일당백》의 구호와 자위로선을 시비하고… 이 모든 현상들의 밑바탕에 놓인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다른 나라 사회주의지도자들이 무엇을 놓치고있었는가. 우리 일군들의 머리에서 파열구는 어디서 생겼는가. 그 모든 폐단들을 단번에 휩쓸어버리고 주체의 붉은기를 더 높이 휘날리게 할 본질적이고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밝히자면 우주를 하나의 물방울에 집약하는 위인적인 지성과 노력이 요구되었다.

장편소설은 이 모든 력사적사건들을 일관하여 하나의 초점에 집약시키고 그 근본원인을 선행사상의 약점에서 찾으면서 단호히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총화를 결심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수천수만권의 책폐지와 함께 한세기동안 세계적판도에서 굽이쳐가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사를 더듬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도출해내신 결론은 무엇이었던가. 100년사상사총화의 마당에서 그이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신다.

《…이것을 집약화해놓으면 <로동계급의 수령은 개인이 아니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리익과 념원의 조직적대변자이며 체현자이다. 수령은 단결의 중심이며 유기체의 뇌수이다 …> 이렇게 되는것입니다.》

수령론! 그것은 실로 인류사상사에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발견이었다.

작품에서는 1960년대의 위대한 전환의 근본요인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비범한 예지와 탐구의 열정으로 이룩하신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총화와 수령론의 창시에서 찾고 그것을 종자로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힘있게 부각시키고 있다. 나아가서 작품은 그 수령론구현의 근본핵을 혁명군대를 수령의 군대로 만드는데서 찾고 대덕산초소를 찾으시여 주체적인 총대철학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형상을 높이 모시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일당백》구호를 아로새긴 바위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높이 추켜들고 끝까지 나가야 합니다. 혁명적군대가 없으면 당도 국가도 사회주의도 없습니다.》

혁명군대의 본질적표징과 위력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높이 추켜들고 나가는데 있으며 이런 혁명군대가 없으면 당도 국가도 사회주의도 없다는 위대한 총대철학은 이렇게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를 총화하여 수령론이 창시된 1960년대 중엽에 벌써 오늘의 선군정치를 내다보신 위인의 철학세계에서 탄생되었던것이다.

수령론과 총대철학의 발견을 작품의 기본대로 삼고 절세위인의 위대성을 밝힘으로써 장편소설 《전환》은 총서 《불멸의 향도》의 전반적인 주제

사상적지향을 확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전환》과 함께 장편소설 《총대》(박윤작)는 선군의 《일당백》진리가 오직 수령에 의하여 창조되고 수령의 령도밑에 현실로 구현된다는것을 감명깊은 예술적형상으로 확증하였다. 장편소설 《전환》이 수령론의 창시를 그리고있다면 장편소설 《총대》는 선군정치의 선포를 그리고있다. 수령론과 선군정치는 40년전 뜻깊은 6월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벌리신 그 모든 사상리론활동과 비범한 령도, 그 나날에 보여주신 숭고한 위인적품모를 전일적으로 일반화하고있는 본질중의 본질인것이다. 다시말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이끌어오신 불멸의 향도는 주체의 수령론 창시로 그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고 총대중시의 선군정치로 그 영원한 승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불멸의 로정인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총대》는 주체87(1998)년의 력사적현실을 일반화하면서 우리 당 선군정치의 선포와 그 불패의 생활력을 반영한 작품이다.

물론 선군정치는 이때 비로소 시작된것이 아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서거후 주체84(1995)년 정월초하루날에 다박술초소를 찾아가신 그 길에 선군정치의 첫 걸음이 찍혀졌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선군장정 천만리는 총대로 시련의 눈보라를 헤치고 총대로 행복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사생결단의 행로였다.

주체87(1998)년은 족잡과 제기밥의 전설을 남으며 흘러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 절정에 올랐던 준엄한 시기였다. 미제가 《5027작전계획》을 재현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우리 공화국을 단숨에 압살해버리려고 미쳐날뛰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무엇보다먼저 최전연병사들을 찾아가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눈보라 사나운 령을 넘어 동기훈련을 하는 병사들을 찾으시어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였다.

《그래 동무들, 다시 노예가 되겠는가, 아니면 자주적근위병이 되겠는가.》

《최고사령관동지! 우리는 사회주의붉은기를 지킵시다.》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깁니다.》

위대한 령장의 크나큰 심장에 운명의 한피줄을 잇고 우뢰처럼 터뜨린 병사들의 대답속에 이 소설의 기본문제가 응축되어있다. 그것은 우리 장군님의 총대판문제, 총대와 참된 행복의 관계문제이다.

작품은 폭넓은 예술적일반화의 힘으로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 선군정치의 기초에 위대한 령도자가 지닌 어떤 총대정신이 놓여있었는가를 힘있게 천명하고있다.

작품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대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하시려는 총성의 한길에서 자신께서 먼저 수령님의 총대, 백두산총대를 억세게 틀어쥐시고 만만시련을 앞장서 헤치시려는 철의 신념과 의지가 우리 장군님의 총대정신의 핵으로, 그 무한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일군

들이 3년째 비여있는 국가주석의 자리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였으면 하는 전체 인민의 간절한 소망을 삼가 아뢰었을 때 그이께서 나에게서는 관직이 필요없다고, 그저 인민의 지지가 있으면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감명깊게 형성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땅에는 태양이 하나이며 우리 인민의 심장에 새겨진 공화국주석은 우리 수령님뿐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선군정치의 요구에 맞게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나라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을 다하실 결심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의 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실 뜨거운 충성의 맹세가 선군정치의 기초에 놓여있었던것이다.

작품은 더 나아가 우리 장군님의 총대정신이 자기 병사들을 원자탄이나 그 어떤 특수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라고 믿는 최고의 병사민심의 정신임을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느날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전사들을 찾아가시는것은 우리 총대가 바로 우리병사들이기때문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최고사령관의 총대가 바로 병사였기에 병사는 그이의 온 삶이었고 사랑이였다. 작품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적인 총대관을 천명하면서 장군님의 총대는 병사이고 그 총대병사가 되는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뜻깊은 사상적알맹이를 꽃피우고있다.

군관들인 박신철, 한철준, 최남호와 중급병사 김강인의 형상선은 선군의 총대에서 행복이 온다는 시대의 진리를 밝히는데 집중되면서 총대로 하는 충성, 총대로 쟁취한 사랑, 총대로 가꾼 행복이야말로 가장 궁지롭고 아름답다는것을 생동한 진실로 확증해주는것이다. 작품은 혁명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주력군으로 내세운 우리 당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힘있게 보여주면서 병사들의 총대에 장진된 수령결사옹위정신이 미제국주의자들의 고립과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 붉은기를 수호하게 한 《일당백》힘의 근본핵심을 강조하였다.

이리하여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총대》는 선군정치도 혁명적수령관에서 시작되고 수령이 지닌 주체적총대관에 귀착된다는 진리를 밝힘으로써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전환》과 련관성을 가진다. 《전환》이 1960년대를 배경으로 수령론창시에 초점을 두고있다면 《총대》는 바로 그 수령론에서 우리 당의 선군사상도 나왔고 주체적총대관의 본질도 수령론에 있다는것을 밝혀였다. 총서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은 제각기 특징이 있지만 그 형상의 계기들은 《수령론-선군철학》을 축으로 하여 펼쳐진 광활한 철학세계에서 포착된 찬란한 별세계를 이루고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서해전역》(박태수작)은 1980년대중엽 서해갑문을 일떠세운 군인들의 영웅적투쟁을 하나의 《건설전쟁》으로 묘사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담력과 의지는 날바다도 기들인다는 진리, 장군님의 총대는 전쟁만 아니라 건설에서도 가장 위력한 행복의 창조자라는 진리를 밝히고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총검을 들고》

(송상원작)는 전대미문의 대규모건설전투인 안변 청년발전소건설을 소재로 하여 위대한 령장이 키워낸 혁명군대가 어떤 정신력으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어주신 붉은 화살표를 따라 수백리 물길굴을 열고 승리의 돌가구를 열어놓았는가를 극적화쪽으로 그려나가면서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안고 전사들이 발휘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하며 억센 힘을 발휘하는가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 봉락구간에 갇힌 군인들이 살길을 찾아 갱입구쪽을 파나간것이 아니라 그 반대쪽인 막장암반에 착암기를 돌려대고 결사전을 벌리는 장면은 형상적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오늘의 조선이 처한 준엄한 정황과 죽음을 각오한 사생결단의 의지로 담대한 공격전을 벌리는 선군정치의 속도이다.

우리 군대는 위대한 장군님의 총대이고 군인은 그 총대에 재워진 총탄이다. 탄도는 오직 사수의 조준선을 따르는 법이다. 그 행로에 바위가 막아선다하여 에돌수 없고 폭풍이 불어친다하여 되돌아설수 없다. 오직 목표점에서만 운동을 멈추는것이다. 이 총탄의 운동궤도가 이 작품의 기본선을 이루고있다.

수령결사옹위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고 그길에선 죽음도 서슴지 않는 결사관철, 영웅적희생정신으로 총탄된 혁명적군인정신은 선군조선이 지닌 일당백힘의 원천이고 핵인것이다. 이와 같이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들은 선군의 일당백진리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고결한 의리를 간직하시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하여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선군정치를 펴나가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신념과 의지가 낳은 확고한 철리라는것을 힘있게 천명하고 있다.

×

선군령도의 백승의 진리는 선군정치의 지지점, 수령과 당, 인민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 일심단결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형성으로 담보된다. 그것은 선군의 위력이 그 어떤 추상적인 사상과 리념의 위력인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절대의 신념으로 체질화하고 수령과 운명을 같이하는 천만대중의 심장과 심장으로 축성된 일당백성세의 위력이기때문이다.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강계정신》은 선군정치를 믿음직이 떠받들고있는 일심단결의 성새가 위상에 의하여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감동깊은 형상적화쪽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사상이 정외롭고 목표가 명백하다고 하여 저절로 실천이 뒤따르는것은 아니다. 더우기 모두가 경애하는 장군님과 호흡을 같이하며 걸음을 맞추며 선군정치를 받들어나가게 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당시와 같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선군정치를 받들어나가야 할 대중의 심장과 심장에 신념의 불씨를 심어주는것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작품은 그것을 우리 장군님자신의 숭고한 헌신에서 찾고있다. 민족의 대국상이후 피눈물에 잠겨있던 인민의 가슴에, 제국주의의 고립과 압살의 중압에 눌리어 모든것이 어려웠던 이 땅에 강계정

신의 불길을 지피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일떠설 일당백힘의 폭발을 일으킨 그 요인은 오직 령도자 자신의 위대한 헌신이였다. 령하 40℃를 오르내리는 대소한의 추위와 찌는듯 한 삼복의 무더위, 세찬 눈보라도 폭우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구봉령의 령길을 넘으시고 강계와 희천, 장강과 만포, 인적드문 랑림의 산골짜기까지 끊임없이 이어가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헌신과 사량의 자욱자욱이 그대로 불씨가 되여 강계정신의 봉화를 창조한것이다.

인민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려 자강도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희생적인 헌신성은 그것을 받아안은 자강도사람들에게 처음엔 눈물이였고 다음엔 불이였고 힘이였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삶의 찬란한 광채였다. 이 땅에 진실로《군로신일》의 새 전설을 창조하신 령도자의 헌신이야말로 천만심장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마침내 모든것이 어려웠던 시련의 대지에 강계정신의 봉화를 지펴올린 고도의 불심지였다.

작품은 한몸을 불태워 강계정신의 봉화를 지펴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헌신의 세계에서 선군조선이 지닌 일당백의 힘의 원천을 찾아 심오히 밝힘으로써 선군문학의 정확성을 과시하였다.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별의 세계》(정기종작)는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로 되는

6.15북남공동선언발표를 계기로 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집단적으로 장군님의 품에 안긴 력사적사건을 소재로 하면서 선군조선이 지닌 일당백힘의 비결을 수령과 전사, 수령과 대중사이에 운명을 같이할 혈연의 뉴대를 이어주는 동지애의 원리에서 찾아 감명깊게 그려주고있다. 선군장정의 힘겨운 행군길에서도 비전향장기수들을 어느 한시도 잊으신적 없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죽음의 고비에서 그들모두를 건져내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조국의 품으로 송환의 길에 오른 통일애국투사 김진서는 먼저 간 동지들의 이름을 목메게 부르며 이렇게 심중의 걱정을 터뜨린다.

(동지들, 우리는 죽지 않소 죽지 않을것ियो. 혁명에 몸바친 이상 죽음이란 없습니다.)

그의 이 신념속에 새 진리가 있다.

작품은 자연계의 법칙을 부정한 이 영원한 삶의 원리를 경애하는 장군님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 일심단결의 공고한 성새를 이루게 하는 그 순결하고도 억센 동지애의 법칙으로 정식화하면서 별의 세계에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고 우리의 혁명대오엔 동지애의 법칙이 있다는 사상적알맹이를 꽃피우고있다.

별의 세계에서 수천만, 수천억개의 별들은 핵을 중심으로 한치의 드림도 없이 자기의 자리길을 돌고돈다. 그것을 자기 궤도에서 떼어내거나 밀어낼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지애의 최고화신인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영생의 궤도에 살고있는 전사들을 그 품에서 떼어낼 힘은 세상에 없는것이다. 이리하여 동지애의 세계에서는 죽음이란 없다.

작품은 한번 믿으시면 끝까지 믿어주시는 수령의 믿음을 지키면 삶ियो, 버리면 죽음이라는 동지애의 철학을 종자로 하여 선군의 일당백진리를

심오히 밝히었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들은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동지적 사랑과 헌신이 그대로 천만심장을 격동시키고 일심일의 대오에 튼튼히 묶여세우며 그것이 우리 당 선군정치의 불패의 위력을 낳는다는 진리를 힘있게 천명하고있는것이다.

수령이 안겨주는 사랑과 믿음은 전사들에게 《일당백》의 힘을 안겨주고 자기의 고귀한 피와 생명과 청춘을 바쳐 그에 보답하러는 충성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낳는다. 이리하여 일심단결의 선군대오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삶을 쟁취하는 시대의 영웅들이 탄생하게 된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들에는 이러한 영웅들의 군상이 힘있는 예술적필치로 부각되고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인 《총대》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안녕과 건강을 축원하며 장렬하게 함선과 더불어 자폭하는 《영원한 대좌》의 형상, 《총검을 들고》에서 앞을 볼수 없는 몸으로 200여일간이나 막장을 뜨지 않고 초인간적힘으로 광차를 밀어온 병사, 봉락된 굴속에 묻히여 웅근 사흘동안이나 갇혀있으면서도 압축공기관으로 들여보내는 주먹밥대신에 압축공기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영웅대대 전투원들의 형상, 《별의 세계》에서 암흑의 막방속에 청춘과 중년기의 생명을 다 묻고 백발이 될 때까지 혁명적절개를 지키고 장군님품에 안긴 통일애국투사의 형상속에는 선군시대인간들이 지닌 고귀한 정신세계가 빛나고있다.

수령이 안겨주는 사랑과 믿음에 온 심장을 다 바쳐 끝까지 보답하는 이런 충성의 대오가 있기에 우리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인것이다. 총서 《불

멸의 향도》는 바로 이 일심단결의 생세우에 휘날리는 선군정치의 붉은 기발은 그 어떤 강적도 다 물리치고 오직 승리, 승리만을 가져오는 《일당백》의 기치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선군시대에 창작된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한 장편소설들은 선군사상을 문학적형상으로 구현함으로써 그 철학세계가 비할바없이 넓어지고 깊어졌다. 비록 선군시대현실을 직접적소재로 하고있지 않고있더라도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전환》이나 《서해전역》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령도는 그 시초부터 시종 혁명의 총대에 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에 기초하고있었으며 우리 혁명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은 과거에도 혁명의 난국을 헤치고 빛나는 승리만을 가져온 필승의 보검이였음을 천명하고있다. 또한 《강계정신》처럼 군인들의 생활과 투쟁을 기본소재로 하지 않고있더라도 역시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과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이 모든 근로자들의 성격적행으로 굳건히 자리잡게 됨으로써 경제건설에서도 불가능을 모르는 선군조선의 혁명적기상이 나래칠수 있었음을 밝히고있다.

선군사상을 심오히 구현함으로써 총서 《불멸의 향도》는 선군혁명문학의 높은 사상에예술성을 세계에 과시하는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확고한 문학사적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선군령도의 백승의 진리를 창조함으로써 우리의 영광스러운 선군혁명문학도 일당백의 위력을 지닐수 있게 되었다.

총서 《불멸의 향도》는 그 매 한편의 소설이 귀중한 가치를 가진다. 이리하여 선군문학도 일당백의 문학으로 된다.

수필

기 치!

석유군

저녁식사를 치르고나서 책을 펼쳐들었다. 건넌방에서 울리는 전화화소리에 끌려 송수화기를 들고보니 뜻밖에도 광복거리에 사는 사촌누이었다. 목소리만 들어도 흥분한 기색이 알렸다.

《우리 예영이가... 예영이가 오늘 군복을 입었습니다.》

《뭐? 문학대학을 가겠더니...》

《전화로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이제 예영이를 데리고 가겠어요.》

《아무튼 미리 알릴 노릇이지 원...》

《참 오라버니두, 큰아버지를 깜짝 놀라게 하겠다는게 그애의 <전술>이었으니깐요. 호호...》

즐거운 웃음의 여운을 남긴채 전화는 끊어졌다. 허나 나는 한동안 송수화기를 놓지 못한채 생각에 잠겼다.

어렸을 때 귀염둥이로 재물을 부리더니 자라면서 목이 썩 빠지고 몸매 또한 바람에 흐느적이는 봄버들처럼 유연하여 예술체조선수가 되겠다고 하던 예영이, 그러면서도 성품이 다감하여 나한테서 책을 부지런히 빌려다 밤가는줄 모르고 읽

군 하던 예영이었다.

헌데 그가 벌써 군대에 입대하다니... 아니, 더 놀라운것은 웃음어린 누이의 말이었다.

딸을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그 애 뒤바라지하는것을 생활의 락으로 여기면서 뛰여다니던 누이는 몇년전 설날에는 심각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었다. 그가 내놓은것은 예영이가 쓴 시첩이었다.

《혹시 그 애가 문학에 소질이 있는건 아닌가요? 밤새껏 책을 보길래 다감한 취미인가 했더니 그 애가 쓴 글을 보니 생각이 깊어져요.》

기대어린 누이의 눈길에서 나는 어머니된 그의 심정을 새삼스레 느끼었다. 한장 한장 예영이가 쓴 시들을 보면서 나도 생각이 깊어졌다. 후에도 누이는 예영이를 나처럼 작가로 키우기를 바라는 소원이 간절했다. 하지만 그때에도 아니 지금까지도 그 애가 작가의 소질뿐 아니라 남다른 정력을 지니고있겠는가 하는 생각때문에 성큼 답을 주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애가 인민군대에? 아니 것처럼 딸의 전망에 대해 원심을 써오던 누이가 그 애가 학교를 졸업하자 인민군대에?

하기야 선군혁명시대 청년들은 누구나 다 조국보위초소에 서는것을 최대의 희망으로 여기니까... 하다면 딸 하나만을 키우며 어렸을 때 예술체조선수로, 지금엔 작가로 키우고 싶어하던 누이가 나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섣뚱 구슬처럼 아끼던 딸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웠는지...

생각이 깊어질수록 나의 사색은 어언듯 한몫으로 이어졌다.

얼마전 나는 비전향장기수 김동지를 만나러 그의 집을 찾았다. 공교롭게도 그 동지는 집에 없었다. 예고도 없이 문득 찾아갔으니.

나를 맞이한 부인은 몹시 난감해하면서도 반가와하는 기색이었다.

《밤금 산보를 나갔으니 인차 오시겠지요.》

예순나이가 켜 지났으나 첫눈에도 현숙해보이는 부인은 송구스러워하는 표정으로 나를 놀려맞히었다. 부인은 오래간만에 찾아온 내가 자리를 뜰까 저어해서인지 마주 앉으며 말쑥지를 떼었다.

서로 오가며 말을 나누는 과정에 나는 직업적 타성으로 부인의 사생활까지 묻게 되었다.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채 이야기하던 부인의 말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것이 있다.

생사를 모르는 남편. 그래도 일점 혈육을 남겼으니 태어난 애는 딸이었다. 아들이었으면 했으나 딸이면 어떠랴. 통일애국성전에 나선 남편의 뒤를 이어 곳곳이 키우리라 마음다진 그였다.

딸애는 크면서 어찌나 재간둥이였던지. 탁아소, 유치원... 홀몸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딸애를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인들 오죽했으랴. 하지만 드바쁜 생활이 그에게는 곧 행복이었고 희망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 가슴속 한가운데 언제나 무겁게 얹혀있는것은 자나깨나 조국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었다. 이 행복을 남편과 함께 나누고싶은 일루의 희망으로 번져졌다.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서인지 딸애는 공부도 잘하는 모범학생으로 자랐다.

학업성적이 학급은 물론 학교적으로도 1등, 군수학경연에서도 1등하였고 도 적으로도 1등을 하여 전국수학경연에 올라가게 되었다.

전국수학경연에 평양으로 떠나는 딸이 못내 대견하였지만 어머니는 남모르는 걱정이 앞섰다.

《애야, 평양에 올라가면 여기와는 달라. 한문제라도 설치면 안돼.》

《걱정마세요. 엄마, 내 꼭 1등하겠어요.》

《그래두... 평양에 가면 온 나라에서 한타하는 수재들과 겨루겠는데 여기 강제하고는 달라.》

《참, 엄마두. 별걱정 다하시네. 내가 우리 도의 명예를 걸구 가는데... 잘하겠어요.》

딸애는 두팔로 어머니를 그러안으며 웃음지었다.

《내가 1등하고 오면 엄마두 내 소원을 들어주겠지요?》

그 말에 녀인은 마음이 풀려 고개를 끄덕이며 은근히 물었다.

《그래. 들어주지 않고... 네 소원이 뭐냐?》

《난 힘껏 공부해서 박사가 되는거예요, 녀성박사.》

《뭐, 박사? 박사가 되겠다구?》

그 말에 녀인은 속으로 무척 기뻐다.

한것은 결혼직후의 일이 불쑥 생각되었던것이 다.

어느날 행복에 겨운 남편은 안해에게 물었다.

《내 당신의 요구라면 다 들어주겠소.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오?》

키가 성큼한 아니 누가 봐도 미남자라고 부러워할 남편의 넓은 가슴에 고개를 묻으며 녀인은 행복에 겨워 속생각을 그대로 속삭이었다.

《난 당신을 믿겠어요. 박사가 되여주세요.》

《박사?! 당신이 바란다면 내 꼭 박사가 되겠소.》

진중하게 울리던 남편의 말을 지금 딸에게서 다시 듣게 된것이 놀라왔다.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자라난 딸애가 어쩌면 아버지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는지...

하나 생활은 한결오로만 흘러가지 않았다.

미제의 악랄한 책동으로 정세는 팽팽해졌다.

중학교졸업을 앞둔 딸애는 인민군대에 탄원했다.

《녀 성 박 사 가 되겠다던것이 언제인데 군대에?!...》

《엄마, 놀라지 마세요. 나라가 굳건해야 박사도 빛을 냅니다. 탄생각할게 있어요. 총련 병사가 되겠습니다. 대학공부는 그다음에...》

날에 날마다 희망의 나래를 더욱 활짝 펼치며 마음껏 배우고 뛰놀던 교정이, 어머니조국이 귀중함을 다감한 그 시절에 가슴깊이 새겼기에 조국수호의 총대부터 들어주려는것이 아닌가.

박사되는 일은 미룰수 있어도 조국을 지키지 못한다면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생활의 진리를 그 나이에 벌써 신념의 기둥으로 다져간 것이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녀인은 딸이 하도 기특하여 기쁨속에 눈물을 흘리었다...

어언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미제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놈들의 고립압살책동과 전쟁정책은 더욱더 악랄해지고 파백치해졌다.

이 나라 수백만 청년들의 피끓는 가슴마다에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령도를 총대로 받들어나가려는 결의가 한결같이 굳건해졌다. 인생의 첫 발자국부터 총대를 기치로 튼튼히 들어쥐고 나아가는 젊은이들...

아니, 젊은이들만이 아닌 그들을 장하게 내세우려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가슴가슴에도 총대의 철리가 깊이 뿌리내려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이제 곧 예영의 손에 이끌려 누이도 함께 들어설것이다. 뜨겁게 달아오른 마음으로 나는 예영을 축복해주리라.

《장하다. 선군시대 딸답게 용감하거라.》

먼 후일 나는 그가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작가가 되리라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생의 첫 걸음부터 선군시대의 장엄한 역사를 총대로 새겨가는 초병이기에...

◇수기◇

백두산총대가 제일입니다

한춘의

제가 어머니조국의 품으로 돌아온것이 어제같은데 벌써 5년이 되어웁니다.

이 나날들에 저는 총대중시사상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나라의 번영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그것이 과연 어떤 인연이 있는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겨 날과 달을 보내는 과정에 저는 비로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조국의 운명 지키려 철령을 넘어 몇천리, 락원의 길을 여시려 강계를 찾아 몇천리...》라는 노래를 입속으로 불러보며 조국땅에 발을 댄 순간부터 느껴온 총대중시사상의 참된 의미에 대한 생각을 미숙하나마 한편의 글에 담아보고저 합니다.

1

흔히 사람들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저는 그 10년이 세번 가까이 되는 29년이라는 긴 세월을 세상과 격폐된 0.75평 독감방속에서 보내고 폐인이 되어 남조선사회에 내던져졌습니다.

《사상범》딱지가 늘 따라다니 행동의 자유가 결여되어있는 남조선땅에서 실오리같은 목숨을 이어오던 저는 6월 15일의 북남공동선언채택으로 꿈결에도 그림던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비전향장기수 63명의 조국에로의 송환,

이 사변을 두고 세상사람들은 《천출위인의 동지적의리의 결정체》, 《악에 대한 선의 승리》라고 이구동성으로 격찬하여마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아직도 6. 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던 때의 일을 잊을수 없습니다.

서울의 거리들에 설치된 텔레비존들과 대형전광판들에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영상이 모셔지고 북남최고위급회담이 방영되었으며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는 순간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 선언에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북으로 송환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감격을 어떻게 다 말할수 있겠습니까.

나의 조국이 이렇게 힘이 막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한없는 감격에 휩싸여있는 저에게는 6월의 선언이 채택되기전까지의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주체87(1998)년말, 미제가 제2의 조선전쟁을 떠들며 으르렁대던 때 미제놈들을 전률케 하며 조선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인민군대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타격을 피할 자리가 이 행성우에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으며 일단 전쟁이 강요된다면 다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것이다!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무장력앞에 기가 질린 미제놈들은 아우성치며 실전에 림했을 경우를 가상한 컴퓨터모의전쟁까지 벌여놓고 저들이 공화국에 대참패를 당하는 결과앞에서 조선인민군의 위력에 전률했다고 합니다.

남조선전역에는 이 시기 북조선인민군의 위력에 대한 전설같은 일화들이 짙 퍼졌습니다.

바로 이런 강력한 총대를 가진 우리 공화국의 힘이 있어 오늘의 6월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저는 우리 민족사의 수난의 역사를 더듬어보았습니다.

제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씻을수 밖에 없고 가슴을 두드릴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되어 자기 의사를 거침없이 선언하고 그 선언을 훌륭히 관철할수 있는 힘, 그것은 자위의 총대에 있습니다.

자위의 총대,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 세기에 자주적주권국가가 무엇보다먼저 틀어쥐여야 할 명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제에 의해 정의도 국제법도 다 무시되고 강권과 횡포가 자행되는 오늘 지난날 수난의 비극을 겪어야했던 조선이 위대한 장군님의 총대중시정치에 의해 세계 으뜸가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미제와 역사의 반동들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미쳐날뛰고있지만 그 준동은 백두산총대에 의해 짓부셔지고 분렬력사상 처음으로 6. 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었으며 비전향장기수들이 조국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6월 15일 그 한밤을 우리 비전향장기수들

이 조국으로 송환된다는 감격과 공화국의 막강한 힘에 대한 생각으로 꺾박 새웠습니다.

공화국의 품에 안긴 후 저는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백두산총대의 덕을 가장 크게 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진정 백두의령장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치는 위대한 선군정치, 총대중시정치가 있어 생의 말년에 이른 오늘 죽음의 나라에서 행복의 절정으로 치달아올랐으며 백두산총대덕을 입은 시대의 행운아가 되었습니다.

2

백두산총대덕에 맞이한 운명의 극적전환앞에서 저는 위인과 총대라는 두 말마디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저는 조국의 품에 안긴 첫날 저녁 텔레비존을 보다가 수수한 야전복차림으로 인민군 어느 한군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병사들에게 자동보총과 쌍안경을 수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총대는 위대한령장의령도를받을 때 자기의 진정한 삶을 빛내일수 있다는데 대해 절감하였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이미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절실히 느꼈었습니다.

가렬한 전화의 그 나날 저의 부대는 1211고지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직사포를 고지우로 끌어 올려 미국놈들을 답새겼으며 화선악기의 노래높이 울렸고 강도전, 야간전, 습격전으로 적들을 소멸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어 우리는 강도안에서 콩나물을 길러먹으며 원우격멸의 새힘을 가다듬었고 전투마다에서 수령님께 충직한 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목숨을 내걸고 싸웠습니다.

놈들은 전투들마다에서 너무도 혼쭐이 나 1211고지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상한다고 하여 《상심령》이라 불렀고 그 아래끝짜기를 《함정골》이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령도를받는 무적의 백두산총대로 우리 조국은 미제를 패배의 《함정골》에 처넣고 전승의 날을 안아왔습니다.

저는 기나긴 세월 옥방살이를 하면서 감방에 끌려온 《량심수》들의 말과 이따금씩 간수놈들이 쉬쉬하며 떠드는 소리들을 통해 우리 공화국의 위력한 무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미무장간첩선이 북에 잡혔대, 이번엔 간첩비행

기가 북조선군대의 총에 맞아 떨어졌대, 판문점에서 술한 미군이 인민군대에게 덤벼들다가 맞아 죽었대...

이런 말들은 하나같이 우리 공화국의 총대가 얼마나 강한가를 가늠케 하는 것이었고 공화국북반부가 세계 《유일초대국》이라고 떠드는 미제와 직접 맞서 끄떡없이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하고있는 힘이 무엇이겠는가를 알수 있게 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우리 조국의 힘은 위대한령장의령도를받는 백두산총대의 힘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나온 후 남조선의 출판물들에는 미국의 《F-16펠컨》 전투기를 남조선이 받아들이었다느니, 미국이 작성한 조선전쟁씨나리오 《5027-작전계획》이 발표되었다느니 하는 글들이 련속 실렸습니다.

그 글들을 보며 보수계 인물들은 미국의 이 막강한 무력앞에서 북이 견딜수 있겠는가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공화국북반부가 미국의 군사적위협과 핵전쟁도 발소동을 걸음걸음 짓부시고있다는 소식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우주로 날아올랐다는 소식들이 련이어 전해졌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남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탄을 터칠 때 저는 우리 조국이 세다, 우리 장군님께서 정말 강대한 무력을 건설하시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곤 하였습니다.

제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오기 며칠전 저에게 나이 선술에 들어섰을 한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들이 정말 부럽다, 그게 다 북에서 군사우선시정책을 펴고 정의의 총대로 나라를 지키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광주항쟁때 진압병사로 동원되었던 사람인데 미제놈들이 쥐여준 총으로 제동포들을 살해한 그 죄많은 과거로 하여 마음편히 살지 못한다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습니다.

진정 우리의 총대는 조국의 안전과 민족의 리익을 지키는 애국, 애족, 애민의 총대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그 총대의 힘이 위력하기에 자기 할바를 다하고있는 가장 존엄높은 나라로 되었습니다.

한쪽에서 강도 미제의 총포탄이 한 주권국가를 무참하게 짓이기고있을 때 우리 조국에서는 그 횡포를 짓누르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의 노래가 울리고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백승의 총대가 있어 우리는 미제의 반공화국소동을 짓부시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미국놈들이 핵전

쟁도 불사할것이라고 떠들어도 배포유하게 자기 갈길을 곳곳이 가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의 당당한 자세앞에서 미제놈들은 감히 불질을 못하고 기가 질려 찢찢 매고있는것입니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살아오는 동안 저는 군대와 인민이 서로 돕고 이끄는 군민일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에서는 총을 쏜 군인들이 인민들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가장 힘든 건설대상들을 해체하며 친혈육이 되어 인민들을 위해주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놀라운 일이 가장 평범한 일로 되고있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이러한 현실이 어떻게 마련된것이었습니까.

우리의 총대를 인민을 위한 사랑의 총대, 조국을 지키는 무적의 총대로 내세워주시고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새로운 정치사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은 지금 저의 작은 한가슴을 꼭 채우고있습니다.

백두의령장 **김정일** 장군님을 따르는 신뢰와希望的 열풍은 지금 남조선땅에 뜨겁게 불어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남조선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저는 울것이 오고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군 합니다.

나어린 녀중학생들을 무한케도로 깔아죽이고도 《무죄》를 떠드는 미제놈들을 반대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반미항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고 있습니다.

온 조선땅이 백두산총대를 제일로 내세우는 오늘 현실을 보며 저는 소리높이 웨칩니다.

만능의 보검 선군정치로 온 겨레를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조국은 것처럼 강하고 우리 민족의 존엄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3

요즘 저에게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의 구호를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집벽에 걸린 그 구호가 제 마음을 늘 자석처럼 잡아끌기때문입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구호를 바라보면 저절로 마음이 흥그러워집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총대로 안아오시는 오늘보다 더 좋은 래일이 있고 그 미래는 마냥 즐겁고 환희에 찬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 비전향장기수들모두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정신육체적으로 완전히 재생되어 20대청춘의 활력을 안고 살고있습니다.

백전백승의 총대력사를 새겨가시는 백두령장의 사랑속에서 육체를 되살린 우리들에게서 고향에 청춘을 맞아 아기를 보는 경사까지 생겼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들의 재생을 축복해주시고 태어난 아기에게 《축복》이라 이름까지 달아주셨으니 세상에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축복》이의 밝은 얼굴에서 조국의 희망찬 미래를 보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선군장정의 수만리 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립니다.

제가 지금 선군청송으로 가습끓이는것은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조국의 미래를 가장 확고하게 담보해주는 정치임을 절감했기때문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미래는 강한 신념을 안은 총대에 의하여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군님의령도를 받는 백두산총대는 철의 신념을 안고 그 강대한 힘으로 조국의 오늘과 민족의 래일을 굳건히 담보해주고있습니다.

총대로 개척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승리해가리라는 신념, 이것이 조국의 오늘과 래일을 담보하는 선군령장의 신념인것입니다.

얼마전 저는 평양시의 한 소학교를 참관하던중 뜻밖의 충격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4학년의 어느 교실에 들어서는데 여러명의 어린 학생들이 지구의를 돌리다가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것이였습니다.

《이거 보라, 우리 조선이 권총이야!》

《맞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의 눈길은 저절로 지구의로 쏠렸습니다.

정말 백두산에서 두만강끝으로 뻗어나간 조선선상에 미국땅이 놓여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비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제 머리속에 남쪽에 있을 때 본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조선을 토끼처럼 형상하고 다른 나라들을 뿔수들로 그려넣은 다음 《토끼같은 조선반도, 이속에서 살아날수 있을까?》라고 설명을 단 만화였습니다.

그 그림을 볼때 저는 우리 나라가 왜 다른대국들의 희생물로 되여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서글픔을 누를길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에서는 자기 조국이 주변맹수들의 희생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자기 조국을 미제놈을 썩잡는 권

총같다고 말하면서 총을 사랑하고있는것이 아닙니까.

정말로 어제날 제국주의자들의 만만한 먹이감으로 각축전마당에 올랐던 내 나라는 오늘 나약한 토끼가 아니라 그 어떤 맹수도 쥐락펴락하는 강위력한 나라로 되었습니다.

선군의 힘에 받들려 초강국의 위용펼치는 백두산총대국.

우리 조국사에 일어난 이 극적전환이 바로 빨찌산의 아들이신 백두의 천출명장 우리 장군님의 선군령도에 의해 이룩된것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가슴 벅차오름을 누를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새 세기의 첫 걸음을 힘차게 내짚은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보며 백두산총대가 지켜주는 우리 조국의 앞날은 밝고 양양하다는것을 더욱 깊이 느끼고있습니다.

군인건설자들과 인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에 일떠세우는 수많은 발전소들과 닭공장, 양어장, 타조목장, 어제날의 지주가 와보면 눈이 뒤집혀지도록 천지개벽이 된 사회주의맛이 나는 규격포전들, 끝없이 뻗어간 개천-태성호물길, 《미래를 위하여. 고난의 마지막 해 1997년》이라고 구월산절벽에 군인건설자들이 새겨넣은 글발 등은 백두산총대우에 실린 숭고한 미래지향과 필승의 신념을 온 세상에 파시하고있습니다.

자료

고구려의 민간교육기관 경당

박승길

지난 시기 고구려가 동방의 강대국으로서 그 이름을 빛내여올수 있었던 바탕에는 언제나 무술을 중시해온 고구려사람들의 상무적기풍이 놓여 있었다.

고구려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하는데서도 무술과 지혜, 용맹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으며 놀이나 경기를 해도 모두 무술과 관련된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당시 고구려사람들속에서 무술을 배우고 익히려는 상무적기풍의 열의가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것은 민간에서 조직운영한 경당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력사책인 《구당서》에까지도 고구려사람들은 책을 좋아하여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의 집에서까지 책을 읽는다고 하면서 마을마다 경당이라는 큰 집을 지어놓고 결혼전의 자제들을 모아 낮과 밤을 이어 책을 읽고 활쏘기를 익히게 한다고 기

미제와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짓부시며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북남간의 화해와 협력이 여러갈래로 이루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위력을 얼마나 힘있게 떨치고있는것입니까.

지금 미제놈들은 강권과 전횡을 일삼으며 《세계유일지배질서》를 세우겠다고 떠들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론리는 우리에게 절대로 통하지 않을것입니다.

승리와 미래의 상징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드신 백두산총대에 의하여 미제놈들의 허장성세는 물거품이 되고야 말것입니다.

참으로 천하제일명장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진두에 서계시고 령도자와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이 있으며 《일당백》의 무장력이 있는 내 나라, 백두산총대국의 미래는 밝고 양양합니다.

21세기의 태양 **김정일**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의 눈부신 빛발아래 력사의 온갖 어둠은 가셔지고 내 나라, 내 조국이 통일강성대국으로 하늘가에 높이 솟을 그날은 머지 않아 반드시 오게 될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고히 믿으며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락관의 구호를 밝게 웃으며 바라봅니다.

록되어있다.

여러 기록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고구려시기에는 어느 마을에 가든지 경당이라는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젊은이들이 글도 배우고 말타기와 활쏘기, 칼쓰기와 같은 무술도 련마하였으며 체력도 튼튼히 단련하였다. 경당에서는 한편 여러가지 방법으로 젊은이들의 무술숙련정도를 자주 평가함으로써 무술을 배우려는 그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기도 하였다.

경당은 참으로 고구려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려서부터 자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과 슬기와 재능, 용맹과 힘을 키워주는 터전으로, 요람으로 되었다. 경당과 같은 교육기관이 있었기에 고구려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무술을 익히었으며 력대로 끊임없이 쳐들어온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올수 있었다.

시대의 목격자로

박창민

누구나 새해아침이면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고 새해의 사변과 변혁을 그려보게 된다.

눈덮인 거리를 바라보며 창가에 서있으니 새해 진군길에 펼쳐질 조국의 모습이 이 가슴을 설레게 한다.

올해는 우리 당창건 60돐과 조국해방 6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우리 장군님께서 위대한 선군정치의 거룩한 첫 자욱을 새겨가신 10돐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선군정치 10년!

참으로 못잊을 사연들이 너무도 많고 많아 가슴겨운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10년이였다.

위대한 선군령도따라 가슴아픈 희생과 시련의 언덕을 넘어 필승의 신념과 희망, 삶의 희열과 락관으로 부풀어오르는 가슴을 안고 강성대국건설의 길위에 심장의 맹세를 새겨온 나날이였다.

부지중 위대한 선군령장의 명령을 받아안던 그날의 감격이 눈앞에 떠오른다.

주체83 (1994)년말 어느날.

아침부터 라디오와 텔레비존에서는 낮 12시에 중대방송이 있겠다는 방송원의 격동적인 목소리가 거듭 울려나왔다.

하늘처럼 밟고살던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를 잃고 흘리는 비애의 눈물이 강산을 적시고 우리를 어찌보려고 제국주의자들이 사면팔방에서 달려들고있는데 중대방송이라니 이 무슨 충격적인 소식인가!

나의 마음은 격동상태에 있었다. 세계의 눈과 귀는 조선으로 쏠리였다. 온 나라는 전쟁전야와도 같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적들의 새 전쟁도발인가? 우리 당의 단호한 립장을 선언하는 공화국정부 성명인가?)

1 분, 2분, 3분... 예민해지는 신경을 누르며 나는 12시를 기다렸다.

어찌 나만이라. 그 시각 폭풍전야와 같은 침묵속에 천리방선 병사들은 만탄창한 자동보총의 격발기를 당기고 후방인민들은 숨을 죽이고 라디오와 텔레비존앞에 모여 앉았다.

침략의 포신을 북으로 돌리며 화약내 풍기는 작전도에 시퍼런 화살을 그어가던 적들은 분노한령장의 징벌이 두려워 공포에 떨리는 손으로 평양방송에 파장을 맞추고있었다.

이제 내리게 될 불호령을 생각하며 세계 수억만이 평양방송에 귀를 기울이고있는데 드디어 방송원의 격동적인 목소리가 우주공간을 가득채우며 울려퍼졌다.

평양시에 청류다리 (2단계)와 금룡2동굴을 건

설할데 대한 너무도 뜻밖의 명령이였다.

종 한방 쏘지 않고 하나의 명령으로 세계를 들었다놓으시는 위대한령장의 천재적지략에 나는 솟구쳐오르는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적들은 넋을 잃었고 세계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송고한 애국, 애민, 애족사상에 감동하여 흥분으로 설레였다.

세상에 명령이란 말이 생겨 언제 사람들의 가슴을 이처럼 뜨겁게 울린적 있던가. 유구한 세월복종과 강압,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군사지휘방법의 의미로만 씌여온 《명령》이라는 말을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대명사로 바꾸어놓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적품모에 나의 두눈은 축축히 젖어들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크나큰 슬픔을 어떻게 힘과 용기로 바꾸어 일어나고있으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심장의 구호를 들고 최고사령관의령도따라 어떻게 투쟁하는가를 온 세계에 보여주라고 군대를 대국상후의 첫 전투장으로 불러주시는것이였다.

우리 민족이 인류력사가 알지 못하는 참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지만 천갈래, 만갈래 얹혀져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용약 일어나 조국수호의결전에 펼쳐나서야 하였던 엄숙한 그 시각에 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령은 위대한 선군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청류다리 (2단계)와 금룡2동굴건설은 단순한건설이 아니였다. 그것은 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워 우리 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용감하게 뚫고나가며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이 땅우에, 이 하늘아래 강성대국을 건설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석같은 의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선언이였다.

중대방송을 청취하기 바쁘게 총과 배낭을 멘수백수천의 군인들과 기계화군단이 모란봉기슭으로 굽이쳐오는 장엄한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눈굽을 적시였다. 나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뇌이였다.

《이 전투는 벌써 승리한 전투다!》

어느 한 혁명시인이 《세계의 정직한 사람들이여 지도를 펼치라 싸우는 조선을 찾으라》고 웨쳤다면 나는 《세계의 정직한 사람들이여 평양으로 오시라 승리하는 조선의 모습을 보시라》고 웨치고싶었다.

금룡2동굴건설의 나날 나는 줄곧 병사들과 함께 살며 종군하는 정신으로 글을 썼다.

크나큰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창조한다. 군인
건설자들은 단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다리와 동굴을 건설하여 강성대국으로 가는 넓은
길을 펼쳐놓았다.

그때로부터 10년!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말자는
혁명의 구호, 투쟁의 구호를 높이 들고 병사들은
위대한 선군령도의 길우에 얼마나 빛나는 위훈의
자욱을 새기였는가.

철의 의지와 필승의 신념이 거목처럼 가슴깊이
억세게 뿌리내린 지난 10년간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참으로 자랑스런 투쟁의 길을 승리로
빛내여왔다.

조국땅 그 어디에나 위대한 선군령장의 령도에
끝없이 충직한 병사들의 위훈이 깃들어있다.

나는 천하제일령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가는
투쟁의 첫 기슭을 떠나 승승장구해온 불패의 전
투대오와 함께 총대와 붓대를 들고 생활의 한복
판에 뛰어들어 위대한 전변을 노래하여온 벽찬
현실의 체험자, 위훈의 목격자, 시대의 증견자가
된 긍지를 안고 새해를 맞는다.

고난은 한순간, 승리는 영원한것-

천출명장의 빛나는 예지와 백전백승의 기상 나
래치는 선군조선은 새해에 또 얼마나 위대한 승
리로 세계를 경탄케 할것인가!

노래하노라, 오직 한마디

김희조

내 때로 하는 생각
오늘의 이 땅, 내 나라의 위대함을
무슨 말로 다 노래할수 있으랴
그 강대함과
그 높은 존엄을

그런 때면 내 눈앞엔 떠올라라
총대들이 번쩍이는 방선들과
불빛 꺼질줄 모르는 거리거리
쇠물의 화광비낀 공장들과
오곡이 익는 전야들이

내 눈앞엔 떠올라라
장군님 걸으신 다박술초소의 그 길이
그 길에서 무엇이 시작되고있었던가
그이 타신 야전차의 불빛이 떠올라라
바람에 날리던 그이의 야전복자락이
그 나날 그이의 가슴엔
무엇이 안겨있었던가

말하라 노을로 퍼져가는 쇠물의 화광이어
거리와 마을에 속삭이는 불빛이어
너는 전선길 이어가시는 장군님
야전차의 불빛에서 비쳐온것 아니더냐
설레는 오곡이삭들은
그이 안겨주신 총대바람이 익힌것 아니더냐

그 누구도 걸어 못본 선군의 길
원썬들의 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존엄한 폭풍을 뚫고
이 땅의 운명을 안고 선택하신 길
그이의 그 뜻으로 총대를 가장 사랑하는 나라여

군민이 하나로 성새를 이루고
창조의 열매를 가꾸는 나라여

그 어떤 원썬이 감히 넘보랴
달려들면 원썬은 모래알처럼 흩어지리
총대는 이 땅의 의지
백두산의 아들 장군님의 의지를 닮았어라
총대는 이 땅의 신념
백두산처럼 드팀없는 그이의 신념을 닮았어라

그 총대를 들고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에게 불질한다면
지구상 그 어떤 원썬진 소멸하리라!》
그 총대로 우리는 담보한다
아이들의 눈동자에 담아줄 저 푸른 하늘과
거리와 마을에 비길 더 밝은 웃음들
그리고 우리는 말한다
《이 땅에 기어이 강성대국을 건설하리라》

그렇다, 우리는 기어이 강성대국을 세우리라
내 눈앞에 달려오는 달려오는
해빛 눈부신 앞날이어 가슴 부푸는 희망이어
정녕 무슨 말로 이 땅을 다 노래할수 있으랴
다만 한마디 나는 노래하노라
이 땅을 선군의 조국이라고

그렇다! 이 땅은 선군의 조국
넘치는 공지와 자부를 안고
그 한마디로 나는 이 땅의 위대함을 노래하노라
그 강대함과
그 높은 존엄과
그리고 눈부시게 빛날 무궁한 번영을



채 쏘지 못한 총탄

-한 전쟁로병의 이야기중에서-

한웅빈

이야기에 앞서

그날 저녁 나는 거리를 걷고있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저녁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어둠이 빨리 닥쳐옵니다.

발밑에서 며칠전에 내린 눈이 뿌드득뿌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눈길을 걷기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70 고개에 올라섰고 한다리에 의족을 한 늙은이이지만 나는 여전히 눈길을 걷기 좋아합니다.

아침에만도 나는 발밑에서 눈뽕하는 소리를 들으며 《답거성성은 룽월아라》(눈뽕하는 소리는 룽월의 개구리울음소리 같다)는 옛시인의 풍류시를 생각했더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귀가에 들린것은 눈뽕하는 소리가 아니었고 머리속에 떠오른것도 옛 풍류시가 아니었습니다. 낮에 중대방송으로 들은 공화국정부 성명의 마디마디가 귀가에서 메아리치고있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질식시키고 군사적으로 압살해버리려고 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을 단죄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도 대화에도 준비되어있다. 기어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돌이켜보면 이 땅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반세기동안 우리는 매달 매 순간마다 《미제국주의와 한번은 결산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여왔고 말해왔습니다. 정전협정이 조인되어 반세기가 지났으나 이 땅에는 한순간도 평화가 깃든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전쟁로병들은 한순간도 반세기전의 7월 27일, 적진에 겨누어진채 사격을 멈춘 총에 물려있던 탄머를 잊은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채 쏘지 못한 총탄을 가슴에 품고 그 아픔을 느끼며 반세기를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항상 고통스럽게 한것은 옛상처의 아픔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있는 그 총탄이 꿈틀거리며 주

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의 퇴근길은 나에게 그 아픔을 더 심하게 느끼게 하였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져있었습니다. 창문들에서 비쳐나오는 불빛이 네모진 보도블록으며 흰눈으로 복을 돈구어준듯 한 가로수들을 비치고있었습니다.

나의 앞뒤옆으로는 젊은이들이 웃고 떠들며 마주오고 앞서가고있었습니다.

그들의 울긋불긋한 솜옷들과 머리수건들, 모자들

어제 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벌써 몇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

앞서가는 처녀들이 들어달라는듯 불러대는 젊은이들의 노래소리, 텔레비존의 푸른빛이 내비치는 창문안에서도 《까투리타령》이 울려나오고있었습니다..

까투리 한마리 푸드드-하니 매방울이 떨렁-
...

창량음료점에서도 불빛이 환했고 거품이는 맥주조끼들이 보였습니다. 벌거우리해진 얼굴들이 창문가에 얼른거렸습니다. 웃음소리와 웅성대는 흥겨운 소음이 쏟아져 나오고있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의혹을 느끼게 했습니다.

물론 노래를 불러야지! 맥주도 마시고 웃기도 해야지요!

우리는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노래를 불렀고 크게 웃으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날 저녁에는 그 저녁풍경과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미제와의 결전을 선포

하는 공화국정부 성명이 나온 저녁이 아닙니까!
거리에 흐르는 노래가 《나가자 나가자》하는
《결사전가》이고 거리를 메우는것이 군복이나 전
투복장이었다면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을것입니다.
길가에 서있는것이 가로수가 아니라 총창들이었
다 하여도 놀랍지 않았을것입니다.

너무도 모든것이 변함없었습니다. 구태의연했
습니다. 나는 의혹에 잠겨들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들어온 《일촉즉발》이라는 말에
만성화되어버린것인가. 나는 이제까지 이 땅에
다시 미제와 결사전의 총포성이 터져오른다면 그
젊은이들이 50년대의 우리처럼 서슴없이 총을
잡고 포화속으로 달려나가기라는것을 한번도 의
심해본적이 없었습니다.

이때도 그 확신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녁은 그들의 가슴속에 과연 우리의 가슴속에
있는 그런 총탄이 채워져있을가 하는 의혹을 자
아냈습니다.

그것은 피로운 의혹이었습니다. 발사되어야 할
총탄이 장진되어있지 않다면 그것은 총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대
로 집으로 들어가고싶지 않았습니다. 영광거리에
있는 옛전우 《작은순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옛 전우와 마주 앉아 잔잔 기울이며 의혹을 풀
지 않고는 집으로 갈수 없었습니다.

50여년전 전쟁의 나날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
습니다. 그것들은 어찌 보면 총포성과 포연, 불길
로 갈피를 잡기 어렵게 뒤엉켜진 회상이었습니
다.

어느 한 전투에 대하여 회상하다 보면 잠시후
에는 그것이 다른 전투때에 있는 일이라는것이
문득 떠오르고 때로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가, 혹은 다른 사람의 전투담에서 들은것이 아
니였던가 하는 의혹까지 느끼게 했습니다.

50년이란 참으로 긴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첫
전투와 마지막전투에 대한 회상만은 생생하였습
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과 마지막은 기억에 류달리
새겨지는 법인지...

1. 붉은 모래불

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난지 한달후
인 1950년 7월 25일에 입대하였다.

그때는 벌써 서울해방은 먼 이야기로 되어버리
고 미24사를 피멸시킨 유명한 대전해방전투도 완
전히 끝났을 때였다. 거리와 마을들에 나붙은 조
선지도들에는 해방되었음을 표시하는 작은 붉은
기발들이 남쪽땅 거의 전 지역에 꽂혀있었고 동
남쪽의 좁은 락동강지역만이 《한구석》으로 남아
있었다.

그때 같아서는 내가 전선에 도착하기전에 전쟁

이 끝나버릴것만 같았다.

38선을 넘으면서부터 걸음마다에서 맞다들리는
전장의 흔적, 여기저기 처박혀있는 미군땅크들
과 장갑차, 대포들, 장작개비처럼 널려있는 엠완
총과 기관총들, 산더미처럼 야적해놓은채로 버려
둔 적들의 포탄무지.

그것들은 아군이 상상하기 어려운 위력한 무기
(보기에도 막대한 적들의 무기를 일거에 파철로
만들어버린)를 가지고있으며 전선에서는 한방을
쏘고 격발기를 절걱거리야 겨우 또 한방을 쏘는
우리의 장총마위는 기다리지도 않고 전쟁을 끝내
버릴것이며 우리는 공연히 가고있을지도 모른다
는 《걱정》까지 불러 일으켰다.

그때 물론 나는 이 전쟁이 얼마나 계속되고 가
렬처절해질것인지를 상상도 할수 없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남으로 걷고 또 걷던 무더
운 밤길이 선히 떠오른다.

우리는 적비행기의 점점 더 심해지는 폭격때문
에 낮에는 산속에서 쉬고 밤에 행군하였다.

어둡기 시작하면 도로는 헤아릴수 없이 다종다
양한 각종 대렬이 남으로 세차게 굽이쳐가는 강
으로 변하곤 했다.

자동차행렬, 달구지행렬, 우리같은 보충병대렬,
포탄상자와 탄약상자를 이고 진 남녀로소들, 자
동차면 자동차, 닥치는대로 바꾸어 타는 군인들,
사민들...

온 나라가 전선길에 펼쳐나선듯 한 밤이었다.
사실 그때 자기 집에 편안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
었던가.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으로 온 나라가 숨쉬었
고 전선길에 펼쳐나섰다.

그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마났다 헤어질 때면
《남해바다에서 다시 만나자!》하는것이 작별인사
였다. 남해바다, 남해바다는 승리의 상징이었고
통일의 상징이었다.

먼지구름이 밤하늘을 가리운 무더위속으로 모
든 사람들이 남쪽하늘을 바라보며 걷고 또 걸었
다. 남해바다로, 남해바다로...

그 밤길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미는듯이
아파온다.

이제까지의 모든 생활도 꿈도 뒤에 두고 전선
길에 나섰던 사람들, 그들속에는 폐장감으로 공
화국기발을 만들어들고 집을 떠난 처녀들도 있었
고 첫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애 어린 젊은이들
도 있었다.

까맣게 탄 얼굴로 남해바다가 기다리고있을 남
쪽하늘을 눈 아프게 지켜보며 먼지구름속을 걷고
걸었다.

한걸음만 더 내짚으면 밟을듯싶던 남해기슭.

그러나 그 기슭은 종시 우리앞에 나타나지 않
았다.

남해바다여! 너는 정녕 어디에 있었던가. 얼마

나 많은 사람들이 통일조국의 바다로 될 너를 향하여 걷고걸었던가.

지금 생각해보면 남해기슭, 통일의 기슭은 남해바다가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속에 있었다. 누구나 승리의 기슭, 통일의 기슭을 가슴에 안고 걸었다. 통일의 상징, 남해바다는 우리가 그곳에 이르러야 펼쳐질 바다였다.

이것은 지금이야 떠오른 생각이다. 그때는 그저 《남해바다로!》하는 한가지 생각뿐이었다. 금시 남해바다에 이를듯만 싶었다....

우리는 락동강기슭에 이르러서야 배치받은 부대를 가까스로 따라잡았다.

부대에서는 우리를 중대들로 갈라보냈고 중대에서는 또 분대별로 갈라보냈다. 결국 분대에까지 이르렀을 때에는 나혼자로 되었다.

그런데 내가 분대에 이르러 겨우 인사를 마쳤을 때 1시간후에 도하출발계선으로 진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전투... 전투다!

나의 가슴은 후두둑 떨렸다. 긴장과 불안, 공포로 온몸이 조여들었다.

누군가 나의 어깨를 툭 쳤을 때 나는 경충 뛰어들었다.

돌아보니 경기관총을 멘 상등병이었는데 체격도 경기관총처럼 격두룩했다. 분대장은 그를 순재상등병이라고 소개했었다.

그가 떨리는 나의 마음을 말짱 들여다본것 같아 나는 당황망조했다. 그런데 그는 나를 아래위로 훑어보더니 쫓하고 혀를 차며 나의 군복상의를 툭 건드렸다.

《벗으라구.》

《예?》

《상의를 벗으란 말이야.》

나는 더욱 당황하여 상의를 머리위로 끌어올려 벗었다. 명령대로 할수밖에 없었다. 왜 벗으라는 것일까?

그는 아무말없이 내 손에서 군복상의를 툭 채가더니 감나무밑에 (그 고장에는 감나무가 무척 많았다.)털썩 주저앉아 상의의 목달개를 잡아뜯었다.

《이걸 목달개라고 달고 다녀?》

사실 목달개는 쭈그러진데다 먼지와 땀으로 군복보다 더 짙은 누런색을 띠고있었다.

순재상등병은 자기의 배낭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었다.

수첩갈피에서는 빨아서 착착 접어넣은 하얀 목달개가 나왔다. 그는 그것을 내 군복 목깃에 갖다대며 나를 쳐다보았다.

《왜 그렇게 서있나? 앉으라구!》

《일없습니다.》

《앉으라는데! 군대란 버티고 서있거나 뛰거나 옆드려있을 시간은 많아두 이렇게 퍼더버리고 앉아있을 시간은 거의 없어. 앉으라구!》

나는 그의 옆에 쭈크리고 앉았다.

《전투를 앞둔 군인의 목달개가 이렇게 어지러워야 되나?》

《...》

전투와 목달개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는 목달개를 날랜 솜씨로 달아나가며 말했다.

《목달개 다는게 시끄럽지? 쭈글쭈글해지지 않나하면 발고랑처럼 들쭉날쭉해지고... 하지만 괜찮아. 두세번 달아보면 요령을 알게 되니까. 군대란 항상 외모가 단정해야 해.》

그의 군복 목깃에서는 목달개가 별에 탄 역센 목덜미와 대조되어 눈부실 정도로 새하얗게 보였다.

《그건 왜서인가 하면 우리 인민군대이기때문이야. **김일성**장군님의 군대란 말이야. 온 남녘땅인민들이 우리를 보고있다는걸 알아야 해.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싸움을 잘하는 병사는 외모도 단정한 법이라고 하셨다네. 전투를 앞두었을 땐 더욱 그렇지. 군대란 전투를 위해 사는게거든. 구접스런 모양으로 전투에 나가면 적들이 막걸리군대가 온줄 알게거든. 안그래?》

그는 군복을 탁탁 털어 나에게 내밀었다.

《입으라구.》

나는 입었다. 반듯하고 탄탄하게 달아진 하얀 목달개가 목에 산뜻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그때까지 불안스레 후두둑거리던 가슴이 조용히 가라앉음을 느꼈다. 자그마한 목달개의 힘에 나는 새삼스레 놀랐다.

《괜찮아, 걱정할건 하나도 없어.》

그는 《괜찮아》라는 말을 즐겨했다.

순재상등병은 배낭주머니에 목달개를 꺼냈던 수첩을 다시 쑤셔넣으며 말했다.

《저놈들에게 땅크요, 대포요 하는것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에게엔 그런걸 다 파철로 만들어버릴 더 위력한 무기가 있어, 가장 위력한 무기가.》

《알고있습니다.》

천리길을 오면서 그것을 확신한 나였다.

《알고있따구?》

순재상등병은 놀랜 기색으로 나를 건너다보았다.

《동문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나?》

《중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래? 역시 공부한 사람이 다르구만. 난 술한 전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야 겨우 그걸 알게 되었는데...》

하고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난 겨우 성인학교밖에 못다녔어. 열한살때부터 소년공으로 일했으니까. 소학교문전에도 못가본건 물론이구. 8.15해방도 알쥔한 문맹자로 맞았지. 공장에 성인학교가 생겨서야 글을 배웠네. 그때부터 책도 읽어보았구. 그런데...》

그는 활기를 띠었다.

《읽어보니 책이라는게 정말 굉장한것이더구만.

책에는 없는게 없더라 말일세. 나는 책을 읽으면서야 세상을 쭉- 볼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네.》

하고 그는 《세상을 쭉- 볼수 있게 된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나도 그를 따라 하늘을 쳐다보았다. 무더위에 헐떡이는듯 한 구름장이 드문드문 떠있는 하늘로 적폭격기편대가 요란스럽게 와르릉대며 북쪽으로 날아가고있는데 머리우에서는 불뚝없이 날아가고있는 그것들의 모양을 비웃기라도 하듯 잠자리 몇놈이 맴시있는 곡선을 그리며 유유히 날아들고있었다.

《그때 난 이 세상에 있는 책이란 책을 다 읽기로 결심했네. 그런데 덜컥 전쟁이 일지 않았겠나.》

그는 다시 한숨을 내뿜었다.

《괜찮아. 전쟁이 끝나면 마저 보게 될테니까.》

하고 그는 목달개를 끄집어내던 수첩을 다시 꺼냈다.

《그때 보던 책에서 베껴두었던건데...》

매듭이 진 큼직한 손이 얇은 수첩장을 조심스럽게 뒤지는 모습은 왜서인지 미소를 자아냈다.

《들어보겠나?

봄마다 봄마다
불어내리는 락동강물
구포벌에 이르러
넘쳐넘쳐 흐르네
흐르네 에-헤-야-
...

천년을 산 만년을 산
락동강! 락동강!
하늘가에 간들
꿈에나 잊을소냐
잊힐소냐 아-하-야-

아마 사람에겐 예감이라는데 있는가부야. 그때에야 내가 이렇게 락동강을 도하하게 될줄 알타이 있었나? 그런데도 부디부디 이 시를 끌라 써두었거든.》

많은 세월이 흘러간 지금도 나는 그날 순재상등병이 펼쳐놓았던 긴 이야기를 회상하면 고마운 마음을 금할수 없다.

그는 자기의 이야기로 불안으로 떨고있는 나의 마음을 안정시켜준것이었다.

석암이 꺼지자 강변은 어둠속에 잠겼다.

방금전까지 석양을 담고 기운차게 번쩍거리던 갈나무잎사귀들이며 강안에 무성한 갈대숲은 모두 컴컴한 하나의 색조속에 녹아버렸다.

강의 수면안은 석양의 잔광을 그냥 담고있는듯 희끄무레한 색조를 띠고 때때로 반디불같은 빛을 발산하며 출렁거리고있었다.

나는 그것이 별빛 총총한 하늘이 수면에 내려

왔때문임을 얼마후에야 깨달았다.

맞은편 기슭은 정적과 어둠에 싸여있었다. 그곳에는 미군 한개 편대가 방어전열을 차치하고있었고 땅크, 장갑차, 포들이 집결되어있었다.

허나 나의 주위에서는 내가 메고있는파위의 총창 꽃힌 보총, 기껏하여 기관총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나는 아직 강대안의 적진을 짓밟개버릴 기본화력수단들은 도착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 무기가 도착하여야 도하공격이 시작되리라고 생각하였다.

《뭐? 뭐? 이런 얼뜨기라구야!》

순재상등병은 나의 생각을 듣고 화를 냈다.

《우리 무기란 바로 이 총창이야. 그리고 우리 자신이구! 병사는 자기의 총대를 믿어야 하는거야!》

나는 그가 더 화를 낼가봐 얼른 《알았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는 않았다.

나는 전선을 따라잡으려고 걷고 또 걸던 8월의 폭양이 뜨겁게 내리지지는 길, 이르는 곳마다에서 부서져 나뒹굴던 포차와 대포, 땅크들, 엠완총, 기관총들을 잊지 않고있었다.

그것은 량적으로도 온 남조선땅을 포구와 총구로 가득 채울만한 량이었다.

나는 우리의 도하를 보장할 위력한 무기가 주위 어딘가에 있으리라는데 대하여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땅크, 장갑차, 대포의 숲을 순식간에 파철더미로 만들어버릴 무기의 존재를.

싸움을 앞둔 병사는 아군에게 가장 위력한 무기가 있다고 간절히 믿고싶어한다. 그리고 아군의 무기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더우기 나는 그때 첫 전투에 립한 열여덟살의 애송이 병사였다...

강은 그곳에서 두 갈래로 흘러내리고있었다. 두 강줄기사이에는 넓은 모래벌이 펼쳐졌다. 낮에 모래벌을 바라보느라 아물아물 피어오르는 뜨거운 기류와 운모조각의 반짝거림으로 눈이 아팠다. 어느해의 홍수가 만들어놓았는지 알수 없는 하얀 모래벌은 몸을 숨길만한 언덕이나 기복도 없이 상류에서 하류로 눈이 모자라게 펼쳐져있었다.

그 모래벌이 우리의 도하작전에서는 도하기재를 리용할수 없게 하는 《암초》였다. 첫 물줄기는 도하기재로 건는다해도 중간의 모래벌까지밖에 쓸수 없었다. 두번째 물줄기까지 그것을 끌고 갈수는 도저히 없었다.

우리는 부득불 최대한의 은밀한 행동으로 기습적인 강행도하를 단행할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이 밤으로 건너편 기슭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기본주력의 도하를 보장해야 하였다.

그러나 순재상등병은 역시 《괜찮아》였다.

한 구대원이 《강물은 왜 여기서 두개로 갈라져 골탕을 먹인담.》하고 침울하게 말했을 때 그는 이미 생각해두기라도 했던듯 대답했다.

《괜찮아. 락동강에서 두번 목욕하는셈 치세나. 땀도 씻고…》

그러더니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목욕하는건 좀 생각해봐야겠구만, 응? 언제 땀을 씻을 사이가 있을라구? 남해바다가 지척인데… 그곳에 공화국기발을 꽂아놓고 땀을 씻어야지. 바다물에…》

어둠속에서도 나는 그의 눈가에 떠오른 미소를 보는듯 했다. 같이 지낸지는 몇시간밖에 안되었으나 나는 그를 썩 오래전부터 알고있었던듯만 했다.

《남해바다물은 파스할거야.》

나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있는 자신을 깨달았다. 그러자 그에 대한 더 크나큰 존경과 친근감을 느꼈고 나자신에 대한 일종의 대견스러움을 느꼈다.

침울하던 구대원의 어조에도 미소가 어린듯 했다.

《다음엔 뭘하겠나?》

《뭘하다니? 할일이 여북 많다구? 토지개혁도 하고 인민위원회도 세워야지. 미제놈들이 다 해산해치웠다는데…》

《다음엔?》

《다음에야 장가를 들어야지, 남해쳐녀한테!》

《그럼 그곳에서 살겠나?》

《무슨 소릴? 고향으로 가야지!》

《쳐녀가 따라가겠다고 할가? 남해바다가 그렇게 좋다는데…》

《좋지. 크고작은 섬들이 셀수없이 많은데 그 섬들이 모두 푸른 꽃송이처럼 보이지. 바다와 함께 출렁거리고 다도해라고도 하지.》

나는 그것도 역시 모두 그가 책에서 얻어낸것임을 알고있었다. 그는 책에 써여있는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있었다. 이 세상에 진실을 쓴 책못지 않게 진실을 모르게 하려고 만들어진 책도 적지 않다는것을 그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있었다.

《그렇지만 괜찮아.》

그는 레의 《괜찮아》로 말을 뱉었다.

《암만 좋아도 바늘 가는데 실 안갈라구?》

얼마나 여유작작한가. 나는 그밤에는 그 여유작작함의 원인을 내식으로 생각했다. 저들은 아군의 가장 위력한 무기가 도하를 보장해주리라는 것을 알고있는것이 분명하다. 모르는척 할뿐이다. 군사비밀이기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밤하늘의 별들은 이밤따라 류달리 총총해보였다. 하도 명롱하고 안온해보여 나는 까닭모를 동정심까지 느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있구나.)

이제 총포성이 정적을 깨뜨리며 터지면 그 별들은 놀래여 산산이 흩어지거나 와르르 쏟아져내릴것처럼 생각되었다.

《준비!-》

긴장으로 팽팽해지는데 그런 속에서도 순재상등병은 나에게 분주히 수군거렸다.

《괜찮아. 내결에만 바짝 붙어있으라구 그럼 아무일도 없을테니까. 내가 얼마나 운수좋은 사람인지 모르지? 술한 잔투를 겪었지만 손톱눈 하나 다친적 없다네. <운수좋은 상등병>이라면 부대 장아바이까지 알고있지. 내옆에 바짝 붙어있으라구. 알았나?》

그때 구령이 들렸다.

《앞으로!》

조용하던 강물이 소란스레 술렁거렸다. 수면에 떠있던 벌들은 놀랜듯 사방으로 흩어지며 황급히 전사들의 총창과 철갑모에로, 옷자락으로 숨어들었다. 싸늘한 물의 감촉…

대안은 조용하였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진공지대처럼 어둠만 자유히 서려있었다. 그 정적이 진공속에 들어간듯 숨가쁘게 했고 심장이 더 조여들게 했다.

은밀히 강행하는 기습도하, 포병준비사격도 없었고 《만세》의 함성도 없었다. 극도로 소리를 죽여가며 헤쳐가는 물소리, 강물은 마치 잠에서 깨어나 시름겨운 한숨을 쉬는듯 했다.

마침내 모래불에 이르렀다. 아직도 더운 열기가 확확풍기는 모래불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쉼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우에서 불빛이 터져내렸다. 조명탄이었다. 적들이 차지한 대안에서 불줄기가 쏟아져나왔다. 탐조등불빛이 모래불을 비자루처럼 휩쓸기 시작했다.

본능적으로 엎드렸다. 그러나 멈춰서지는 않았다. 뜨거운 모래불을 포복전진으로 기여나갔다.

《동무들!… 앞에는 남해바다가 있다! 앞으로!》

하고 웨친것이 중대장일가, 혹은 분대장일지도 몰랐다. 아니, 온 도하대오가 그 말을 되뇌이며 앞으로 나가고있었다. 나도 역시 자기가 그 말을 줄곧 되뇌이고있음을 깨달았다.

《앞으로… 남해바다가로… 앞으로…》

나는 나도 앞으로 나가고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귀전에서 벼락치는듯 한 목소리가 울렸을 때 내가 모래불에 머리를 처박고 움직이지 못하고있음을 깨달았다.

《머리를 들어!》

순재상등병이었다. 그의 두눈은 불이 쏟아져나오는 총구멍같았다.

나는 머리를 들었으나 도로 처박았다. 총알은 나의 머리만을 향해 날아오는것 같았다.

이제 아군의 위력한 무기가 불을 토하리라. 대안의 적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리라. 어서 시작했으면! 그러나 쏟아진것은 위력한 무기의 포화가 아니라 순재상등병의 추상같은 불호령이었다.

《머리를 들란 말이야! 자기앞을 똑바로 봐! 병사는 자기앞에 날아오는 총알을 면바로 마주보는 눈을 가져야 해. 그러면 총알도 피해간단 말이야! 어서!》

나는 천근만근 무겁게만 느껴지는 머리를 가파스로 쳐들었다. 모래볼로 머리를 끌어당기던 거대한 인력, 그것은 공포의 인력이었다. 순채상등병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 《인력》을 이겨낼수 없었을것이다.

머리를 들었다. 총알들이 귀전으로 휘파람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그러나 머리는 무사했다.

《앞으로!》

정말로 총알은 나를 피해가고있는것일가. 나는 순채상등병을 따라 모래볼을 기여나갔다. 때때로 돌아보는 그의 얼굴이 왜 그리도 큰 힘을 주었던가. 폭풍에 휘뿌러지는 모래알들이 잘디 잔 파편처럼 얼굴에 날아와 박혔다.

《앞으로... 앞으로》하면서 기여나가는 순채상등병의 얼굴은 피가 내배여 다른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다.

불처럼 달아오른 모래볼이 손과 가슴을 지저뒀다.

아, 이밤의 모래볼. 그것은 얼마나 멀어보였던가. 기고 또 기여도 끝나지 않았다. 조명탄불빛과 탐조등 불빛은 모래볼을 계속 끝없이 펼쳐놓는 것 같았다.

나는 순채상등병을 잃고말았다. 그저 기여나갔다. 기고 또 기였다...

소낙비같이 쏟아져내리는 물보라속에 들어섰을 때에야 나는 모래볼이 끝나고 두번째 강줄기에 들어섰음을 깨달았다.

그것을 넘어서면 강의 맞은편 기슭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남해바다로 갈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못별이 총총히 내려앉아 있던 그 강이 아니었다. 강은 포탄과 총탄이 일으킨 거품으로 부글거리고 화염으로 끓어번지고 있었다. 불타고있었다.

물은 키를 넘었다. 물에 들어서서 얼마간 헤어나가던 나는 포탄이 일으키는 물기둥에 휘말려 떠올랐다가 떨어졌다. 나는 헤엄을 꽤 치는 편이었다. 그런데 물속에서 숨구쳐오를수 없었다.

아무리 손발을 저어도 강바닥은 나를 들어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적들이 도망치면서 내버린 대포의 포신이 배낭과 잔등사이를 갈구리처럼 꺾여 잡은것이였다. 숨이 막혔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어릴 때 물에 빠진 나를 건져내여 세워놓고 종아리를 치던 아버지가 눈앞에 떠올랐다.

《이녀석! 개헤염도 제대로 못치며 물에 뛰어들어 동네를 소란케 해?》

그때 누군가의 손이 말코지에서 옷을 벗기듯 나를 포신에서 벗겨내여 물위로 밀어올렸다. 다시금 가마속처럼 끓어번지는 붉은 강물이 눈앞에 펼쳐졌다.

《죽기는 일러. 친구... 앞으로!》

귀에 익은 음성이었다. 순채상등병이었다. 그는 그 《끓는 가마》속에서도 나를 놓치지 않고있었

던것이다.

그의 손이 앞으로 연신 떠밀었다.

《빨리... 최고사령관동지께서 ... 보고를... 기다리고... 계서... 빨리!...》

그의 목소리는 총포소리속에서 줄곧 이어지며 나에게 숨돌릴 여유를 주지 않았다.

《앞으로!... 앞으로!》

그런데 갑자기 그 목소리가 끊어지더니 떠밀던 손에서 맥이 탁 풀리는것이 느껴졌다.

나는 급히 돌아보았다. 그가 물속으로 잠겨들고있었다.

《상등병 동지!-》

다급히 손을 내밀어 붙잡았다. 물속에 잠겨들었던 머리가 솟아올랐다. 주위의 물은 붉게 물들고있었다.

《괜찮아. 남해바다가 코앞인데 ... 난 죽지 않아.》

경기관총을 틀어잡고 앞으로 헤어나가는 그의 뒤로는 붉은 물줄기가 붉은 신호탄처럼 꼬리를 꼬이며 따라가고있었다. 물우어로 쳐들린 경기관총구가 후들후들 떨며 앞으로 움직어나갔다. 그 총구는 불을 뿜을 열망으로 그렇게 떨리는듯 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앞으로!-》

피를 뿜는듯 한 목소리가 대안에서 울리고있었다. 중대의 선두가 대안에 올라선것이였다.

경기관총의련발사격이 적진을 누벼대기 시작했다.

《만세!-》

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갈망하던 시각이 닥쳐왔다. 굳은 땅에 올라서서 총탄과 수류탄을 퍼붓고 총창과 총탁으로 백병전을 벌리기만 바라던 그 시각이...

키가 구척이나 되는 미군놈이 총구를 나에게 돌려대며 별떡 일어섰다. 나는 그 총구가 앞으로 돌아오기전에 총창을 힘껏 내질렀다. 적병은 털썩 쓰러졌다. 혹은 나의 총창보다 앞서 누군가의 총알이 그자를 쓰러뜨린것인지도 몰랐다.

허나 그것은 중요치 않았다. 나에게 달려들던 두억시니같은 미군놈이 내앞에서 쓰러졌다는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만세!-》

수류탄과 총탄, 함성과 놈들의 비명, 부서지고 터지는 소리, 더 높아지는 함성, 적들이 허둥지둥 전호에서 뛰쳐나왔다. 전호는 놈들의 무덤으로 변했던것이다.

경기관총의련발사격이 부채살처럼 누비며 전호에서 뛰쳐나와 도망치는 적들을 쓰러눕혔다.

《만세!》

총포성은 터져나올 때처럼 갑자기 멎었다. 갑작스런 정적에 주위를 둘러본 나는 그제야 우리가 대안을 점령했음을 깨달았다. 여기저기에서

뒤집혀져 불타고있는 포차들과 대포들, 장갑차들, 널려있는 시체들, 장작개비처럼 가로세로 내던져진 보총, 자동총, 기관총들...

그 파철더미로 변한 무시무시한 현대적무기들의 사이에 나는 총창꽃한 보총을 들고 서있었다. 한발을 쏘고는 격발기를 당겨 퇴탄하고 다시 장탄해야 하는 보총 그리고 총창...

파연 우리가 이 총창으로 이 어마어마한 철갑의 적진을 짓몽갠단 말인가. 믿기 어려웠으나 그것은 진실이었다. 아, 나의 이 총, 나의 이 몸에 이렇듯 큰 힘이 있었던가. 순재상등병의 말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우리예젠 미제놈들의 그 어떤 신형무기도 이길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있단 말이야! 그 무기가 바로 이 총창이야. 그리고 동무자신이구! 병사는 자기 총대를 믿어야 해!》

그런데 순재상등병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까 적진에 경기관총사격을 퍼붓던 그곳에 그대로 엎드려있는 순재상등병이 보였다.

나는 그에게로 달려갔다.

《상등병동지! 적들이 도망쳤습시다! 우리가 이겼습시다!-》

순재상등병은 경기관총 총탁에 머리를 펴군채 아무 대답도 없었다.

《상등병동지!》

나는 그의 몸을 흔들었다. 그러자 손안에서 경기관총이 푸들푸들 떨며 총탄을 내뿜었다. 그는 이미 숨이 저있었다. 손이 경기관총 방아쇠에 걸린채 굳어져있었다. 나는 목이 짹 막혀버리는듯했다.

《상등병동지! 상등병동지!》

대답은 없었다. 흔들 때마다 대답소리대신 기관총의 예리한 총성이 정적을 깨뜨리며 높이 울릴뿐이었다.

따-따-따-따-

그는 적들에게 채 쏘지 못한 총탄을 숨이 저서

가사

도 계속 쏘고있는것이였다.

《아!》

그 총성은 하늘과 땅에 부딪쳐 메아리치면서 나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 총탄은 멀리로 날아가는것이 아니라 한알한알 나의 심장속에 장진되어 들어왔다.

아득한 메아리를 불러오는 총성은 출렁거리는 강의 수면과 모래불로 퍼져갔다.

피로써 넘어온 모래불과 강... 그 모든것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있었다. 피빛처럼 붉었다.

그 붉은 강물과 붉은 모래불로 부대의 주력이 건너오고 있었다. 우리 중대가 열어놓은 길이였다. 혈로였다.

나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도 붉게 피빛으로 물들어있었다.

그제야 나는 아침이 밝아오고있음을 깨달았다.

아침노을이 하늘과 땅, 강, 모래불을 질은 붉은 빛으로 물들이고있었다. 나에게는 그 모든것이 전우들이 흘린 피로 하여 붉게 물든것처럼 느껴졌다. 아침 노을은 마치 결사전으로 지새인 밤의 불길인 하늘을 물들며 피어오른것인듯 했다. 그때 나에게는 아침노을이 꺼지고 많은 세월이 흘러도 강물과 모래불은 여전히 붉게 물들어있을것 같이 생각되였었다. 아, 그 밤의 붉은 모래불, 붉은 강물...

오늘에 와서도 그것을 생각할 때면 나의 귀전에서는 하늘가에 올라가며 한방한방 나의 가슴속에 장진되어 들어오던 총성의 메아리와 함께 조용히 읊조리던 갈린 목소리가 생생히 되살아나군 한다.

천년을 산 만년을 산

락동강! 락동강!

하늘가에 간들

꿈에나 잇을소냐

잇힐소냐- 아-하-야-

최고사령관동지 감사를 주시였네

박두전

병사마다 일당백 펄펄 나는 싸움군
훈련에서 우를 맞은 무적의 부대라네
만단의 전투준비 다 갖춘 우릴 보며
최고사령관동지 감사를 주시였네

사품치는 강물도 단숨에 건느고
그 어떤 대적도 일격에 짓부시리
멸적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우릴 보며
최고사령관동지 감사를 주시였네

백두령장 그 믿음 받아안은 철의 대오
신군혁명승전고로 천하를 떨치리
결사용위 총검으로 철진을 친 우릴 보며
최고사령관동지 감사를 주시였네

아 영광넘쳐라
장군님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리

백두산의 징벌

개성이라고 하면 누구나 우리 나라 땅에 근 500년동안이나 존재했던 강력한 통일국가인 고려의 도읍지를 생각하게 된다.

원래 고조선에 속해있던 개성은 고구려때에는 동비홀, 부소압이라는 두 고을로 갈라져있었고 그후 이름을 바꾸어 동비홀은 개성군으로, 부소압은 송악군으로 부르다가 918년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이곳에 도읍을 정한때부터는 두 군을 합쳐서 개주 또는 개경이라고 하였으며 때로는 황도라고도 하였다.

그러던것이 1392년 이성계가 정권을 쥐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뒤부터는 송경, 중경 또는 송도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이렇게 오랜 력사와 문화를 가지고 번창해오던 개성은 일제의 강점으로 자기의 빛을 잃고 바다 건너에서 기여든 왜놈들의 세상이 되고말았다.

일본 헌병대요, 경찰서요 하는따위의 왜놈관청들이 들어섰고 왜촌, 왜거리들이 생겨나서 옛 도읍지의 변화하던 거리로는 칼을 찬 군경들이 돌개바람을 일으키며 말을 몰아가고 호젓하고 아늑하던 골목길에도 왜사내, 왜계집들의 게다짝소리가 귀따갑게 울리었다.

북으로는 평양이 500여리요, 남으로는 서울이 멀지 않고 동으로는 원산, 서쪽으로는 해주에로의 왕래가 편리한 곳이어서 예로부터 상업이 활발했던 이 도시에는 왜놈장사군들이 다투어 밀려들어 점방들을 차려놓고 일본의 녹거리물건잡들을 가져다 비싸게 팔아먹고는 대신 이곳의 유명한 고려인삼이며 고려자기요 하는 진귀한 보물들을 모조리 긁어갔다.

더구나 우리 민족의 자랑찬 력사와 함께 전해지던 문화재에 대한 파괴와 약탈은 참으로 악랄하였다.

결발림으로는 허울쫑게 고려시기의 문화재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개성보승회》라는것을 내오고 공민왕의 묘지까지 파헤쳐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고려청자기와 청동거울을 비롯한 수많은 재보들을 로략질해갔다.

빼앗아가고 또 빼앗아가다못해 나중에는 《징용》이요, 《보국대》요 하면서 청장년들을 닥치는대로 끌어갔으며 송악산의 송진과 집집의 낫수저, 아낙네들의 비녀나 가락지까지 빼앗아갔다.

실로 개성은 땅도 왜놈땅이 되고 물도 왜놈물이 되었으며 나무 한그루, 풀 한대도 왜놈의것이 되고말았다.

빼앗긴 땅, 빼앗긴 옛 도읍은 빛을 잃고말았다. 성벽위에 높이 솟아서 위풍을 돋구던 루각들과 만월궁이요, 성균관이요 하는 고색창연한 유적 유물들은 옛 수도의 면모를 더욱 무게있고 엄엄하게 하던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도시를 침침하고

음울하게 만들었고 쓸쓸하고 서글픈 느낌만 자아내게 하였다.

하긴 조선천지가 통채로 일제의 서슬푸른 《일본도》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철쇄에 칭칭 묶이워 철창없는 감옥으로 변해버렸으니 고려의 옛 도읍지라고 어찌 달리 될수 있겠는가.

조선땅을 타고났은 첫 순간에 벌써 《조선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내놓고 선포한 놈들이니 더 말을 해서 무엇하랴.

고려의 옛 도읍지는 겨레의 붉은 피로 물들고 나라잃은 민족의 설음과 짓밟힌 겨레의 통탄으로 가득차있었다.

어제는 만월대뒤골목에서 《징용》에 끌려갔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소리가 밤새도록 처량하게 들리고 오늘은 송악산기슭의 어느 집에서 《보국대》에 끌려갔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고 목놓아 통곡하였다.

바로 이런 개성땅에 놀라운 전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는 전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봄날 밤이었다.

자남산밑 외진 골목의 어느 집에서 가슴 터지게 통곡하는 아낙네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밤깊도록 그치지 않았다.

어찌나 울었는지 이제는 목이 짝 잠겨서 거의 신음에 가까운 소리를 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지. 이렇게 원통할데가 또 어데 있겠소. 낫바리, 낫술가락 다 빼앗아가구 손가락에 끼였던 은가락지까지 뽑아가고도 모자라서 생때같은 애아버지 목숨까지 빼앗아간단 말이나?

아이고... 애고... 원통해서 못살겠소.》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아낙네앞에는 다 찌그러져가는 개다리상이 하나 놓여있고 그우에는 지집조박이 담긴 접시 두개와 밤사발뚜껑우에 멩그라니 올라앉은 술잔 하나가 놓여있다.

담벽에는 사진 한장이 없어서 이름 석자를 써붙이었다.

《현고학생 리씨 학준》이라고 썼으니 리학준이라는 사람이 너인의 남편이었던 모양이다.

조객들은 같이 눈물을 삼키며 술 한잔을 부어놓고는 향불그릇에 향나무조각들을 집어넣고 절을 했다.

그리고는 아낙네를 위로했다.

《아주머니, 그만하시우. 이놈의 세상이 오래가기야 하겠수? 강심을 먹고 살아갑시다.》

그 말에 아낙네는 설음이 더욱 북받쳤던지 울음소리가 더 높아졌다.

《아이고 내 팔자야. ...강심을 먹은들 무슨 수로 살겠소. 생때같은 사람을 하루아침에 잡아다

가 시체로 만들어놓은 마귀같은 이놈의 세상에서 권것 없고 권세없는 우리같은 가난뱅이들이 어떻게 산단 말이우... 아이고... 아이고...》

이때였다. 문밖에도 낯선 조객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키가 후리후리하게 큰데다가 운두가 없는 모자를 눌러썼는데 다리에는 행전을 치고 덧저고리에는 허리끈을 질끈 동이였다.

《아니?》

방안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덧저고리며 갑발이며 그 차림새가 겨울행색인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의 모자와 어깨에 눈이 하얗게 얹혀있는것이 더욱 놀라왔기때문이다.

지금이 어느때인데 눈이란 말인가? 조객들은 잘못 보지나 않았나 해서 다시 눈정기를 가다듬었다.

그런데 조객은 또 놀라운 소리를 한다.

《이거 늦어서 미안합니다. 허, 떠날 땐 눈이 펄펄 내렸는데 여기 오니 여름이 다 된것 같습니다.》

조객은 모자와 덧저고리의 눈을 문밖에 대고 털어버렸다

떠날 때 눈이 왔다면 몇달전 겨울에 떠났다는 소린데 그럼 그때 벌써 학준이가 죽었다는 기별을 받았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때 맞은 눈이 아직도 녹지 않고 모자와 어깨우에 얹혀있단 말인가?

좌중은 도무지 알수가 없어서 새 조객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아무리 눈여겨보아도 조객은 생면부지의 낯선 손님이요, 어깨와 모자에 쌓였던것은 눈이 분명하였다.

《언제 떠났길래 눈이 올 때 소리를 하오?》

나이든 사람이 의혹을 금치 못해 물었다. 그의 말투에는 실없는 소리 작작하라, 대포를 쏘아도 비슷한 소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색조가력연히 느껴진다.

혹시 하느님이 조화를 부려 이 아근의 어데인가에 때아닌 눈이라도 내렸단 말인가?

《그리구 도대체 떠나기는 어디서 떠났다는 말씀이요?》

나이든 조객이 런이여 물었다.

그런데 이젠 또 무슨 소린가?

《백두산에서 떠났습니다. 이른 저녁을 먹고는 곧 떠났는데...》

《뭘뵈? 백두산? 이른 저녁을 먹구 떠났다고?》

좌중은 그만 입을 딱 벌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운 빛보다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는 빛이 더 진했다.

글쎄 백두산에는 하지목에도 눈이 내릴 때가 있다니 눈이 내릴 때 떠났다는건 그런대로 믿는 다치고 몇천리나 되는 길을 저녁술가락을 놓자마자 떠났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는것이다

그쯤 빨리 왔으면 백두산에서 맞은 눈이 채 녹지 않은채로 있을 법도 한 일이지만...

그러나 수리개도 그렇게는 빠르지 못할것이다.

조객들이 수수께끼같은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서 술렁거리는데 아낙네는 그저 껴끼어 울기만 한다.

이때에야 새로 찾아온 조객에게 술 한잔 붓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좌중은 자리를 내주었다. 조객은 제상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지고온 배낭에서 소주한병을 꺼내어 술잔에 찰랑찰랑 부어놓고는 분향재배를 하였다.

《백두산에서 오셨다니 뉘신지? 고인하고는 어떤 사이인지 알고 지내야 이후에 만나더라도 인사소통이 되지 않겠소?》

나이든 조객이 좌중을 대표하여 또 물었다.

《차차 알게 되겠지요. 그런데 리형을 그 악귀같은 구마무라놈이 죽였대지요?》

백두산조객은 어떻게 알았는지 본격을 감추지 못하며 좌중에게 물었다.

《참 원통하구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글쎄 저놈들이 태평양전쟁인지 뉘지 일으켜놓고 쫓은이란 쫓은이는 다 빼앗아가지를 않겠소. 그것도 모자라서 아낙네들의 손가락에서 은가락지까지 빼냈수다. 그뿐입니까? 헌납금을 내라, 광술기름을 내라, 공출을 내라 날마다 찾아와서 행패질이웨다. 죽은 학준이 그 사람이 하도 딱해서 <이젠 죽인대도 널것이 없수다.> 하구 대답질을 했더니 경찰서에 잡아다가 곤죽을 만들어서 목숨까지 빼앗지 않았겠소.》

나이든 조객은 말끝을 겨우 마무리고는 《혹》하고 울음을 터치며 돌아앉았다.

《이곳 경찰서에서 제일 악질로 놀아먹는 놈이 구마무라라는것을 알고왔수다. 그놈을 당장 그져...》

백두산조객은 분을 삭이지 못하여 주먹을 불끈 쥐었다. 눈에서는 퍼런 불이 펄펄 일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다... 바로 그 구마무라라는 놈이 우리 애 아버지를 죽였어요. 내 그놈이 죽어자빠지는 꼴을 보면 땅속에 묻혀서도 춤을 추겠어요.》

《췌, 누가 듣겠수다. 아주머니...》

녀인이 너무도 악을 쓰며 소리치는 바람에 결의 사람들이 겁에 질려 그를 달래었다.

《아주머니, 걱정마시우. 그놈이 이제 천벌을 받을거우다.》

백두산조객은 이 한마디를 하고는 잠시 묵묵히 앉아있다가 훌쩍 자리에서 일어섰다.

《갑자기 어데를 가려오?》

좌중은 눈이 둥그래서 그를 쳐다보았다.

《잠간 나갔다 오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들 하십시오.》

백두산조객은 지고온 배낭도 벗어놓은 덧저고리도 그대로 둔채 문밖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랬다가 곧 돌아왔다. 아마 담배 한대쯤 태웠을 시간이나 됐을가...

어쩐 일인지 백두산조객이 잠간 나갔다 돌아오자 방안에는 고요가 깃들었다. 모두는 말없이 그

를 지켜보았다.

백두산조객은 모두의 눈길이 자기에게 무엇인가 묻고있다는것을 느꼈는지 입을 열었다.

《놀라지들 마십시오. 나는 **김일성**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의 눈이 화등잔만큼 커졌다.

《그게 정말이요?》

《**김일성** 장군님께서 저를 부르시어 지금 개성시의 자담산밑에서 왜놈들에게 남편을 빼앗긴 한녀인이 너무도 원통하고 기가 막혀서 통곡을 하고있는데 얼른 달려가서 위로도 해주고 원한도 풀어주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는 축지법을 쓰시어 잠간새에 여기까지 보내주시였습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갑자기 방안은 상가집 같지 않게 환희로 설레었다.

《그러면 그렇겠지! **김일성** 장군님 축지법이 아니구서야...》

《그래서 어깨의 눈도 녹기전에 개성에 들어왔군그래!》

《아따 누가 아니래?》

지금까지 목놓아 물고있던 녀인까지도 울음을 툭 그치고 꿈인듯 생인듯 물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어떻게 우리 집 일까지 아십니까?》

뒤설레던 방안이 그 말에 조금 조용해지자 백두산조객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백두산에 앉아서도 삼천리강산을 손금보듯 하시며 따듯이 보살피십니다.》

그러자 방안은 또 바람만난 갈숲처럼 술렁거렸다.

《옳거니... 이제는 우리 2천만동포가 살았수다.》

《왜놈 망할 날도 코앞이지!》

《글쎄 **김일성** 장군님께서 삼천리조선허를 따라 산책하시듯 돌아보신다더니 그게 건승 뜬소문이 아니었수다레. 허허...》

《이보라구요. 아주머니. 이젠 눈물을 뺄 씻구 기운을 내서 살아봅시다. **김일성** 장군님이 이제 천벌을 내리시어 아주머니의 원한도 풀어주실거우다.》

좌중은 그만 상가집이라는것도 감감 잊고 떠들었다.

아낙네는 또 눈물을 흘리었다. 그러나 그것은 별써 슬픔과 한탄의 눈물이 아니었다.

끝없는 흥분과 걱정속에 진정을 못하고 떠드는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백두산조객은 돌아갈 때가 되었다면서 훌쩍 일어섰다.

《안녕히들 계시우. 해방된 조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아니 벌써?!》

모두들 인사를 나누려고 하였으나 백두산조객

은 벌써 온데간데 없었다.

그가 남겨놓고 간 배낭에는 적지 않은 돈과 귀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선죽교 근방에서 구마무라의 시체가 나뒹굴고있었다.

주검우에는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하여》라고 쓰고는 그밑에는 《어떤 놈이든지 인민들을 못살게 구는자들에게는 이런 징벌이 차례질 것이다. 백두산》이라고 쓴 경고장이 놓여있었다.

경찰서는 불난 집처럼 발각 뒤집혔다.

학준이네 집에 조상을 왔던 사람들은 구마무라가 시체로 변한 까닭을 알고도 남았다. 학준의 안해는 더 말할것도 없고 마을사람들은 삼복철에 얼음꼬치를 삼킨것만큼이나 속이 시원해하였다.

개성의 골목골목에서는 사람들이 마주서기만 하면 구마무라의 죽음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범인》을 잡는다고 제일 앞장에 서서 날치던 야마모도네 집대문에는 이런 경고장이 또 날아와 붙었다.

《주의하라 야마모도, 구마무라처럼 되고싶지 않거던. 백두산》

다음날엔 경찰서장놈의 집담벽에 그리고 서장놈이 자고있는 머리맡에도 이런 경고장이 또 날아들었다.

《함부로 날뛰지 말라. 우리는 네놈을 지켜보고 있다. 백두산》

놈들로서는 모두 가슴이 서늘해지고 등골에 얼음물이 흐르게 해지는 소리다. 이런 경고장을 받고도 《용감성》을 발휘하여 무모하게 날치는 놈은 가차없이 징벌하여 시체로 만들어버렸다.

경찰놈들은 《백두산의 징벌》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며 함부로 날뛰지 못하였다. 상부에서 내리먹이면 하는척 하다가 눈치를 슬슬 보아가며 어물어물 지내려고 하였다. 그대신 인민들은 가슴을 짝 펴고 살았다.

어쩌다 왜놈들이 못되게 굴면 《백두산에 계시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보살피신다.

분별없이 날치면 백두산이 네놈들을 가만둘줄 아느냐?》고 맞섰다. 그러면 왜놈들은 자라목처럼 움츠러들어서 피해달아났다고 한다.

악질적인 경찰이나 왜놈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일은 그치지 않고 계속 생겨났다.

그때마다 이곳 인민들은 그 까닭을 뻔히 알면서도 시치미를 툭 떼고 요새 아무개는 왜 안보이느냐고 묻곤 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왜놈들은 대답이 궁해져서 《야아, 그 사람은 천황이 불러서 갔다.》고 어물쩍 대답했다는것이다.

(흥, <천황>이 불러서 간게 아니라 황천이 불러서 갔겠지...)

인민들은 코웃음을 쳤다고 한다.

지흥길

전사복

주체89(2000)년 2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최전연에 있는 어느 한 부대의 전방지휘소를 찾으신 날에 있는 일이다.

전방지휘소로 오르내리는 길은 굽이진데가 적지않고 경사가 급한데 눈까지 내린 뒤여서 미끄럽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이렇듯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최전연에 찾아오시여 싸움준비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이어서 병사들을 찾아 떠나시였다.

그이께서 타신 야전용승용차가 경사길의 어느 한곳을 지날 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도로바닥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는것이였다.

병사들이 길우에 내린 눈을 말끔히 쓸어내고 그이께서 타신 차가 조금이라도 미끄러질세라 보드라운 흙을 깔아놓은것을 보신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병사들의 깨끗한 마음이 어려있는 도로를 한동안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병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그이께서 가시는 길우에 꽃주단을 퍼드리지는 못할망정 눈을 쓸고 흙을 깔아드리시는것은 군인들의 마땅한 도리인것이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병사들의 소행을 더없이 가혹하게 여기시며 부대책임일군들과 지휘관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자신께서 오늘 또 하나 큰 감동을 받은것은 군인들이 내가 올 날을 기다리면서 전방지휘소로 올라가는 길에 흙을 짹 깔아놓은것이라고, 흙을 얼마나 정성들여 깔아놓았는지 거기에만 눈이 내리지 않은것 같은 생각까지 들었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였다.

그러시면서 이 세상에 우리 군인들처럼 사상정신세계가 높고 자기 최고사령관에게 충실한 군대는 없다고 우리는 정말 전사복이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들은 부대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왔다.

한없이 숭고한 덕성을 지니시고 군인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그이께서 병사들이 길우에 내린 눈을 치고 흙을 깎아 일을 두고 이렇듯 고맙게 여기시며 그것을 자신의 복으로까지 받아들이실줄은 정말 몰랐기때문이다.

이렇듯 은혜로운 어버이를 우리 당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과 군인들은 복중에서도 가장 큰 장군복을 타고난것이다.

박봉운

소식

잡지 《조선문학》 주체 93(2004)년 《조선문학축전》상 입선작품

△ 소설문학작품

단편소설 《**신록이 짙어가는 계절**》 조창근
문학예술출판사 편집원
단편소설 《**뜨거운 눈**》 송출언
조선작가동맹해북도위원회작가

△ 시문학부문

시 《**따뜻한 봄의 구내길**》 류동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시조 《**어머니와 포**》 도명희
자강도 희천시 갈골동

편집부

론설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되는 선군문학의 본성과 특징

김정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다박솔초소를 찾으시여 선군정치의 거룩한 자옥을 남기신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격동적인 사변들과 영웅적인 투쟁으로 아로새겨진 이 력사적시기에 우리 문학은 선군혁명의 길을 따라 전진하였으며 이 땅우에는 선군문학의 새 력사가 펼쳐졌다.

선군문학은 우리 시대, 선군시대에 새롭게 출현한 새형의 문학이며 선군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이다.

1

선군문학은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이루는 새형의 문학이다.

선군문학이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된다는것은 이 문학이 주체사실주의문학의 사상적내용과 예술적형식, 형상화의 원칙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시킨 문학이라는 것을 말한다. 선군문학은 주체사실주의문학이 이룩한 사상예술적성과와 창작경험을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선군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상미학적문제들을 내세우고있는것으로 하여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로 되고있다.

선군시대에 새롭게 창조발전되고있는 문학, 선군문학이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되는것은 이 문학이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구현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선군문학은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구현하는것을 본성으로, 기본요구로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선군시대의 장엄한 현실을 반영하고 선군시대의 요구를 구현한 문학예술, 우리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하고 사상예술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선군문학예술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을 형상적으로 구현하고있는것은 선군문학의 본성으로, 본질적특성으로 된다. 문학의 본성, 본질적특성은 어떤 사상과 리념을 구현하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지어진다. 사상적내용

은 문학의 본성과 특성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이며 사상에 의하여 문학의 가치와 인식교양적역할이 좌우된다.

선군문학이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이루는 새형의 문학으로 되는것은 바로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구현하고있기때문이다.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의 원리와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그러므로 문학이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구현하는것은 주체사상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하는것으로 된다.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구현하는것으로 하여 선군문학은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으로 되고있으며 주체사실주의문학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고있다.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구현할데 대한 문제는 정치를 반영하며 정치에 복무하는 주체사실주의문학의 본성적요구와 사명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되고있다.

원래 사회적의식의 한 형태인 문학은 정치를 반영하며 정치에 복무하기 마련이다. 그 어느 시기의 문학을 막론하고 정치와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인간과 그 생활을 그리는 문학이 사람들의 정치적견해와 리념을 반영하지 않을수 없고 정치를 떠나서 문학이 제대로 창조발전될수 없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창조발전되는 주체사실주의문학에 정치가 반영되는것은 합법칙적이다.

우리 당의 정치, 우리 당이 실시하는 로선과 정책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지향이 집중적으로 체현되어있다. 그러므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구현하는것은 문학에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 사상감정과 념원을 반영하는것으로 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문학을 창조발전시키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선군정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우리 당의 기본정치방식이며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 기간에 걸쳐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인 로선이다.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에는 선군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이 집중적

으로 체현되어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진로가 명확히 밝혀져있다. 따라서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구현하는것은 선군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필수적담보로 된다.

선군문학은 자주의 새 시대인 선군시대 혁명과 건설의 유일하게 옳은 지도사상이며 백전백승의 혁명적기치인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에 기초함으로써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으로 되고있으며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다.

선군문학은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구현하는것을 본성으로 기본요구로 함으로써 선군시대의 인간들과 그들의 실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내는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게 되었으며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해당 시기의 인간과 그 생활, 사회현실을 진실하게 그려내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며 기본과업이다. 이 요구와 과업이 얼마나 훌륭히 실현되었는가 하는데 따라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성과 사회적가치가 규정지어진다.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형상적으로 구현하는것은 문학작품에 선군시대인간들과 그들의 실생활, 선군시대의 혁명적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이 우리 시대, 선군시대사람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지침으로,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은 그 정당성과 진리성, 견인력과 생활력으로 하여 우리 시대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좌우명으로,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선군의 기치밑에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선군시대이다.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선군시대사람들의 생활과 선군시대의 혁명적현실에서 본질적인 내용으로, 기본흐름으로 되어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새로운 사상정신적풍모와 아름다운 정신세계도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활동과정에 형성되고 꽃피난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이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으며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선군시대 혁명적현실에서 본질적내용을 이루고있는데로부터 문학작품에 우리 시대 사람들과 그들의 실생활, 혁명적현실을 사

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은 선군문학의 사상리론적기초이며 이 문학의 본성과 특성을 규제하는 근본요인이다.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구현함으로써 우리 문학은 선군시대의 인간과 그 생활, 선군시대의 혁명적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내는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

최근 시기 우리 나라에서 창작된 소설작품들과 시작품들, 영화문학작품들과 극작품들에는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이 뚜렷이 구현되어있다.

총서《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들인 《총대》, 《강제정신》, 《총검을 들고》, 장편소설 《열망》, 영화문학 《철령의 대대장》, 《복무의 길》, 《너 병사의 수기》, 경희극 《약속》, 《동지》, 《철령》 등 문학작품들은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깊이있게 구현함으로써 선군시대문학의 대표작으로 되고있다.

선군문학은 혁명적군인정신을 구현하는것을 본성적요구로 내세움으로써 시대정신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구현한 문학으로,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 높은 단계를 이루는 문학으로 되고있다.

문학은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시대정신에 의하여 매시기 문학의 질적속성과 사회계급적성격이 규정지어진다. 시대정신은 시대의 기본요구이며 지향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선군문학은 선군시대의 요구와 특징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으로서의 면모와 품격을 갖추게 되었다.

혁명적군인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선군문학은 선군시대 인간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성격적특질을 훌륭히 전형화할수 있게 되었다.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은 선군시대사람들의 고유한 풍모이다.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일하며 투쟁하기에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파감히 짓부시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내는것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을 주도적인 성격적특징으로 내세우고 깊이있게 그려냄으로써 선군문학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해내고있다.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구현함으로써 선군문학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빛나게 형상할수 있게 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은 모든 사회성원들이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며 그것을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다른 한편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모든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이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라야 훌륭한 결실을 맺을수 있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혁명정신이다.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인민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선군시대에 이르러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는 투쟁과정에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전면적으로 발양되고있다.

선군시대에 와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은 자나깨나 앞으나서나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으며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려는 의지와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실제로 우리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해나가고있으며 이 투쟁과정에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영웅적위훈과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이야말로 선군시대사람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상정신적품모와 그들의 영웅적투쟁을 규제하는 근본요인이며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높이 발휘하는데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떨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그러므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내는것은 선군시대의 문학, 선군문학의 중요한 형상과업으로, 이 문학의 혁명적역할과 전투적기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선군문학은 또한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형상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게 되었다.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은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을 원칙적요구로 하고있다. 선군의 기치밑에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떨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일심단결에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환과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일심단결은 선군조선의 상징이며 선군혁명위업수행의 근본원천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 이룩된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그 완벽성과 공고성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되고있으며 선군혁명위업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강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선군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일심단결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파감히 타개해나가면서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드림없이 관철해나가고있으며 반미대결전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자랑스런 성과와 빛나는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력사적뿌리를 마련해주시였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몸소 가르치고 꽃피워주신 일심단결의 위력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문학, 선군문학의 신성한 임무로, 영예로운 과업으로 된다.

이처럼 선군문학은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형상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선군시대에 꽃피난 일심단결의 위력과 참모습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그려내게 되었으며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생명체를 강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보는바와 같이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구현하는것을 본성적요구로 함으로써 선군문학은 우리 시대, 선군시대의 뜻깊고 의의있는 사상적대용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반영하게 되었으며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다. 선군문학이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선군문학은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구현하는것을 본성으로, 기본요구로 함으로써 인민대중을 선군혁명위업수행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선군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기본사명이며 임무이다. 선군문학은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구현함으로써 우리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다그치는데 적극 복무하는 강위력한 무기로,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이루는 선군문학이 이 땅우에 출현한것은 인류문학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이며 우리 조국의 영광이고 자랑이다. 작가들은 이 영광, 이 자랑을 가슴에 안고 선군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과 혁신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2

주체사실주의문학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이루고 있는 선군문학은 일련의 고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선군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반제혁명정신을 높은 수준에서 구현하고있는것이다.

원래 반제혁명사상을 구현할데 대한 문제는 사회주의문학의 사명과 임무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사회주의문학은 제국주의자들을 때려부시고 사회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과정에 발생발전하였다. 지구우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놈들의 침략적, 략탈적본성이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 반제투쟁을 형상하며 반제혁명정신을 구현하는것이 사회주의문학의 중요한 과업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사이의 대결과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치열해지고있으며 사회주의위업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선군시대에 반제혁명사상을 구현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고 절실하게 제기되고있다.

선군문학은 선군시대의 이러한 현실적요구에 맞게 반제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였으며 이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와 경험을 이룩하였다.

선군문학이 반제혁명사상을 높은 수준에서 전면적으로 구현하게 되는것은 이 문학이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에 기초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우리 당의 선군사상은 가장 철저한 반제혁명사상이다.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에는 우리 당과 인민의 투철한 반제적립장, 반제혁명정신이 나래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총대를 앞세우고 군사중시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견결히 투쟁하며 사회주의위업을 다그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총대를 틀어잡은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형상한 문학작품들에 반제혁명사상이 홀려넘치는것은 응당하다. 이와같이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이 가장 철저하고 견결한 반제혁명사상인것으로 하여 그에 기초하고있는 선군문학작품들에 반제혁명사상이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구현되게 된다.

반제혁명사상을 구현하는 문제는 지난 시기의 문학에서도 제기되었으며 반제혁명사상을 담은 문학작품들도 적지 않게 창작되었다. 그런데 지난 시기에는 반제혁명사상을 구현하는 문제가 주로 전쟁주제의 문학작품들에 국한되어 제기되고 해결되어왔다. 이런데로부터 반제혁명사상이 해당 시기의 문학전반을 관통하고있는 주제사상적내용으로 되지 못하였다. 이와는 달리 선군문학에서는 반제혁명사상이 모든 주제, 모든 형태의 작품들에 구현되어있는 사상적내용으로, 이 문학의 사회계급적성격과 인식교양적역할을 규제하는 중요한 특질로 되어있다.

선군문학은 반제투쟁을 직접 형상하는 경우에는 더 말할것도 없고 사회주의현실을 그리거나 지난날의 력사를 그리는 경우에도 반제혁명사상이 이러저러한 방법과 형식으로 구현되게 된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강계정신》, 《총검을 들고》와 장편소설 《열망》 등과 같은 문학작품들은 다같이 사회주의현실을 그린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신과 비약을 일으켜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그려내면서도 주인공들의 가슴마다에 타번지는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 놈들의 반공화국책동과 전쟁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떨치려는 혁명적결의와 불타는 의지가 뚜렷이 구현되어있다. 이와 같이 선군문학에서 반제혁명사상을 구현하는 문제는 그 어떤 특정한 주제의 작품들에서만 제기되는것이 아니라 모든 주제의 작품들에서 제기되고있으며 따라서 반제혁명사상은 선군문학전반에 홀려넘치는 주제사상적내용으로 되고있다. 참으로 반제혁명사상을 높은 수준에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하고있는것은 선군문학의 중요한 특징으로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선군문학은 우리 시대 반제혁명문학의 참다운 본보기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지구우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놈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날로 더욱 악랄하고 집요하게 감행되고있는 선군시대의 현실은 사람들을 반제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훌륭히, 더 많이 창작해낼것을 요구하고있다.

선군문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조국애를 높은 예술적수준에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구구하고있는것이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어머니 품이며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이다. 조국을 사랑하는것은 인간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품모이다. 조국애를 그린 문학작품들은 사람들의 열렬한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문학은 조국애를 형상하는데서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아 혁명투쟁의 매 시기에 발현된 우리 인민의 숭고한 조국애를 형상하는데서 풍부한 성과와 귀중한 경험을 이룩하였다.

조국애를 형상적으로 구현하는 문제는 선군문학에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었다.

선군문학은 조국애를 구현하는것을 중요한 형상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조국애를 구현하는것이 선군문학에서 필수적 요구로,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것은 이 문학이 기초하고있는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에 조국애가 뚜렷이 체현되어있는것과 관련된다.

우리 당의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은 총대의 위력, 군사적위력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침략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내며 조국의 통성번영을 이룩해 나가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정치방식이다. 우리 당과 인민이 총대를 중시하고 총대철학, 선군사상을 삶과 투쟁의 확고한 신념으로, 절대불변의 좌우명으로 삼고있는것은 내 나라, 내 조국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며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지키는것을 최우선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총대는 조국을 보위하며 우리 인민의 자주적인 삶과 행복을 지켜내는것을 사명으로 임무로 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기에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총대우에 평화가 있고 인민의 참된 삶과 행복이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로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을 드팀없이 관철해나가고 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체현되어있는 애국애족애민의 사상이며 정치라고 말할수 있다.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이 조국애를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고 조국의 통성번영을 이룩하려는 지향과 념원으로 차넘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것에 기초하고있는 문학작품들에 조국애가 깊이있게 구현되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선군문학에서 조국애를 구현하는것이 필수적 요구로,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는것은 선군시대에 사람들의 애국심, 조국애가 새로운 높이에서 전면적으로 뚜렷이 발양되고있는 현실적조건과도 관련되어있다.

원래 조국애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성격의 하나이다. 조선인민은 애로부터 애국심이 강한 인민이다.

우리 인민의 애국심, 조국애는 선군시대에 와서 새로운 특질을 가지게 되었으며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전면적으로 발현되고있다. 그것은 선군시대에 조국을 보위하며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기 위한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격렬하게 진행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사람들의 애국심, 조국애는 조국이 시련과 난관을 겪고있을 때 더욱 높고, 더욱 강렬하게 발현된다. 실제로 조국의 운명, 민족의 운명이 생사기로에 놓여있을 때 사람들은 조국을 더욱더 열렬히 사랑하며 조국을 수호하고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기 위한 판가리싸움, 애국적인 투쟁

에 몸과 마음을 다바치는것이다.

선군시대에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사회주의조국의 안전을 지키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떨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세차게 벌리고있으며 이 투쟁과정에 숭고한 애국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 숭고한 조국애는 류레없이 간고하고 준엄한 시기에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전면적으로 높이 발현되고있다.

조국애는 선군시대인간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상정신적품모와 영웅적투쟁을 규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오랜 인류력사의 갈피갈피마다에서 사람들의 애국심이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었지만 선군시대처럼 사람들의 조국애가 숭고한 높이에서 전면적으로 발양되고 조국애의 위력이 것처럼 강화된 시기는 일찌기 있어본적이었다.

선군문학은 항일의 빛나는 애국주의전통에 뿌리를 두고있으며 선군시대에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전면적으로 꽃피난 조국애를 구현하는것을 중요하고도 절실한 요구로 내세우고있는것으로 하여, 작품들에 뜨거운 애국의 열정, 불타는 조국애가 넘쳐흐르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시대, 선군시대의 참다운 애국주의문학이라고 말할수 있다.

선군문학에 구현된 조국애는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고있으며 거기로부터 흘러나오고있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있다.

선군시대에 우리 인민이 발휘하고있는 조국애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다. 선군시대사람들의 조국애는 조국을 찾아주시고 행복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지켜주시고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심과 충성심에 그 기초를 두고있으며 거기로부터 흘러나오고있다. 선군문학에서는 선군시대에 높이 발현된 우리 인민의 조국애를 형상하면서 그것을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그려내고있다.

선군문학에 그려진 조국애에서 근본내용을 이루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사랑하며 이 제도를 고수하고 빛내어나가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려는 정신이다. 선군시대에 우리 인민이 지닌 조국애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려는 지향과 열정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우리 인민이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조국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는것은 이 제

도가 사람들에게 참된 삶과 진정한 행복을 마련 해주기 때문이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세상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선군시대 우리 인민이 지닌 조국애는 세상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고있으며 이 제도를 고수하고 더욱더 빛내여가려는 철석같은 의지와 신념에서 뚜렷이 발현된다.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은 선군시대사람들의 조국애에서 본질적내용을 이루고있으며 조국애의 사회계급적성격과 특징을 규제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선군문학은 조국애를 형상하는데 있어서 선군시대 우리 인민들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이 제도를 지켜내고 빛내여가려는 불타는 열정과 지향을 깊이있게 그려내었다.

장편소설 《열망》에서는 류레없이 간고하고 엄격한 시련의 시기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우리 인민이 발휘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생산에서 새로운 양양과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널리 시위하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떨치려는 애국의 열정을 감명깊게 그려내었다.

주인공 전영범책임비서를 비롯하여 지배인 최관형, 주강직장장 김희우, 설계기사 한석민 등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첨단과학기술의 집합체라고 말할수 있는 최첨단기계를 자체의 힘과 지혜로 창안제작해내기 위하여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는것은 그들의 가슴마다에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켜나가려는 애국의 열망이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기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선군문학은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인민들의 열렬한 사랑과 이 제도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여가려는 철석같은 의지와 열정을 뚜렷이 보여줌으로써 조국애를 의의있게,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그려내었다.

선군문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강렬한 견인력과 감화력을 가지고있는것이다.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끌어당기고 미학적으로 감화시키는 힘은 문학의 고유한 특성이며 기능이다. 사람들을 미학정서적으로 끌어당기고 감화시키는 힘이 없는 작품은 참다운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선군문학은 그 사상적내용과 예술적형상의 특

성으로부터 강렬한 견인력과 감화력을 가지고있다.

선군문학의 강렬한 견인력과 감화력은 이 문학이 현실적으로 의의있고 절실한 사회적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풀어나가는데서 이루어진다.

총대철학에 관한 문제, 군사선행의 원칙을 지킬데 대한 문제,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정치군사적문제들, 선군문학이 전면에 내세우고 해명하려는 사회적문제들은 그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 인민대중의 생사운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심각하고도 첨예한 사회적문제들이다. 이처럼 심각하고도 첨예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해명한 문학작품들이 사람들의 예술적흥미를 끌며 심금을 울리는것은 응당하다.

선군문학작품들에는 또한 총대중시, 군사중시 사상을 신념으로, 좌우명으로 삼고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이 첨예한 극적정황속에서 형상화되어있다. 선군문학작품들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그리거나 평화로운 나날을 그리는 경우에도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립장과 관점에서 인간을 그리고 생활을 그린다.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횡포한 도전에 부딪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미제침략자들을 증오하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선군문학작품에서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과 생활도 첨예하고 긴박한 극적정황속에서 심각한 계급투쟁과정으로 그려져있다.

선군문학에서 강렬한 견인력과 미학적감화력은 높은 형상성, 예술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선군문학에서 높은 사상성은 고상한 예술성과 밀접히 결부되어있다.

선군문학은 민족적형식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도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선군문학의 사상예술적특성에 대하여서는 이밖에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할수 있을것이다.

위대한 선군사상이 필승불패이듯이 선군시대에 출현한 선군문학은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원수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를 쓸어버리는 장점으로, 정의와 진리를 지켜내고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기치로 될것이다.



불은 해당화 언덕

최성진

내가 청룡기계공장 지배인으로 임명받아 내려온 날이었다. 생산부지배인과 함께 공장안팎을 돌아보던 나는 행정청사뒤로 지나간 울타리너머에 있는 몇동의 단층건물들이 눈에 띄우기에 《저 집들은 대체 무얼하는 곳입니까?》하고 조금 언짢아하며 물었다.

《철제일용품공장인데 우리 청룡기계에서 나오는 쇠밥부지에서 철관조박지들을 회수해서 못이나 압정같은것을 만들지요. 나라에서 예비를 탐구하자고 호소할 때 생겨난 공장인데 뭐 말이 공장이지 자그마하고 아직 미흡한데가 많지요.》

얼굴이 길쭉하고 성격이 덜덜해보이는 생산부지배인은 자기보다 나이가 10년은 아래인 이 새 지배인이 무엇때문에 언짢아하는지 알아차린 모양인데 이상하게도 그의 말투에서는 공장이 체모는 갖추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라에 보탬을 주자고 생겨난 공장이니 어찌겠소, 리해하고 봐야지요 하는듯 한 색채가 느껴졌다.

우리 공장일꾼이 아니라 마치도 철제일용품공장의 대변자라도 되는듯 한 그 말투에 나는 자기도 모르게 허거픈 웃음이 나갔다.

《그런데 하필이면 남의 공장에 바짝 붙어서 지을건 뭐람. 자리가 여기밖에 없는것도 아닌데 쪽나가서 부지를 잡아도 잡을게지.》

생산부지배인은 어느새 나의 그런 속생각을 알아차린 모양 꺾꺾 소리내어 웃는것으로 철제일용품공장에 대한 자기의 애정을 (나에게는 그렇게만 생각되었다.)숨기지 않았다.

《사실 우리도 너무 가까이에 지으면 더러 시끄러운 일들이 생겨날것 같아 처음엔 반대를 했는데 그 철제일용품 지배인이란 령감이 어떻게나 끈끈이서방인지 지고말았지요. 이제야 서로 도와주며 한집안식구처럼 살아야 할텐데 뭘 그러느냐고 하는 바람에 우리 전지배인이 손을 들었다니까요. 사실대로 말하면야 저네나 우리 신세를 지면 졌지 우리야 뭐 저네들 신세를 지겠습니까.》

그가 무슨 생각을 하며 그 말을 하는것인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나는 속이 그닥 개운치 않았다. 물론 남의 《집》울타리가까이에 붙여지었다는 그

자체는 별로 시비할게 못되었다. 생산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효과있게 리용하는것도 그렇다. 나라의 경제사정은 아직도 긴장한데 국가로부터 자재를 따로 받지 않고 압정이나 못 한개라도 더 만든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라.

내가 속으로 언짢아하는것은 그 보잘것없는 작은 공장때문에 덩치 크고 현대적인 우리 청룡기계공장이 외관상 좋지 않거나 거치장스러울거라는 그때문도 아니었다.

우리 청룡기계는 성적으로도 몇손가락안에 드는 기계공장으로 현존생산능력이나 기술수준도 대단하지만 그보다도 발전전망이 큰것으로 해서 국가에서 중요시하는 공장이다. 정전직후에 조업한 우리 공장은 1970년대말에 벌써 자동흐름선에서 제품들이 가공되어나오는 당시로서는 발전된 공장으로서의 체모를 갖추었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유연생산체계가 도입된 가공직장이 새로 생겨나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이러한 청룡기계공장을 그것도 새 세기에 와서 넘겨받게 된 나는 지배인임명장을 받자부터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을수 없었다. 지금은 정보화의 시대이다. 당에서는 과학중시로선을 제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런데 현대화에서 앞선 공장이라고 해서 더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현상태나 유지하고있으면 안되지 않겠는가.

하여 나는 새 부임지로 내려오면서 우리 청룡기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부 남아있는 낡은 생산공정들은 물론이고 공장전반에 대한 기술개건사업을 진행할 대담한 결심을 했다. 그리하여 세계적으로 제노라하는 기계생산업체들과도 당당히 겨루어볼 심산이었다.

그렇게 하자면 공장부지도 넓혀야겠는데 울타리옆에 자그마한 철제일용품이 훑처럼 붙어있으니 사실말이지 나로서는 기분이 좋을수는 없는것이였다.

물론 지배인으로 내려와 공장을 처음으로 료해하는 이날의 나에게 있어서 그 일은 특별히 큰일은 아니여서 한순간의 감정으로 지나쳐버릴수도

있는것이였다. 그 일이 아니라도 나에게서는 많은 것을 료해해야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하는 참으로 번잡한 하루였기때문이였다.

일도 참 별난 일이다.

우리 청룡기계공장 행정정사 2층에 있는 지배인실은 뒤창문이 울타리쪽으로 나있는데 나는 사무실에만 들어오면 현대적인 생산건물들이 웅장하게 들어앉은 우리 공장은 볼수 없고 그대신 울타리너머에 있는 문제의 그 철제일용품공장을 봐야 했다.

내가 방에 공장참모성원들을 모아놓고 장시간 진지한 토론을 하고난 뒤라던가 또 설새없이 찌르릉거리는 전화통들을 붙안고 씨름을 한 뒤라던가 문건검토같은것을 하고나서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려고 창문가에 다가서면 싫든 좋든 철제일용품공장의 전경이 눈아래 뵈드름하니 내려다보이는 것이였다.

그러다나니 나는 청룡기계에 내려온지 한달도 못되어 본의아니게 이 자그마한 철제일용품공장의 건물배치는 물론이고 종업원구성상태며 지어 그들 때 개인의 특성까지도 비슷이 알게 되였다.

철제일용품공장이라지만 규모로 보면 우리 청룡기계의 한개 직장보다도 훨씬 작았다. 건물배치부터 말한다면 지배인실에 창고가 결달린 생산지휘건물이라고 할수 있는 단층건물이 있고 그 옆으로는 작업칸이 여러개인 《7》자형의 길다란 생산건물이 자리잡고있었다. 그리고 특별히 말해 두어야 할 대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생산건물과 마주한 마당 한쪽 기슭에 부지를 잡고 건설중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건물이다. 소형블로크로 쌓은 벽체는 아직 미장을 못한 상태이고 지붕에는 림시우기방치대책으로 방습지를 깔아놓은 엉성하기 짝이 없는 건물이였다.

거기 건설중에 있는 건물안에서는 가열로 축조와 프레스제작이 동시에 진행되고있었다. 독자들은 이 천봉수가 어떻게 그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들어가보지도 않고 다 알수 있느냐고 의아해할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철제일용품공장 속보판을 소개하면 족할것이다.

생산지휘부건물옆에는 붉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해당화가 한무더기 있고 그너머에는 속보판이 있는데 거기에는 《유압프레스와 가열로제작에서 련일 혁신하는 장순철동무!》라고 쓴 속보가 나붙어있는것이였다. 말하자면 프레스와 가열로제작도 그리고 기계설건물 짓는 일도 동시에 진행되고있는셈이였다.

건설중에 있는 건물안으로는 요즘 멋부리는 젊은이들속에서 유행되는 붉은 런닝그를 입은 청년 하나가 드나들었다. 그러니 그가 속보의 주인공인 장순철일것이였다.

그 장순철청년은 철제일용 지배인령감이 크게 밀고있는 재간둥이같았다. 언제봐야 색날은 밤색

모자를 앞으로 푹 내리쓴데다가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주으려는듯 고개까지 숙이고다니는 령감은 자주 마당 한가운데 붉은 런닝그와 이마를 마주하고 앉아 열심히 무슨 도해같은것을 그려가며 토론하군 하는것이였다.

남의 집안 실태에 대하여 자세히 공개한다는것도 실례되는 일이여서 많은것을 략하고 다만 독자들의 리해를 위해 필요한것만큼 더 소개한다면 공장의 종업원수는 한개직장정도이다. 그나마도 힘겹나 쓸수 있는 남정로력이란 예순나이가 지났을 지배인령감까지를 포함해서 여섯명뿐이고 나머지는 아낙네들인 녀자들이다. 처녀라고는 통계원 겸 창고일을 보는 쌍태머리처녀가 한명 있을뿐이였다.

그 처녀의 이름은 화숙이다. 성은 알수 없다. 지배인령감이 어디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처녀가 자기 자리에 없으면 큰소리로 《통계원!-》하다가 그래도 나타나지 않으면 제 막내딸 부르듯이 《애, 화숙아!-》하고 부르곤 하는것이였다. 령감의 목소리는 오래동안 찬바람속에서 일해온 사람들이 대체로 그러하듯 석식하면서서도 발음이 정확했다.

그런데 화숙통계원은 내가 보기에는 착실한 처녀같았다. 언제봐야 일을 하군 했다. 붉은 런닝그를 입은 장순철과 그의 가까운 친구인 (이름은 알수 없다) 못가공실의 기계운전공청년이 생산건물모퉁이에서 점심식사시간을 리용해서 장기를 둔다는것이 작업시간이 다 될줄도 모르고 붙어있을 때면 화숙통계원이 제때에 찾아내여 일으켜세우곤 했다

처녀는 대리지배인이나 같았다. 지배인령감이 어디에 나가서 없을 때에는 그 처녀가 지배인실을 지켰다. 거기서 통계일을 보다가는 창고일도 보고 잠이 생기면 해당화에 물을 주거나 옆의 토끼사도 돌보곤 했다. 속보원일도 처녀가 맡아했다. 부언하건대 이 철제일용품공장의 많지 않은 종업원들은 하나같이 쉬임없이 돌아가는 기계의 치차들처럼 긴장한 일감들을 맡아안고 부지런히 움직였다. 지배인령감이 시세에 뒤떨어져보이는 색날은 모자를 쓰고 소형자동차를 승용차처럼 타고 매일과 같이 나돌아다니지만 행정조직사업에선 빈틈이 없는것 같았다.

어느날 나는 점심참에 공장구내를 한바퀴 돌아 보다가 철제일용품공장의 그 《대리지배인》을 보았다. 장비직장쪽에서 빨간 반소매옷을 입은 처녀가 나오기에 낫이 익다 했더니 그 처녀였다.

그날 오후 느지막해서 공장의 개건문제를 놓고 기술진과 마주 앉아 장시간 협의회를 하고나서 창문가에다가가보니 울타리너머 철제일용품공장의 정문에서 그 《대리지배인》 처녀가 푸른 줄이 간 난방샤쓰바람의 청년을 만나 무슨 기계부속품같은것을 넘겨받는것이 보이였다. 내 기억이 틀

림없다면 푸른 줄의 난방샤쓰는 우리 공장 장비 직장의 어느 기대에서 본 청년이었다.

처녀가 점심참에 무슨 일로 우리 공장에 들어왔던지 대체로 짐작이 갔다. 철제일용의 지배인령감이 프레스를 조립하면서 걸리는 부속들이 있으면 자기 《대리인》을 내세워 우리 《큰집》의 선반공총각들한테서 더러 깎아내가는 모양이었다.

하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낙네들을 데리고 못이나 압정같은것이나 만드는 령감이 무슨 수로 프레스같은것을 만들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애인처녀(그들은 틀림없이 그런 사이일것이다.)에게 부속품을 깎아다 넘겨주는 우리 공장 젊은이를 문제시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우리야 큰집이 아닌가. 작은 집을 도와주는것은 응당한것이고 더우기 그렇게 해서 나라에 프레스 한대라도 늘어나면 그게 좋은 일이지. 그러면서도 공장규율은 엄격하게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철제일용의 지배인령감에 대하여 처음 한동안은 그저 그러루한 령감이겠거니 했는데 날이 갈수록 그한테 은근히 관심이 갔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주하게 사는 령감이었다. 어느 하루도 일거리를 생각해내지 않고서는 못사는 성미같았다.

령감은 소형자동차를 타고 늘 어디론가로 나다니다가 들어오곤 했다. 원자재로 말하면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쇠밥무지속에 못이나 압정같은것을 찍어낼만 한 쇠조각자들은 얼마든지 있는것인데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늘썩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지 모를 일이었다.

령감은 그렇게 한동안 소형자동차바퀴에 불이 일 지경으로 나돌아다니더니 갑자기 공장을 때뼉이하는 일판을 크게 벌려놓았다. 건물의 벽들에 외장재를 칠한다, 문짝들에 라크칠을 한다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체기더니 차츰 일판을 크게 벌려 구내의 여러곳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지배인령감이 공장구내를 떠나지 않고 아낙네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휘를 했으며 제가 직접 꼭깡이질도 드세차게 해댔다.

온 철제일용이 밤낮 들볶더니 얼마후 공장의 면모는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다. 건물들은 칠보단장을 한 새색시처럼 환해졌고 구내에는 분수못이 있는 아담한 공원도 생겨났으며 길들은 모두 세멘트포장이 되었다.

다만 장순철이란 청년이 일하는 볼로크집만이 그사이에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소형볼로크로 쌓은 벽에 미장도 못하고 지붕도 기와를 넣지 못하는것을 보니 그안에서 진행되는 가열로축조며 프레스조립이 시원치 않은 모양이었다. 하긴 못이나 압정같은거나 찍어내는 철제일용의 힘으로 프레스같은것을 만든다는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것이었다. 철제일용에서 그런것들은 무엇에 쓰

자고 령감이 그런 어벌큰 일판을 벌려놓았는지 모를 일이었다.

이 가열로나 프레스제작형편은 어떠했든 나는 철제일용품공장의 꾸리기전투를 보면서 령감에 대하여 또 새로운 생각이 들었다. 한것은 령감이 늘 쓰고다니는 색날은 밤색모자처럼 그렇게 낡아빠진게 결코 아니라는 그것이었다.

령감이 보잘것없는 공장의 지배인이지만 그한테는 내밀성과 함께 시대에 민감한 그 무엇이 있는것 같았다.

어느날 나는 직장장들을 모아놓고 생산문화에 대하여 강조하던 끝에 나도 모르게 《모두들 와서 이 창문너머를 좀 내려다보십시오. 철제일용품 공장에서 녀인들만 가지고 일터를 어떻게 꾸려놓았는가를 보란 말입니다. 우리도 철제일용의 지배인아바이처럼 일해야겠습니다.》하고 말한적도 있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는 아래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자신의 사업기풍과 결부하여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때 나는 사람들에게 터놓고 말할수 없는 불안과 위구를 안고있었다. 그것은 큰 공장의 기술개건을 결심한 책임일꾼으로서의 중압감이요 불안이었다. 하여 나에게는 그것이 없어도 나라의 재부에 별로 자리가 나지 않을 보잘것없이 자그마한 철제일용품공장의 꾸리기사업이며 지배인령감의 일본새를 두고 더이상 깊이 생각해볼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철제일용품공장의 꾸리기전투가 있는 다음부터 그 지배인령감을 오래전부터 어디선가 본것 같은 생각이 드는것이였다.

령감이 머리에 불이고 다니는 색날은 밤색 모자도 그리고 길어서 휘우듬해보이는 허우대며 지어 땅바닥을 늘썩 내려다보며 걸어가는 별난 자세마저도 이미전에 본듯 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 령감만이 아니였다. 늘 부지런한 쌍태머리통계원처녀며 그가 물을 주어 싱싱하게 자라는 붉은 해당화무더기며 그리고 령감수하의 《대원》들인 다른 종업원들의 일본새까지도 꼭 어디서 본것 같이 생각되였다.

그것은 별스러운 착각이였다. 왜 그런 착각이 들군 하는것일까?

그 지배인령감때문에 어느날 나는 참으로 불쾌한 일을 당했다. 그렇다. 그것은 정말이지 유쾌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날 나는 시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한 단위책임자들의 모임에 참가하고있었다. 도시미화사업이며 기관꾸리기며 그밖에 기타 과업수행정형을 총화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모임이였다.

모임이 끝난 뒤에 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일어나더니 한가지 호소할것이 있다면서 말했다.

《다들 알고있겠지만 우리 시에 인민군대 녀성 군인들의 초소가 하나 있수다. 그들이 나라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전기를 자체로 해결해 쓰려고 풍력발전소를 산마루에 건설하러 한다는것은 다들 모르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나라에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처녀들의 생각이 참 기특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을 풍력발전기는 우리가 해결해주자는것입니다. 처녀군인들이 모두 자기의 딸들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힘있는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말아 풍력발전기를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우리 시에 큰 기계공장도 있고 힘있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공장기술개건계획과 관련하여 하나 피뚱 떠오르는것이 있어 가방안에 넣어둔 문건 하나를 꺼내 별걱별걱 뒤지면서 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그 말을 듣고있었다. 그가 《큰 기계공장》이요 《힘있는 기관》이요 한것은 분명 우리 청룡기계공장을 녀두에 두고하는 말일것이 뻔했다. 그러니 내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다.

나는 여전히 문서를 뒤적이지었으나 글줄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시인민위원장의 목소리만 귀를 자극했다. 한참 신고해서야 나는 문서에서 필요한 대목을 찾아냈다. 그래도 나는 거기에 정신을 집중할수가 없었다. 눈앞에는 문건의 글자들 대신 나만 바라보는 위원장의 이마벗어진 허연 얼굴이 보이는가 하면 《풍력발전소》라는 글자들만 얼른거리었다.

녀성군인들의 생각이 기특한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요즘 군대를 돕는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제기하고있는 풍력발전기에 대해서는 사정이 좀 달랐다. 우리 청룡기계가 아니래도 다른 단위에서 얼마든지 말아할수 있는데다가 공장사정도 사정인것이였다. 성적으로 제기되는 중요생산과제는 과제대로 수행하면서 생산능력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전면적인 기술개건사업을 진행하자면 얼마나 긴장할것인가.

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한편으로는 긴급한 문서를 들여다보아야 하는 그 바쁜 경황에도 나는 공장현대화를 위한 계획이며 조직사업의 어느 한 고리라도 놓치여 만회할수 없는 실패에로 이어질가봐 도무지 마음을 놓을수가 없었다.

그런데다가 보아하니 시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중소형발전소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건보수사업을 하려는 모양인데 풍력발전기를 말아안았다가 잘한다고 해서 앞으로 다른 과제들을 무더기로 안겨주면 여간 시끄럽지 않을것이였다. 그러지 않아도 모두들 《힘있는 기관》이요 《큰 공장》이요 하면서 큼직큼직한 일감들은 우리 청룡기계공장이 다 말아안기만을 바라는 눈치들이 아

닌가.

우리 공장은 사실 시급단위도 아니고 성의 지시를 받는 중앙급공장이니 시에서 주는 사회적과제에 좀 낫을 돌리지 않는다고 내놓고 추궁하기도 못할것이였다.

내가 문서장우에 눈길을 주고있을 때 마침 뒤줄에서 누군가 《우리가 해보겠습니다》하고 말했다.

갑자기 바람이라도 인듯 좌중이 술렁거리는 가운데 사회석쪽에서 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아니, 철제일용에서요?》하는 소리가 들리였다.

나는 철제일용이라는 소리에 처음에는 그게 그저 어느 기관이겠거니 하는 정도로 심상하게 여기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내심 놀랐다. 철제일용이라니? 그렇다면 우리 청룡기계옆에 붙어있는 그 철제일용이 아닌가.

나는 하마트면 《저 령감이?!》하는 놀람에 찬 소리를 지를뻔 하며 저도 모르게 뒤쪽을 피뚱 돌아다보았다. 령감은 어느 구석에 앉아버렸는지 보이지 않았다.

다시 문서장우에 눈길을 보냈으나 글자들은 더더욱 들어오지 않았다. 눈앞에선 방습지로 립시 우기방지대책을 한 엉성한 블록집이, 아니 힘들게 조립되어가는 프레스며 가열로가 얼른거리었다. 기껏해서 못이나 압정을 만든다고 했지. 저

령감이 풍력발전기가 어떤 물건인지 알기나 하고 저러는가? 풍력발전기란 아이들장난감처럼 돌아가기만 해서 되게 아니다. 각이한 바람조건에서도 안전한 주파수를 유지하면서 최대용량을 낼수 있게 설계제작되어야 실용가치가 있게 된다.

그런 까다로운 기술공학적요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들어서 설치해놔야 전기덕을 못보게 된다. 그러지않아도 욕망 하나만을 가지고 만들어놓았다가 전기를 제대로 내지 못해 사람들의 비난거리로 되고있는 《풍력발전기》도 있는것이다. 더우거나 지금은 모든것을 과학적으로 해야 하는 시대이다. 욕망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된다. 그런데 못이나 압정같은것이나 만드는 령감이 풍력발전기를 만들겠다니 정말 정신이 나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아바이, 철제일용에서 정말 할수 있겠소?》

위원장이 영 믿음이 안가는지 정식으로 물었다. 그럴수 있는 일이었다.

령감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다들 말아안기 힘들어하는것 같은데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누구든지 말아해야 하겠지요.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

조용해진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가벼운 군기침 소리들이 들리였다.

나는 갑자기 속이 걸리였다. 《다들 말아안기 어려워한다》는 소리에 모두들 나만 바라보는것 같았다. 그 눈들에선 《큰집에서 잘하누만!》하는

영글한 조롱과 비난이 반짝이는것만 같았다.

《철제일용이 잘합니다!》위원장이 드디어 큰소리로 말했다. 《다들 좀 보십시오. 자그마한 철제일용에선 해보겠다고 나서는데 머리 큰 지배인들은 쌀 껍먹은 아낙네들처럼 뼈속소리 한마디 없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 됐소?》

장내는 가벼운 웃음바다가 되었다. 쌀 껍먹은 아낙네로 비유한게 대체로 우리 청룡기계공장을 녀두에 둔 소리였음을 모두들 약삭바르게 넘겨줬은 것이었다.

나를 난처하게 만들어놓은 지배인령감이 알미웠다. 제가 소대가리를 말고싶으면 군소리나 없이 말올게지 《다들 말기 어려워하는것 같은데》하는 심사 바르지않은 소리는 왜 덧붙인단 말인가. 그제 정말 이 천봉수를 두고 한 소리는 아닌가? 본의가 어땠든령감이 우에 잘 보이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통에 나만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는가.

시민민위원회에서 돌아온 나는 기분이 언짢아 랑수책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철사이없이 찌렁거리던 책상우의 다섯대나 되는 전화기들도 주인의 기분상태를 알기라도 한듯 조롱했다.

나는 차츰 자신의 기분상태가 어이없이 생각되었다. 인간생활에서 흔히 있을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자존심이 상해하다니. 그런게 아니래도 마음 써야 할 일이 좀 많은가.

나는 감정을 녹찾히려고 창문가로 다가가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러자 나는 또 어쩔수없이 눈아래 뻘드름히 안겨오는 철제일용품공장을 봐야 했다. 길다란 생산건물안에서는 언제나와 같이 잘각잘각 하는 철판절단기 돌아가는 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도 생활은 변함이 없어요 거기서는 공연히 기분나빠해요 하고 나를 알긋게 조롱하는듯 했다. 지배인실에서 빨간 뜨개옷을 입은 처녀가 나왔다. 통계원처녀는 일감이 동났는지 속보판앞의 해당화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나의 눈길은 통계원처녀의 손길이 닿은 해당화에 가서 멎었다. 붉은 꽃들이 한벌 피어나 해빛에 타는듯 한 해당화덤불! 그렇다. 그것은 틀림없이 장미가 아니고 해당화이다. 바다가에서 피는 해당화를 누가 저기에 심을 생각을 했을까? 은연중 바람사나운 언덕이 떠오른다. 돌격대의 가설건물이 서있던 언덕이다. 내 이름도 자주 올라있군 하던 속보판! 병실옆의 높이 세운 장대우에선 바람개비가 쉬임없이 돌아가고 해종일 밀려오는 파도와 싸우며 바람에 꺾꺾 열며 일하다가 병실에 들어와 누우면 자르륵거리며 돌아가는 바람개비소리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안정시켜주어 인차 단잠에 들곤 했다.

그날의 돌격대병실은 지금 없을것이다. 그러나 해당화는 피어있을것이다. 우리 세대의 위훈 많은 청춘시절의 자옥인양 해마다 그 언덕우에는 붉은 해당화가 피어날것이다. ...

그것은 추억이었다. 어째서 지금 그 일이 떠오르는것일까? 갑자기 눈뿌리가 저려난다. 그때 해일에 말려들어가 영영 솟아나오지 못한 돌격대 옛 소대장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여. 막내! 래일 대학시험치러 떠나야 할텐데 오후엔 일 나오지 말구 쉬라구. 그대신 이걸 병실앞에 심으라구. 해당화야. 우리가 공사를 끝내고 떠나간 뒤에 10년쯤 지나면 해당화가 퍼져서 이 언덕이 불만 할거야. 해당화언덕이 될거라니.》공사통에 해당화가 뿌리채 파헤쳐진것을 땅속에 그냥 묻어버릴가봐 점심참에 가지고 들어와서는 성글성글한 앞이밭들이 유표하게 드러나도록 웃으며 말하던 패남아! 점심식사를 하기 바쁘게 모지라진 함마를 돌려메고 다시 일터로 씨엥씨엥 걸어나가던 헌결찬 모습!

그것이 마지막으로 본 한광호소대장의 모습이 다. 그날 소대장은 부선을 구원하러 사나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밀려오는 해일에 말려들어가 솟아나오지 못한것이다. 영영.

아, 어째서 지금 새삼스럽게 그때 일이 떠오르는것인가?!

나는 제자리로 돌아와 전화로 운전사를 찾았다. 그에게 저녁중으로 평양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준 다음 집에도 전화를 걸어 안해에게 출장을 간다는것을 알리었다.

공장의 기술개건과 관련해서 성에 올라가 토론도 해보고 급히 결재를 받아야 할것들도 있는 것이었다.

내가 출장을 떠나기에 앞서 기술과에서 올려온 도면 하나를 들여다보고있는데 전화기 한대가 찌렁거리었다.

송수화기를 들었다.

정문에서 걸어오는 전화였다. 철제일용품공장 지배인아바이가 찾아왔는데 지배인동지를 만나겠답니다, 들여보내랍니까? 하고 애된 목소리가 물었다.

나는 속으로 저절로 웃음이 나갔다. 령감님이 만장앞에서 소대가리는 내가 말했수다 하고 큰소리를 쳤으나 바쁘기는 바빠맞은 모양이군. 이번에는 쌍태머리 《대리인》을 내세우지 않고 제가 직접 찾아왔단말이지. 무슨 소리를 하겠는지는 뻔하지. 큰집에서 이무래도 좀 도와줘야겠수다 하겠지.

《들여보내랍니까?》접수에서 또 물었다.

이런 딱한 일이라구야. 출장을 앞두고 몇가지 일들을 긴급히 처리해야 할 대목에 찾아올건 뭐란 말인가. 만나게 되면 끈끈이서방처럼 달라붙겠지, 그런데 실은 우리 일이 더 바쁜게지. 정말

이지 한시각이라도 미루어서는 안되는 일이지. 지금은 과학과 기술이 비상한 속도로 발전하는 속도의 시대이다. 기술개선이 하루 늦으면 그만큼 우리 조국의 강성대국건설이 지연될것이다. 엄청난 생각들이 머리속에 떠올랐다.

《동무, 내 이제 급한 출장을 가야 하오. 아바이한테 미안한데 후에 찾아오라고 하오.》

나는 신경질적으로 송수화기를 탁 내려놓았다.

그 순간부터 무엇때문인지 모르게 자신이 역겨워졌다. 눈앞에는 실망해서 돌아가는 령감의 허우룩해진 모습이 떠올랐다. 저조하다. 이젠 저조한거야 하는 누군가의 비난의 목소리가 귀를 간지럽히는듯 했다.

하지만 나는 인차 일에 묻혀버렸다. 지배인의 일이란 언제나 긴장하다. 사소한 감정같은것은 한시간사이에 도 잊어버리게 된다.

나는 하루이틀사이에 튀지 말아야 할 몇가지 사업을 강조하거나 새로 포치하기 위하여 해당부서 책임자들을 전화로 호출했다.

그 일들을 끝내고 자리에서 막 일어나려는데 전화종이 또 울리었다.

송수화기를 드니 이번에는 생산부지배인이 나왔다.

《지배인동무, 거 철제일용지배인령감 있지 않습니까. 그 령감이 나한테 와서...》

《아니. 그 령감이 거기에 갔겠습니까?》 나는 여불없이 령감이 쳐놓은 그 무슨 그물에 걸려든것같은 아리송한 생각에 한순간 멍해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내며 물었다. 《도대체 왜 왔겠습니까?》

《하, 이것참 딱해서. 장비직장에서 회수해다놓은 전동기를 달라는겁니다.》

《전동기요? 장비직장에 그런게 있기는 있습니까?》

《있지요. 생필에서 회수해다 놓은지 일년이 되여오는데 폐기품은 아니지만 뭐 회전자권선이 굵히워서 수리해야만 쓸거지요. 생필에서두 필요는 없는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주어버리고 맙시다 하는 속대사가 뻔히 알리는 말투였다. 엉큼한 령감이 약한 고리를 알고 찾아가 찢러댄것이였다.

《그런데 그 령감님이 우리 공장 일은 어떻게 다 압니까? 회전자가 못쓰게 된 전동기가 있다는것까지 말입니다.》

잠시 침묵끝에 생산부지배인이 타협인지 변명인지 도무지 분명치 않은 목소리로 중언부언하기 시작했다.

《허, 글썽합니다. 나도 그게 의문스러워서 어떻게 알고 왔는가고 물으니 령감이 웃으며 하는말이 다 아는데가 있지요. 다 압니다, 당신네가 필요없는 전동기를 일년째나 장비직장 창고옆에 내버려두고있는게 있지 않소, 하더라 말입니다.

령감이 그쯤만 했게요. 끈질기구 엉큼하기란 말이 아니지요. 먹은 아껴놓으면 곰팡이가 쏘고 돈은 쌓아두기만 하면 시세에 따라 종이장 될수가 있수다, 쇠붙이란건 내버려두기만 하면 녹이 쓸어버린다는것을 모르시우 하더라 말입니다. 그게 본위주의를 해서 나라에 손해밖에 없다는 비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 참.》

생산부지배인이 말끝에 어이없다는듯 《나 참》했지만 그것은 역시 타매가 아닌 따듯한 그 무엇이 느껴지는 소리였다.

나의 눈앞에는 문득 철제일용의 정문에서 쌍태머리처녀를 만나군 하던 청년이 떠올랐다. 령감이 어떻게 우리 공장 장비직장 속내를 다 알고있는지 알만 했다.

《부지배인동무, 거 장비직장에 하늘색 줄이 난방샤쓰를 입고 출퇴근하는 녀석이 있지 않습니까? 키가 멋없이 커서 싱아대같은 녀석말입니다.》

《하늘색 난방샤쓰라니요?》 부지배인은 무슨 소린가해서 덤덤해있다가 이윽고 껄껄 웃었다. 《아하, 난 또누구를 보고 그러는가 했지요. 있지요. 근세라고 제 아들녀석입니다. 공업대학을 나온 녀석인데 요즘은 컴퓨터에 미쳤지요. 그런데 그 녀석한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나는 남의 기관 처녀한테 가서 제 공장 내막을 찢찢 털어놓는 실없는 녀석 좀 혼살을 내줘야겠다고 하려다가 생산부지배인의 아들이라는 소리에 땀방해해서 입만 껌 다시었다. 그러면서도 원칙은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지 않으면 기업관리가 뭐가 되겠는가.

《전동기문제는 좀 두고 봅시다. 아무튼 공장채산이 아닙니까.》 하고 그루를 박았다.

수화기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이 사람이 내말에 무슨 불만이라도 있는가? 왜서인지 상대방의 침묵이 좋지 않게만 생각되였다.

나는 송수화기를 내려놓은 다음에도 잠시 빈벽만 바라보다가 일어나 창문가로 다가갔다. 왜 그랬는지는 나 자신도 딱히 알수 없었다. 정적에 싸인듯 한 철제일용품공장에서는 언제나와 같이 철판절단기소리만이 단조롭게 울려나왔다. 텅빈 마당으로 지배인령감이 언제나와 같이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땅우를 내려다보며 들어섰다. 령감의 그러한 모습이 그날 따라 저르기 측은해보였다.

령감은 자기 사무실앞에 이르러 《대리인》 처녀를 불러내여 뭐라고 지시를 주는것 같더니 소형자동차의 운전실에 올라탔다. 차는 연료공급계통이 시원치 않은 모양 몇번 재채기를 하고나서 자리를 뿔다. 차는 석양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도시변두리를 향해 달려갔다.

그날 저녁에 나는 승용차로 평양에 올라갔다.

공장기술개선에 필요한 설비납입과 관련하여

해당기관과 계약도 맺고 가지고 올라간 문건들에
상의 수료도 받은 다음 국가계획위원회까지
들려 일을 보다니니 예견했던대로 이들을 평양에
서 보냈다. 그런데다가 당장 바쁜 집적회소스원
들을 해결하려 과학원에까지 들리다니니 다 어두
워서야 청룡으로 향했다.

달도 없는 밤이었다.

승용차는 교외의 포장도로를 달리었다. 전조등
의 뽀얀 빛발속으로 비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포
장도로가 마주 왔다. 가로수들이 전조등의 역광
을 받으며 뽁뽁 지나갔다.

나는 심기가 도무지 편안치 않았다. 속이 자꾸
만 걸리었다. 그것이 무엇때문인지는 알수 없었
다.

평양에 올라와서 본 일들도 다 원만히 되었는데
불안도 해소되지 않았다. 공장의 기술개건계
획에 빈고리는 없는가? 전혀 예견치 못한 사소한
것때문에 전반적인 균형이 깨어져나가는것과 같
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한테 과연 거대한
사업을 수행할수 있는 예비가 있는가? 기술력량,
설비며 자재 그리고 막대한 자금...

사실말이지 기술개건이란 우리 공장책임일군들
에게 있어서는 운명을 건 모험이 아닐수 없다.
력량타산도 해보지 않고 일을 크게 벌려놓았다가
당장 나라에 필요한 중요대상설비생산만 늦어지
게 되고 기술개건자재도 푹푹스레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공연히 욕망만 커서 실현불가능한 일
을 벌려놓은건 아닌가? 가능성을 더 따져보고 일
을 시작했을걸 그러지 않았는가? 아니, 무슨 생
각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일이
아닌가. 이건 시대의 요구이다. 언제나 앞으로만
나아가야 한다. 답보는 후퇴이고 배신이다. 그리
고 기술개건이라는 우리의 차는 이미 발동이 걸
리었다. 아니 국가계획에도 맞물려놓았으니 이미
출발한셈이다. 멈춰세우지 말아야 한다. 그래,
그래... 그렇지 않구. 그런데 어째서 속이 자꾸만
걸리고 불안해질까?

생각은 여기서 중단되었다. 멀리 앞에서 손을
들고 서있는 보안원이 보이였다. 초소였다.

애젊은 보안원소위가 멈춰선 차에게로 다가와
나의 증명서를 요구하여 보더니 《좀 도와주십시
오.》하고 사정이야기를 했다. 청룡까지 가는 손님
이 한분 있어서 그러는데 같이 태우고 가달라는
것이였다.

《태우고 가야지. 손님이 어디에 있소?》

《저...》 소위는 왜서인지 조금 난처해하며 초소
건물쪽으로 눈길을 보냈다. 《손님이 잠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제 가서 깨워내오겠습니다.》

《일없소. 보안원동무, 어서 그러우》

소위는 미안하다는 말을 곱씹고나서야 초소건
물쪽으로 뛰어갔다.

인츰 나타나리라고 생각했던 소위는 어찌된 일

인지 10분이 되어오도록 오지 않았다.

나는 차츰 초조해했다. 운전사가 시간을 지체
시킨다며 혼자소리로 투덜거렸다. 그가 그럴만도
했다. 나를 태우고 이틀동안 분주히 돌아치다가
공장으로 돌아간다는게 밤이 이슬해서야 떠났는
데 아침까지는 어떻게 하나 청룡에 가달아야 하
는것이였다. 나는 안달아하는 운전사를 차에 혼
자 두고 운전실에서 내려 보안원소위가 사라진
초소건물안으로 향했다.

형광등을 켜놓은 자그마한 방안에서 키가 별스
레 커보이는 사나이가 혼자 긴 나무결상우에 누
워 불빛을 피하느라고 모자로 얼굴절반을 가리운
채 코를 드렁드렁 끌고있었다.

이런 썬병좋은 사람도 있담. 단속한 보안원은
차를 태워보내겠다고 뛰어다니는데 단속된 사람
은 잠만 자고있다니!

보매 그 단속자가 어찌나 잠을 달게 자는지 소
위는 차마 깨우기 미안해하는것 같았다.

《깨우오, 보안원동무.》

나는 주저하는 보안원대신에 그를 깨우려고 다
가갔다. 그러다가 그의 얼굴을 가리운 모자가 눈
에 익다는 생각에 놀라서 굳어졌다. 색깔은 밤색
모자! 지배인실참문너머로 자주 보곤 하던 그 모
자가 아닌가! 련치없이 잠만 잔다고 생각한 《규
정위반자》란 다름아닌 철제일용의 지배인이란 말
인가. 령감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와서 이 모양
이 되었던 말인가! 나는 동정과 련민의 정에 목
구멍이 띠꺼져리였다. 세상만사를 다 잊고 오록
이 풀어진채 골아떨어진 령감의 정상이 말이 아
니였다. 진짚이 내배인 목이며 쑥 들어간 불편만
보아도 피곤한 기색이 알리였고 희속희속한 귀
밑머리에는 먼지가 보얗게 올라있었다.

《저 무거운걸 지고 온종일 걸어왔답니다. 로상
에서 하루를 보냈다니 끼니두 몇끼 번진것 같습
니다.》

보안원이 동정에 차서 하는 말이였다.

그제서야 나는 방구석에 놓여있는 물건에 눈길
이 갔다. 멜끈을 풀지 않은채로 놓아둔 짐이였다.
사람이 지고갈 짐이 못되는 그것이란 전동기의
회전자가 아닌가!

누군가 내 뒤통수를 호되게 내리친듯 한 순간
눈앞이 아찔해왔다. 나는 운명적인, 도저히 뭐라
고 변명할수도 그리고 도저히 헤어나올수 없는
그 무엇에 빠져든 기분이였다

《무슨 대계도때 상했던 허리가 잘못된것 같다
고 하더니 저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깨우랍니
까?》

나는 그 말을 거의 무아상태에서 들으며 황황
히 보안원을 제지했다.

《와두오. 일없소. 보안원동무, 이 아바이를 여
기서 한시간만 더 채우면 안되겠소?》

그이상은 안된다, 한시간이상은. 어쨌든 아침시

간까지는 청룡기계공장에 가닿아야 한다. 아침 첫시간에 공장당위원회 확대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나는 이 회의에 참가하여 공장의 기술발전계획과 관련한 중요한 보고를 제기해야 한다.

내가 목이 잠겨 떠뜰거리자 보안원소위가 의아해하면서도 미안해하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럼 지배인동진?...》

《기다렸다가 태우고 가지. 출근시간까지 청룡에 가닿으면 되오.》

소위의 눈에는 안도의 빛이 어리었다.

《그럼 지배인동지, 조금 쉬십시오. 우리 동무들 침실에 자리가...》

《쉬!- 조용하오. 고맙소. 그런데 밖이 시원한게 더 좋을것 같구만.》

나는 밖으로 나가자 운전사동무에게 눈을 좀 불이라고 이른 다음 투광등의 불빛을 피해 길가 녀에 서서 담배를 붙여물었다.

낮사이에 달아올랐던 대기가 녹녹해졌다.

왜서인지 머리가 어질어질해왔다. 가슴이 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이틀전에 청룡을 떠나오면서 나타났던 증상이었다. 나때문에 고생을 했구나! 이 천봉수의 물인정때문에 령감이 고생을 했어! 하는 생각이 부지중 치밀어올랐다. 이제 령감이 깨어나서 나를 알아보고 뭐라고 하겠는가.

《지배인동지, 저 아바이의 말이 그전에 대계도 공사를 하면서 희생된 사람들도 있었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공사였던게지요?》

보안원소위가 무료감을 덜리고 투광등결에 서서 물었다.

《대계도라...》나는 조금전에도 소위한테서 대계도소리를 들었던것 같은 생각을 하며 그를 건너다보았다. 《대계도라... 하긴 동무네 세대한테는 그 일도 지나간 력사로만 인식되겠구만. 대계도 공사라... 어려웠지. 바다를 막아 조국의 지도를 넓히기 위한 대자연개조전투였으니까. 그땐 20만 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자는것이 당의 호소였댜소. 당의 뜻을 새기고 기어이 날바다를 막았지. 그래서 영웅들도 많이 나왔구.》

《그럼 지배인동지두 거기서 일했습니까?》

《일했지. 그런데 일년을 거기서 일했소. 인차 대학엘 추천받아 갔으니까.》

이 어찌된 일인가? 나는 며칠사이에 벌써 두번째로 그때 일을 생각하게 되지 않는가. 이제는 수십년 세월이 흘러갔지만 잊혀지지 않는 그때 일일.

눈앞에는 황량한 바다가 떠오른다. 바다, 바다, 제방도, 부선도 그리고 귀중한 동지도 다 삼켜버린 바다! 무정한 바다! 저주로운 바다!

《동무! 고집부리지 말구 떠나라니까. 동무 한사람 없다고 오늘일이 안되지 않아. 희생된 광호소대장두 동무가 대학시험 치러 가면서 늦어지는걸

바라지 않을거야. 그러지 않아도 동무가 대학갈 때 온 소대가 역에까지 따라나가 배려주려고 했었다는데 어찌겠소. 오늘중으로 부선을 건져내야 래일부터 돌운반을 하지.》

대학시험치러 가더라도 소대원들과 함께 부선을 건져내는 전투에 참가하고 떠날 결심을 하고 작업장으로 떠나서는 나에게 애를 먹이지 말라고 옥박지르듯 말하며 화를 내던 그게 누구였던가? 희생된 광호소대장을 대신하여 나홀전에 새로 임명되어온 새 소대장이었어. 려단지휘부에서 일하다가 자진해서 내려왔다는 사람, 그래 이름이 생각난다. 홍순도였어. 허우대가 크고 얼굴은 별로 인상적인것이 없는 평범한 얼굴이었어. 나는 그때 그에게 반감 비슷한것을 품었더랬어. 제가 새로 왔다고 해서 희생된 광호소대장이 잠든 바다를 떠날수 없어하는 이 봉수의 심정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그에게 씹싸우듯이 해봤어.

《못가겠습니까. 차라리 대학에 안가두 좋아요. 에이. 광호소대장동지가 부선을 구원하려다가 잘못되었는데 그 부선을 꺼내는 전투를 하는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어떻게 떠나요. 이 봉수는 뭐 저 하나밖에 모르는 농민줄 알아요?》

《동문 참! 참!》새 소대장은 눈물이 그렁한 나를 보면서 왜서인지 씩 웃었다. 그리고는 내 어깨를 툭 쳤다. 《일하러 나가자구. 하지만 대학엔 꼭 가야 해! 애물같이 놀지 말구.》

그 홍순도가 허리에 바줄을 매고 해일이 찾아든 꺼면 바다속으로 헤엄쳐들어갔다. 바다가 삼켜버린 부선을 찾으려고. 그다음엔 무슨 일이 있었던가? 초조감이, 온몸이 빠질빠질 타던 초조감이, 불안이 기억된다. 시간이 지나도록 떠오르지 않는 홍순도를 찾으려 소대원들이 물속으로 뛰어내리고 한쪽에선 바줄을 당기고... 그다음엔... 그래... 그래... 바줄에 끌려 나온 홍순도는 정신을 잃은채 와들와들 떨기만 했다. 그러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었다.

《허리를... 다쳤어... 그놈의 걸개턱을 찾을수가 있어야지... 겨우 찾았어... 그... 째새기에 끼워 ... 하마트면... 아... 아...》영문모를 소리를 하며 신음소리를 지르다가 간신히 웃어보이던 그 웃음,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지어보이던 그 어리석은 웃음, 눈물겨운 웃음...

아, 정말이지 어떻게 되여 그때의 일이 생생히 떠오르는것인가?

나는 별안간 갈마드는 새삼스러운 생각에 가슴이 녹록해지며 물었다.

《보안원동무는 이 초소에서 몇해째 복무하고있소?》

소위는 숫저어하는 처녀처럼 소리없이 웃었다. 그의 가지런한 이발이 불빛에 반짝이었다.

《몇해째라고 할게 못됩니다. 이제 겨우 반년째입니다. 》

《그래도 그사이면 많은 사람들을 대상했겠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학교때는 다 몰랐었는데 여가와서 보니 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당해가지고서도 오히려 단속하는 우리한테 큰소리치며 해봅시다. 그런 사람들가운데는 나라일보다 제일때문에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좋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 아바이같은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지요. 어제저녁 늦어서 걸어오는걸 보니 지쳐서 겨우 오더군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청룡까지 가야 한다가에 차를 태워보내려고 억지로 붙들어났던것입니다. 허리가 또 잘못된것 같으면서 대계도소리를 하더군요. 대계도때 허리를 다쳤다면... 좋은 아바이라는게 알립니다. 사람이 저 하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까지 고생스럽게 다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저하나 편안하자고 하는것이지만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그 길에 목숨을 바치는것도 두려워하지 않... 웃지 마십시오. 사실은 저도 책에서 읽은...》

《미안하요. 아니, 동무말이 옳소. 책에서 배웠건 체험으로 얻었건 생활의 진리를 안다는건 좋은것이지.》 나는 은연중 떠오르는 막연한 예감에 놀라며 물었다. 《아 참, 그런데 이자 뭐라고 했나? 아바이가 대계도에서 허리를 다쳤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계도라는 섬에는 왜 들어갔다가 허리를 다쳤는가구요. 그랬더니 아바인 씨 웃더군요. <이보라구. 대계도라는게 섬이 아니야. 염주에 있는 바다가고장 이름이야. 젊었을때 거기서 바다를 막는 일을 했지. 대계도간석지라는 말을 들었지?>

<그런데 거기서 허리는 왜 다쳤습니까?> 하고 저는 또 물었습니다. 아바인 씨 웃더군요. <보안원동문 꼬치꼬치두 캐묻는군. 하긴 동무같은 젊은이들은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며 일했는지 알아야 해.> 아바인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해일이 덮쳐들어 애써 막아놓은 제방을 밀어버렸다구요. 돌격대의 한 소대장은 부선을 구원하려 거기에 뛰어들었다가 영웅적으로 희생되었다구요. 소대장이 잘못되구 부선은 바다속에 가라앉았는데 닻새후에 소대원들은 기어이 부선을 건져내여 공사를 계속 했다고요. 아마 아바인 그때 어찌다가 허리를 다친것 같습니다...》

나는 두번째로 눈앞이 아득해왔다, 창황중에도 방금전에 본, 나무결상우에 곤죽이 되어 쓰러져있던 철제일용 지배인령감의 모습이 떠올랐다. 왜서인지 갈마들던 막연한 예감이 공연한게 아니였구나!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살면서도 그를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다니!

희생된 광호소대장의 후임으로 새로 왔던 홍순도동지를. 이 천봉수는 높은데서 내려다만 봤으

니...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는가? 언제봐야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아래만 내려다보며 다니는 사람, 아니 잃어버리기는 무엇을 잃어버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자기의 위훈에 찬 지나온 시절을, 그 나날의 불덩이같은 심장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지 않는가. 어허. 이런 기막힌 일이라구야. 희생된 광호소대장동지를 대신하여 나에게 귀중한 말을 해주던 그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하긴 우린 겨우 댕새를 같이 살았지. 그런데 세월은 서른해도 넘게 지나갔으니. 아, 저 훌륭한 인간이 나때문에 고생을 했구나! 이 천봉수의 무책임과 몰인정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이건 책임성이나 그 어떤 인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그래... 그래... 이자 보안원동무가 뭐라고 말했던가.

《어- 잘 잤군. 저 보안원인가?》

귀에 익은 석션한 목소리가 어둠에 싸인 건물 쪽에서 날아왔다. 그다! 그의 목소리다! 정말 바다바람에, 서해의 사나운 바람에 목소리마저 저렇게 변했으리라.

허우대 구부정한 사나이가 불빛을 향해 두억시니처럼 다가왔다.

아직도 잠이 말끔히 가셔지지 않은 목소리로 뭐라고 알수 없게 중얼거리다가 역광에 싸여 서있는 나를 보더니 한순간 얼떨떨해졌다.

《어? 이거 청룡기계 지배인이 아니요?》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한껏 실리었다.

보안원소위가 그동안 내가 기다린 사연을 말해 주자 미안해하면서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원, 지배인동무두! 그렇다면 제격 깨울것이지. 기다릴건 뭐요.》

보안원이 스스로 방으로 들어가 회전자를 안고 나왔다. 운전대우에 얼굴을 올려놓고 잠들었던 운전사가 깨어나 차에 싣는것을 도왔다.

《그런데 타고다니던 소형자동차는 어떻게 하고 아바이가 이런 걸음을 다 하십니까?》

승용차가 달리기 시작했을 때 내가 물었다.

령감은 《허-》하고 김빠진 소리를 지르며 손을 획 내저었다. 《낡은건 버리고 이제 새차를 하나 마련해야겠수다. 그놈의 헌털뱅이가 사람을 망신시키지 않소. 영평탄광기계공장에 군대때 함께 복무한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저런게 하나 있다질 않소. 저거문 체네군대들한테 놓아줄 풍력발전기 회전자루 개조해서 쓸수 있지요. 우린 할바치군 분기발전으로 지금 조립하고있는 프레스를 완성해서 분말치차두 찍어내구 풍력발전기두 만들자는거우다. 그래서 떠났었는데 도중에 그놈의 차가 덜경했소. 고생줄이 들었지요. 허허, 인젠 확실히 늙었소. 젊었을적 생각만 하구 저놈을 지고 100리길을 가낼생각을 했다가 이 모양이 됐다니까요.》

《분말치차라는건 또 뭐니까? 철제일용에서야

그런걸...》

《년초에 지표를 받았수다. 나라가 든든하자면 뭉니뭉니해두 군대들한테 쌀을 많이 보내주어야 할텐데 듣자니 농장들에선 많은 트랙토르들이 부족품때문에 애를 먹는다질 않겠소. 그래 분말야 금법을 도입해서 청룡기계에 혼한 쇠밥을 가지고 트랙토르 감속기치차를 찍어볼 생각을 했지요. 우리라고 뭉 못이나 압정같은것만 계속 만들겠소. 발전을 해야지요. 그런데 되겠는지 모르겠수다. 분말야금이 말처럼 쉬운 기술이 아니라는데.》

《될것이다! 분말야금이 쇠조박지들로 못이나 압정을 만드는것과는 다르지만 될것이다. 쇠밥을 분말하여 트랙토르치차를 찍어내는 일도 되고 녀성군인초소에 보내줄 풍력발전기도 될것이다. 저 무거운 쇠볼이를 지고 그 먼길을 걸어서라도 갈 결심을 한 이 인간이 무슨일인들 못해낼것인가.《아바이, 저녁을 굶지 않았습니까?》

《했수다. 보안원들이 빵떡을 내놓아서.》

나는 승용차의 뒤창턱에 올려놓은 꾸레미를 내려워서 헤쳤다. 낮에 운전사동무가 어디 들렀다가 실고온 삶은 올감자였다.

《허, 그거 좋은거로군!》

령감은 배가 출출하던참인지 대번에 흡족해서 한알을 집어들었으나 왜서인지 입에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바이, 어서 드십시오.》

《감자를 보니 생각나는군. 지배인동무, 내 얼마전에 우리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해주신 닭목장을 찾아갔었수다. 텔레비존을 보니 그 목장이 새 세기에도 손색이 없는 현대적인 목장이라기에 어떤 덴가 해서 가보니 우리 군대들이 어려운 <고난의 행군>시기에 건설한것인데 참 희한합데다. 건물들이 모두 휴양각들갈구 모든게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운영되질 않겠소. 난 목장을 돌아보며 얼굴이 뜨거워서 혼났수다. 우린 나라에 리득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공장을 새 세기맛이 나게 해서 후대들한테 물려줄수 있게 하는 것이 장군님의 뜻이라느것은 생각못했다니까요.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니 생산을 하는것만으로도 큰것으로 생각했지요. 그런데 우리 장군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세상이 부러워하게 우뚝 세우실 구상을 안으시고 군대를 앞장에 내세워 나라의 도처에 그런 멋쟁이 목장들이며 공장들을 세워놓으신게 아니겠소. 아 참, 내 그 이야기를 한다는게. 바로 그 날말이우다. 거기 닭목장에 참관을 왔던 한 일군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데다. 무슨 이야기이고 하니 어느해엔가 우리 장군님께서 어느 산골군을 현지지도하시고 가시는 길에 점심참이 펴 지나서야 고개마루에서 일군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자고 하시면서 차에 싣고 가시던것을 퍼놓으시었는데 그게 삶은 감자였다오.》

그것은 나도 이미전에 들어서 알고있는 이야기였다. 하건만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앞에는 우리 장군님께서 산마루에 퍼놓으시었다는 삶은 감자알들이 떠올라 눈뿌리가 거리였다.

《아바이!... 홍순도동지!》 나는 끝내 가슴속에서만 고개치는 걱정을 터뜨리며 가까스로 부르짖었다. 《모르시겠습니까? 접니다. 그때 대계도에서 홍순도동지가 대학으로 떠밀어보내던 그... 제가 그 천봉수입니다.》

어둠속에서 그의 눈이 번뜩하더니 나를 자세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비끼던 의혹이 인차 놀라움으로 변했다.

《천봉수라니?! 지배인동무가 그 천봉수란 말이요? 해일피해를 입은 대계도에서 대학으로 떠나간 그 천봉수?》령감은 갑자기 차안이 들썩하도록 절절거리며 웃었다. 《그 천봉수였군! 그 천봉수야! 이런! 지배인동무, 이게 얼마만이요? 영?》

《홍동지!》 나는 왜서인지 더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돌이켜보면 참 세월도 많이 흘러갔다. 그런데 나에게서는 그때의 일들이 어제일처럼만 생각되었다.

승용차는 기본도로에서 벗어나 좁은 흙도로에 들어섰다. 운전사가 시간타산을 해보고 지름길을 택한것이였다.

날은 푸름해지는데 알리였다. 길은 며칠전에 내린 비에 드문드문 패이고 흙탕물이 잡혀있었다. 차는 자주 속력을 죽이며 웅덩이진 곳들을 조심스럽게 지나갔다.

《도로수리를 좀 할게지. 한심들 하다니까.》

운전사가 시간 급한 생각만 하면서 가속기조절을 잘못해서 차가 되게 들쭉대는 바람에 나는 속으로 혼자 화를 냈다. 그러다가 스스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자기가 편안하자고 남을 욕하다니! 옛그제 내린 비에 패인것인데 도로수리를 할 사이나 있었겠는가. 성실한 지배인령감이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는것만 같아 나는 바빠맞았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돌아보니 령감은 등받이에 몸을 실은채 기척이 없었다. 잠이 든것 같았다. 그런데 그가 중얼거리였다.

《한달 있으면 공화국창건기념일이지요?》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였다. 피곤에 못이겨 눈을 붙이고서도 그 생각만을 한것이였다. 공장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걱정도 하면서 중얼거린 것이였다.

《아바이, 이제 가면 그 처녀를 우리 생산부기 사장한테 보내십시오.》

나는 열결에 그 말이 나갔다.

령감이 눈을 떴다.

《그 처녀라니요?》

《쌍태머리 통계원처녀 있잖습니까. 화속이라고 하는...》

《아니, 지배인동무가 어떻게 우리 통제원을 다 아시우?》

호기심이 바짝 동했던 령감은 한참후에야 스스로 깨도가 된듯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지배인동무가 거기 장비직장에 있는 오근세한테서 다 들은 모양이군. 아는것도 많고 좋은 젊은이지요. 제 할 일을 다 하고 여가시간에 남을 도와준다는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젊은이가 우리 프레스조립이랑 많이 도와주우다. 부속품도 걸리는게 있으면 깎아다주고 설비조립을 하는데도 그 사람 도움이 크우다. 우린 분말야금 공정도 할바치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부 현대화를 하자고 합니다. 못도 반짝반짝하게 도금을 하구요 아직 생산문화도 더 하자는거우다. 아 참, 그런데 우리 통제원은 왜요?》

나는 한순간 말이 막혔다. 아무런 사전타산도 없이 나도 모르게 불쑥 그 말이 흘러나가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여기에 무슨 타산을 해볼것이 있단 말인가.

《아바이, 프레스제작에 필요되는 부속명세를 통제원한테 적어보내십시오.》

령감은 내 의도를 알아차리고 대번에 입이 뿔뿔해졌다

《고맙수다. 지배인동무, 이제 분기말전으로 치차생산을 할수 있겠수다!》

《그런데 아바이.》

《왜 그러시오?》

《대계도때 다친 허리가 지금도 말썽을 부린다지요?》

《아까 그 보안원소위가 말한게로군. 드문히 애크를 먹지요. 언제 다친 허리인데.》 령감은 잠시 무슨 생각에 잠기는듯 침묵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조용히 울리는 목소리에는 감회와 긍지와 그리고 이름할수 없는 그 무엇이 어려있었다. 《그땐 참 어려웠지요. 내 그러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에한테 그때 소리를 자주 해주우다. 모두들 그때 처럼만 일하면 무엇인들 못해내겠소. 지배인동무도 생각나지요? 그때 우린 모두 어떻게 일했소? 지금도 눈에 선하우다. 해일에 제방뚝이 무너져나갔던 그때의 광경이 말이요. 그래도 우린 누구하나 주저앉을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죽어두 공사를 기어이 끝낸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모두들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바다속에 뛰어들어 부선을… 부선을…》

동안이 떠지던 그의 말소리는 잦아들었다.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돌아보다가 그의 얼굴에 눈길을 보낸채 굳어졌다. 그는 승용차의 동발이에 편안히 몸을 실은채 잠들어버린 것이었다.

그의 거룩한 얼굴에는 안식이 깃들고있었다. 그러다가 무슨 꿈이라도 꾸는지 알수 없는 소리를

입안으로 웅얼거리었다. 다가오는 공화국창건기념일을 꿈속에서 그려보는것이냐 아닌가? 가열로에서 불길이 뿜어져나오고 프레스에서 반짝이는 치차들이 찍혀나오는 공장의 그날을 그려보는것이냐 아닌가? 초소의 산마루에서 풍력발전기가 기세좋게 돌아가고 처녀병사들의 고운 얼굴들에 웃음이 피어나는 그날을 그려보는것이냐 아닌가? 이 홍순도동지는 그날 나에게 심장의 말을 했구나! 그리고 자기가 말한대로 지금도 살고있어.

그날 나는 방파제우에서 겨우 의식을 회복한 홍순도소대장과 작별하고있었다. 잔파도가 밀려오는 바다우에서는 방금 끌어올린 부선 한척이 떠서 기울거리고있었다. 돌격대병실이 자리잡은 멀지 않은 언덕우에서는 부선인양 전투에 참가하느라고 기차시간을 놓쳐버린 나를 평양으로 태워갈 려단후방차가 기다리고있을것이다.

《동무, 앞으로 이 대계도를 잊지 말라구. 그러구 대학가서 공부 잘 하라구.》

《소대장동지두 인차 대학에 오십시오. 다 압니다. 려단에 있는 제 친구가 그러대군요. 소대장동진 음악가가 되고싶어한다구요.》

《꿈이야 누구한테나 있지. 음악도 하고싶고 대학에도 가고싶고… 그런데 그렇게 될것 같지 못해. 공사를 끝내야지. 그때 가면 난 공부할 나이가 지날거야. 그래도 난 후회하지 않겠어. 우린 시대를 빛내이는 대건설전투에 청춘을 바치는것도 행운이고 보람이지. 그러니 이 홍순도의 운명은 벌써 정해진거야. 안그래?》

나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멀리 앞에 사람들이 보이였다. 이른아침부터 도로수리에 동원되어 나오는 사람들이였다. 그너머 우리 청룡기계공장이 보이였다. 지금쯤 공장당위원회 위원들과 부서책임자들이 모여 회의시작시간을 기다리고있을것이다. 머리속에는 벌써부터 공장당확대집행위원회에 제기할 지표들과 수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심신을 피로히던 불안과 중압감을 감감 잊고있었다. 우리가 참으로 거대한 사업을 해낼수 있다는 신심이 생기였다. 기술개건사업이 아무리 어렵고 방대한것이라고 해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될것이다. 가슴속에서 심장의 세찬 박동소리가 울리였다. 쿵! 쿵!… 생명처럼!… 생명처럼!…

홍순도아바이의 그 말이 옳다. 우리가 티없이 순결한 마음으로 당의 요구라면 산도 허물고 바다도 막던 그때의 그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으로 일한다면 저 하늘의 별인들 따오지 못하겠는가!

문득 나의 눈앞에는 돌격대병실앞의 굳은 땅을 파고 심어놓았던 그날의 한그루 해당화가 떠올랐다. 지금은 붉은 해당화가 온통 어우러져 바다바람에 설레일 그 언덕이 불시에 그리워졌다.

연개소문

최준경

연개소문은 고구려말기의 애국명장이며 나라의 최고실권자였다.

그는 642년에 당나라에 아부아침하며 굴욕적인 사대정치를 일삼던 국왕(영류왕)과 투항분자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나라의 실권을 장악한 후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당나라의 거듭되는 외교적 및 군사적위협과 무력침공에 당당히 맞서 싸워 강대국 고구려의 위용을 다시한번 시위하였다. 고구려의 강대성을 널리 시위한 그의 업적으로 하여 그에 대한 일화와 전설들은 오늘날까지 적지 않게 전해지고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나라에서뿐만아니라 주변나라에까지 퍼져 전해오는 연개소문의 출생과 성장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중의 하나이다.

×

고구려의 영류왕(618~642)때 태조라는 한 명판이 있었다. 나이 50이 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다가 하늘에 빌어 옥동자를 낳았다. 자라면서 용모가 비범하고 재주가 출중하여 태조는 아이를 대단히 사랑했다. 그가 바로 고구려 연나부귀족 태조의 아들 소문이였다.

소문이 문앞에서 놀고있었는데 지나가던 한 도사가 보더니

《아깝도다! 아깝도다!》 하고는 가버렸다.

그 말을 들은 태조는 쫓아가서 도사를 붙잡고 그 까닭을 물었다.

도사는 처음에는 굳이 사양하고 입을 열지 않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가 자라나면 부귀와 공명이 그지없으련만 다만 타고난 목숨이 짧아서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리다.》

태조는 가슴이 덜컥해서 그 흉액을 피할 길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도사는

《열다섯해동안 멀리 내버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만나지 못하게 하면 액때움을 할수 있습니다.》 하고는 가버렸다.

도사의 말을 믿고 태조내외는 후날 찾을 작정을 하고 아이의 옷에 실로 개소문이라는 이름을 새긴 다음 차마 못할 일이였지만 앞날을 위해 하인을 시켜서 그애를 산설고 물설은 먼 고장에 내다버리게 하였다.

그를 버린 곳은 원주라는 머나먼 고장이였다.

원주에는 류씨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있었다. 그는 어느날 밤 앞뜰에서 황룡이 하늘로 올라가

는 꿈을 꾸고 새벽에 잠을 깨여 앞뜰로 나갔다. 거기에는 과연 잘 생긴 아이가 있었다. 류씨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길렀다. 이름은 아이의 등에 새긴 이름자를 보고 그대로 개소문이라고 불렀다.

소문은 자랄수록 용모가 청수하고 재주가 출중하여 사랑스러웠으나 류씨는 그 래력을 알수 없는데다가 남의 시비를 꺼려 천인으로 대하고 종으로 부렸다.

하루는 소문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는중에 문득 청아한 통소소리를 듣게 되었다. 소문은 곧 지계를 버티어놓고 통소소리를 찾아갔다. 한곳에 웬 로인이 앉아서 통소를 불고있었다.

로인은 소문을 보고 반기며 《네가 소문이 아니냐? 네 이제 배우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큰 공을 세울수 있겠느냐?》 하더니 큰 공을 세우려면 왜 배워야 하는가를 이야기하였다.

소문은 로인의 이야기에 취하여 해가 지는줄도 몰랐다.

로인은 지는 해를 가리키며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래일 다시 오너라.》 하고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소문은 그제서야 《내가 나무를 하러 왔다가 빈 지계를 버티어놓고 해를 보냈으니 이 꾸중을 어찌나.》하고 걱정을 하며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계에는 나무가 가득 실려있었다.

소문은 다음날부터 나무를 하러 가서는 그 로인을 만나 검술과 도술을 배웠다. 해가 질무렵에는 누군가 나무를 해서 실어놓은 지계를 지고 돌아오곤 하였다.

류씨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 셋이 있었다. 맏이는 문히, 가운데는 경히, 셋째는 영히라 불렸다. 모두 아름다웠으나 영히가 더욱 절색이였다.

소문이 나이 열다섯이 되던 해 화창한 봄날 류씨는 소문을 불러서 자기의 세 딸을 수레에 태워 화류구경을 시키라고 하였다.

소문이 먼저 문히 방앞에 수레를 대었다.

《아가씨, 수레를 대령했습니다.》

문히는 버선발로 마루끝에 나서며

《아이고, 맨땅을 어떻게 디디겠느냐. 애, 거기 좀 엎드려라》하고 그의 등을 밟고서 수레에 올랐다.

경히도 문히가 하는대로 했다.

소문은 화가 치밀어 주먹으로 문히와 경히를 때려죽이고싶었지만 류씨의 은덕을 생각하여 곧

이 참고 수레를 영히 방앞에 뒀다.

《그년이 그년이겠지!》

소문은 이렇게 혼자말로 웨치고 우정 목소리를 곧두세웠다.

《아가씨, 수레를 대령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숙여 뜰아래 엎드렸다.

마루끝에 나온 영히는 그 모양을 보고 자지러지게 웃었다.

《소문아, 이게 무슨 짓이여?》

《아가씨, 소문의 등이야 하늘이 아가씨들을 위해 만든것이 아닙니까. 이 등으로 나무를 저다가 아가씨들의 방을 덮히고 이 등으로 쌀을 실어다가 아가씨들의 배를 채우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가씨들은 앉으시려거든 이 등을 자리로 쓰셔도 좋고 수레에 오르시려거든 이 등을 디딤돌로 쓰셔도 좋고...》

소문의 말이 끝나기도전에 영히는

《아서라! 이게 무슨 짓이냐. 사람의 발로 사람의 등을 어떻게 밟을수 있겠느냐.》하고 달려들어 그를 붙잡아 일으키었다.

소문이 일어나서 바라보니 영히는 여느때보다도 더 아름다와보였다.

소문을 가까이 마주보는 영히도 마음이 설레었다.

《저런 비범한 사나이가 어째서 남의 집 종이 되려는가!》

이런 일이 있는 뒤로 소문은 영히를 그리워하고 영히도 소문을 사랑하게 되었다. 둘사이의 날이 갈수록 가까와졌고 정분이 두터워갔다.

어느날 밤 소문은 영히를 만나 속을 터놓았다.

《내 나이 일곱살에 집을 떠나던 일이 어렵듯이 떠오릅니다. 나도 집에 돌아가면 그대와 같은 귀인과 버젓이 사랑할수 있고 짝이 될수 있는 귀인의 아들입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영히의 섬섬옥수를 그러쥐었다. 영히도 머리를 소문의 가슴에 묻고 사랑을 고백하였다.

《저는 귀인의 안해가 아니라 사내대장부의 안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대가 사내대장부 아낀진대 귀인의 아들이라도 내 사내는 못될것이고 사내대장부라면 그대가 비록 종이라도 저는 그대 아니면 안해로 되지 않을것입니다.》

영히는 이 말을 하고나서 머리를 들며 소문에 게 속에 품은 포부를 알고싶다고 하였다.

이에 소문은 정색하여 말했다.

《달팔이 늘 우리 나라를 침범하여 괴롭히나 우리는 달팔을 쳐물리칠뿐이고 달팔에 쳐들어가서 화근을 영영 뽑아치우지 못하고있는것이 한스럽소.》

그런 다음 산에 나무하러 가서 한 로인을 만나 검술과 병법을 배우고 익힌것까지 다 이야기해 주었다.

영히는 무척 기뻐하면서 말했다.

《그런데 달팔을 치자면 그 나라의 허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대가 몸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잘 살피여 후에 싸워이길수 있는 터전을 닦아놓고 돌아오시면 저는 그대의 안해는 못될지라도 그대의 종이라도 되어 끝까지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소문은 영히와 굳게 약속하고 몰래 류씨의 집에서 달아났다. 떠날 때 영히는 금가락지와 은수저를 로비로 주었다.

그후 달팔로 들어간 소문은 이름을 돌쇠로 고치고 달팔왕의 종이 되었다. 그는 뽕뽕이 준수하고 슬기로와서 왕의 신임을 받았다. 그리하여 얼마 안가서 그 나라 말과 풍습도 익히고 허실을 살필수 있었다.

이때 달팔왕의 둘째아들이 왕에게 고하기를 돌쇠가 비상한 인물이고 또 달팔의 씨가 아니니 죽이여 후환이 없게 하자고 하였다. 그리고는 곧 그를 쇠울바자를 둘러친 집에 가두어 굶겨죽이려 하였다.

소문은 자기가 위험한 지경에 빠진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위경에서 벗어날 묘책이 떠오르지 않아서 몹시 안타까웠다. 그의 곁에는 길들이고있는 새매초롱이 있었다. 소문은 와락 달려들어 그 초롱을 짓부시고 새매들을 모두 날려보냈다. 그것은 공주가 돌보는 초롱이었다. 마침 왕과 그의 아들은 사냥을 나가고 없었다.

소문이가 새매를 놓아주는것을 보게 된 공주는 크게 놀라 꾸짖었다.

《왜 새매를 다 놔보내느냐? 그러니 너는 우리 아버지와 오라버니에게 죽을 죄를 짓지 않았느냐.》

《내가 갇힌것을 답답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매가 갇힌것을 보니 매도 답답해하는것 같다. 나를 놔주지 않는 사람은 원망하면서도 바로 내 곁에 갇힌 매를 놔주지 못하면 매가 나를 얼마나 원망하겠느냐. 나는 매를 위해 죽을지언정 매의 원망은 받지 않으리라는 불같은 마음에서 초롱을 부시고 매들을 놔보낸것이다.》

공주는 가엾은 생각이 들었으나 엄하게 꾸짖었다.

《내가 우리 둘째오라버니한테서 듣자니 너는 우리 달팔을 망하게 하려고 생긴 사람이라고 한다. 네가 어찌 그럴수 있느냐.》

이 말을 들은 소문은 결연히 대답했다.

《하늘이 달팔을 망치자고 나를 낳았다면 그대 오라버니가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죽지 않을것이고 또 나를 죽일지라도 나같은 사람이 또 나올것이다. 그대 오라버니한테 이렇게 잡히여 죽게된 몸이 어찌 달팔을 망친단 말이냐. 그대 만일 나를 놔주면 나는 저 매들과 같이 훨훨 날아다니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외워 그대를 보호해달라고

바랄뿐 다른 마음은 없다》

공주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오냐, 내 아무리 연약한 여자이지만 너 하나를 살리지 못하겠느냐. 우리 아버지, 우리 오라버니가 이제 곧 돌아오시거든 너의 허물없음을 아뢰어 너를 봐주도록 하겠다.》

그러자 소문은 공주의 기색을 살피며 말했다,

《그대는 애쓰지 말라. 돌쇠 한놈 죽는것이 무슨 큰일이냐. 내 들으니 부처님은 사람을 구할 때 그 아버지, 그 오라버니에게 아뢰는 일이 없었나.》

안색이 질리고 말이 막힌 공주는 즉시 내전으

로 들어가서 열쇠를 가지고 나와 문을 열어제꼈다.

《너를 보면 이내 마음 절로 따라간다. 네 몸은 새매같이 훨훨 날아갈지라도 네 마음만은 나에게 주고가거라!》

소문은 문을 나서며 공주의 손목을 다정히 잡았다.

《네가 나를 잊을지언정 내 어찌 너를 잊겠느냐.》

급히 성문을 벗어난 소문은 험산준령의 산발을 타고 풀뿌리를 캐먹으며 달팔의 지경을 넘어 집을 떠난지 열다섯해만에 귀가하였다.

우리는 그날에 불을 지폈다

류춘선

우리 그날

건설자의 땀은 배낭 풀기도 전에
유리공장건설의 첫 발파구멍을 잡고
이 강언덕에 우등불을 지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그날에 너와 나
열정에 타는 그 불길을 말없이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했던가

아직은 엉성한 바위와 나무뿐인

이 강언덕을 통채로 날려버린 여기에
번쩍이며 솟아오를 유리공장
용해로의 첫 불물이 쏟아져 흐르는 그때

우리 생활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윤택하며
티없이 맑은 창으로
그대로 흘러드는 햇빛은
별빛은 또 얼마나 유정할것이라

마중가는 더 좋은 앞날을

타오르는 우등불속에 그려보며
대발파의 도화선보다
건설자 우리는 심장에 먼저
불을 달았거니

오 그 불은

땀마저 흐를새없이 말라버리고

삼복의 불벌마저도 태워버릴듯

뛰고 달리던 우리 심장속용암이
끓어오르는 붉은기수호의 불

그 불은

흐르는 땀과 비물로 단목을 추기고
선채로 쥘기밥을 나누어가던
그 사나운 폭우속에서도
타번지던 심장의 불
결사관철의 불

아, 불이여라

우리 심장의 불이여라
가야 할 강성대국에로의 길은
심장에 불을 단 사람만이
붉은 심장 그대로 화불마냥 추켜들고
강그리 태우는 사람만이
열어갈수 있거늘

우리는 그날에 불을 지폈노라

심장의 불을 지폈노라
우리 장군님 안아오신
친선과 우의의 기념비
유리공장 용해로의 첫불을
우린 그날에 벌써
심장에 타오르는 불길로써
지펴올렸노라

-대안친선유리공장건설장에서-

명언해설

《위대한 수령이 있고 위대한 당이 있고 참다운 조국이 있을 때 민족도 빛나고 개인의 운명도 영예도 빛나는것이다.》

김정일

민족의 존엄과 영예, 개인의 운명과 영예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참다운 조국의 품속에서만 빛난다는 뜻이다. 수령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이끌어 나가는 혁명의 최고뇌수이고 당은 혁명과 건설의 향도적력량이다. 참다운 조국은 민족성원전체가 안겨사는 행복의 요람이고 영원한 삶의 터전이다. 민족의 위대성은 그 민족을 이끄는 수령과 당의 위대성에 의하여 결정되며 민족의 운명속에 개인의 운명이 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 참다운 조국이 없이 민족의 존엄과 영예, 후손만대의 통성변명이 있을수 없고 개인의 참된 삶이 꽃필수 없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으며 참다운 사회주의조국에서 살고있기에 민족제일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는 긍지 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었다.

우리는 먼길을 가깝게 간다

서봉제

충성없는 전투의 길 멀리도 왔구나
전화의 나날로부터
세월은 반세기 더 넘고
세대는 바뀌었건만
부모들이 잡았던 총과 함께
우리는 건설의 무기를 하루도 놓지 않았거니

초연이 타래치지 않는다하여
우리 피를 바치지 않았던가
적의 화점이 불을 토하지 않는다하여
우리 목숨을 아끼며 살아왔던가

말해보자 여기 삼수발전소건설장에서
그 뉘인들 안식과 안락을 바랐던가
눈보라 울부짖는 언땅우에
천막기둥 세울 때도
우리는 건설도 전투로 생각했더라
돌사태속에서 동지위해 한몸바친 청춘들은
또 얼마였던가

말해다오 백두에서 흘러간 돌격대의 나날이어
수림속의 새 거리 삼지연불나무거리를 건설할
때도
백두산천지돌계단공사를 벌릴 때도
앞을 다투며 결사대원으로 대렬을 짓던
뜨거운 그 마음들
우리의 가슴에 오늘도 젖어있나니

어찌 잊으랴 잊을수 있으랴
삼수발전소건설장 여기서
봉락된 갱구로

육탄이 되어 돌입하며 남긴
마지막 목소리

-동무들, 우리가 만약 막장에서 나오지 못해도
잠시도 작업을 멈추지 말라!
아, 외위기조차 목메이는 심장의 메아리
오늘도 우리 가슴을 세차게 흔들거니

우리의 전투장엔 총포탄이 비발치지 않았다
허나 우리는 건설의 무기로 총탄을 쏘았노라
집을 하나 세워도 나무 한그루 심어도
철과 철이 부딪치고
불과 불이 오가는
전투전역으로 생각했나니

백두성지에서 발전소건설장 여기로
청년영웅도로와 수도건설장에서 또다시 여기로
우리는 이렇게 어제도 오늘도
먼먼길을 이어왔노라
오직 장군님 부르시는 곳에 우리의 전투장 있고
조국변영의 래일이 가까이 마주오기에
우리는 시련의 길도 웃으며 헤쳤더라
우리는 고난의 길도 노래로 넘었더라

아, 우리 가는 걸음 영광이기에
그 길 천리라도 좋고 만리라도 좋아라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그 길을 가깝게 간다
가깝게 살며 붉은기의 노래안고
웃으며 간다!

천금을 주고 산 고구려의 부루

박승길

예나 지금이나 조선사람들의 식생활에서 부루는 누구나 특별히 좋아하며 즐겨먹는 남새로 되고있다.

이러한 부루가 한때는 천금을 주어야 살수 있을 정도로 매우 귀한 남새로 되었던 때도 있었다.

그것은 중세 우리 나라 역사에서 강대국으로 알려졌던 고구려시기에 있는 일이었다.

고구려사람들은 일찍부터 여러가지 알곡작물과 함께 남새도 널리 재배하여 식생활에 리용하여왔다. 남새가운데는 부루도 있었는데 집집마다 터밭에 부루를 심어 부식물로 리용하기도 하고 무더운 여름철같은 때에는 생신한 부루잎에 된장을 발라 밥을 싸먹기도 하였다.

당시 고구려에 왔다가 이것을 본 이웃나라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희귀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였다.

왜 그렇지 않으랴. 그때까지만 해도 이웃나라들에서는 부루라는것을 전혀 몰랐으며 더우기 남새잎에 밥을 싸먹는것과 같은것은 그 어디에서도

볼수도 없었기때문이었다.

그후 여러차례 고구려를 왕래하는 과정에 부루의 신비한 맛에 대하여 알게 된 이웃나라에서는 저저마다 고구려에 부루종자를 보내줄것을 요청하였다. 그러한 나라들중에는 중국의 수나라도 있었다. 수나라에서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부루종자를 해결해줄것을 고구려에 요청하였으며 나중에는 사신까지 보내어왔다. 수나라의 거듭되는 요청을 고구려는 들어주기로 하였다.

고구려의 너그럽고 아량이 깊은 조치로 마침내 부루종자를 얻게 된 수나라의 사신은 거듭 사의를 표시하였으며 돌아갈 때에는 부루종자값으로 대단히 후한 보상을 치르었다.

이 일이 있는 후부터 사람들은 천금을 주고 얻어간 남새라는 뜻에서 부루를 일명 《천금채》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오랜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전해내려왔다.

고구려의 부루와 관련한 이 이야기는 18세기말, 19세기초에 편찬된 《해동역사》를 비롯한 책들에 실려 오늘까지 전해오고있다.